한국전력공사 공인협력업체 한국전기연구소 품질인정업체
심야전력 기기제조 설치전문점
▶용도 : 사찰, 주택,식당,병원,목욕탕,숙박업소, 관공서,모든 공공장소에 설치
그/랑/쓸/레/이 051)743-3376

현대불교

'98 자양강장제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원비-디®

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888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3년(서기 1999년) 7월 14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제 230 호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한국불교 이것부터 고칩시다

공허한 '1사찰 1부대'

현재 전국에 있는 군법당 수는 360여곳. 이중 근법사들의 손길이 미치는 군단 및 사단급 법당 140여곳을 제외하면 절반이 넘는 연대급 이하 법당에서는 군종병들이 1주일에 한 번씩 법회를 봉행하며 불교 행사의 맥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대대급 법회는 군종병들이 녹음테잎을 틀거나 병사들과 함께 경전을 낭송하는 등 법문 없이 약식법회로 끝내기 일쑤다. 하지만 군종교 행사에서는 일반 종교 행사와 달리 개인의 자유가 축소된 군생활의 특성상 심신을 위로해 주는 감로 법문과 위문품 전달이 포교 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군종병인 김모병장은 "군법사가 참여한 종교 행사에는 군장병들이 많이 참석하는 데다, 지휘관까지 법회 시간은 물론 인원 동원을 배려해준다"며 "군종병이 법회를 주재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군법사 없는 군법회 지역사찰 지원해야

설상가상으로 대대급 법당은 시설도 내무반이나 막사를 개조한 간이 법당이 많아 단독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대대급 부대까지도 거의 미련돼 있는 개신교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군포교에 적신호가 오리란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군법사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만이라도 인근 지역의 사찰과 연계해 스님을 법사로 모셔 군장병들에게 위안이 되는 법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

종단 및 군승단도 방관만 하지 말고 군종병들에 의해 어렵게 유지되고 있는 법당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 사찰과의 자매결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또 군포교에 관심 있는 불자들이 언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군포교 현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불자들에게 공개하며 적극적으로 후원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큰 예산이 드는 일이 아니다. 관심을 가진만큼 행하는 일만 남았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전교사制 도입' 74% 찬성

조계종, '신도법 개정' 승·재가 680명 의식조사

전문 재가지도자 필요성 스님 75.8% 공감

스님과 신도들은 일반 신도의 교육을 담당하고 신행을 지도하며 법회를 보좌하는 (가칭)전교사(또는 전법사) 제도의 도입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이 6월17일부터 7월3일까지 스님 192명(28.2%), 재가자 488명(71.8%)등 총 6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교·신도관련 종법제·개정을 위한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전교사 제도의 도입'에 대해 73.7%가 찬성을 표했다.

특히 스님(75.8%)들이 재가자(73%)보다 전문적인 재가 지도자의 필요성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각 본말사에 상임포교사를 두도록 한 제도(포교법)가 직지사 마곡사 등 일부 사찰을 제외하고 실시되지 않는 등 재가 지도자들이 활동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그간의 부정적인 사고를 불식시키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전교사는 스님을 대신해 포교취약지역 및 분야의 법회를 주관하고 각각의 포교분야(계층및 특수전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종단의 인정과 지원하에 신도의 지도자로써의 위상과 역할을 확보하며 포교활동을 수행하는 과거 '종단 상임포교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포교원은 전법사의 선발및 배치, 운영 등에 관한 방침을 마련중이며, 1백명 이내로 선발해 농어촌과 같은 포교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포교원의 이번 설문조사는 '재적사찰갖기 및 신도등록 실시'에 대해 96.3%가 '계속 실시'에 찬성하는등 전반적으로 신도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그동안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의 바람직한 신도 종책과 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스님과 재가자들 사이에 사안별로 견해 차이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포교 및 신도관련 제도 구축에 출·재가가 따로 없음을 보여줬다.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는 포교사 286명(42.2%), 본·말사 주지스님 165명(24.4%), 교계신문 구독자 74명(10.9%), 중앙신도회 대의원 69명(10.2%), 불교대학 대표자 및 강사 46명(6.8%), 종회의원 스님 27명(4%), 신도단체 임원 10명(1.5%) 등이다. 〈관련 기사 3면〉

김재경 기자 (jkim@buddhapia.com)

종단협 16일 이사회 원불교가입 논의할듯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고산)는 16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및 불교도 금강산 순례 결과보고를 듣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가입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조계종 원로회의 교구본사주지 회의도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탄성)는 15일 회의를 열어 원로회의 법 개정에 대한 원로회의의 입장을 결정한다. 원로회의는 지난 3월 원로의원 연령상한선(세납 85세 이하) 설정에 대해 일부 원로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상한선 설정이 종헌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방향을 논의한다.

조계종총무원(원장 고산)은 15일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종단 현안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총무원은 본사주지회의를 분기별로 열어 현안문제 및 종책에 대해 각 교구의 의견을 듣는다는 방침이며, 이번 회의도 이같은 방침에 따라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자원봉사 청소년들

'흐르는 땀방울 속에 자비실천의 열매를 맺지'.

올 여름방학에도 전국 청소년 단체와 복지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자원봉사가 전개된다. 6월27일 서울 혜명양로원을 찾은 청소년 교화연합회 소속 청소년 불자 1백20명은 양로원 궂궂을 수리하고 청소하면서 적극적인 자비행을 실천했다. 〈관련 기사 19면〉

"종교채널 의무전송해야"

3대종교 지도자, 대통령·국회의장에 건의

불교TV등 3社 대표도

통합방송법안의 국회 상정을 앞두고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과 정진석 천주교서울대교구장, 지덕 기독교총연합회장 등 3개 종교 지도자들은 3일 케이블TV 종교채널(불교TV, 평화방송TV, 기독교TV)의 의무전송제 도입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3당 대표에게 제출했다. 종교채널 3사의 대표들도 3일 공동명의로 된 동일 내용의 건의문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통합방송법안에는 케이블TV와 관련, 채널티어링제 실시, 공공채널(K-TV) 의무전송 등을 중요조항으로 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서해 연평해전 영향 남북 불교교류 중단

남북불교교류가 6월 발생한 서해안 교전사태로 중단됐다. 진각종과 전국불교운동연합, 불교인권위원회는 당초 5일과 7,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과 장기수송환 문제 등에 대해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조불련이 6월 29일 남북관계 긴장을 이유로 불교교류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알려와 무기한 연기됐다.

도필선 기자

제2회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7월22일~24일, 에버랜드·사찰서 2박3일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앞날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작년에 이어 제 2회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사찰과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에버랜드 통나무집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 1999년 7월22일(목)~24일(토), 2박3일(사찰1박 에버랜드통나무집 1박)
◇장 소 : 용주사 신륵사 와우정사 경수사 백령사 에버랜드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5백명)
◇참 가 비 : 5만5천원
◇문 의 : 현대불교신문 전화(02)723-1776
◇은행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진행 : 선재이벤트
후원 : 조계종 포교원·진각종 통리원·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불교조각원·(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구산선문 참선 기행

7월 : 동리산문(태안사)·화엄사·천은사

7월에는 적인선사 혜철(785~861)에 의해 개창된 동리산문의 중심도량 태안사를 찾아갑니다. 천년의 세월 속에서도 청정 수도승들이 고귀한 승결로 선법을 전해와 현재에도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태안사에서는 옛누각인 능파각을 비롯해 적인선사조륜청정탑(보물 제273호)과 광자대사부도(보물 제274호) 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각황전 앞 석등(국보 제12호)과 사사자삼층석탑(국보 제35호)으로 유명한 화엄사에서는 불교의 으뜸 사상으로 꼽히는 화엄 사상의 숭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지리산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는 천은사도 참배합니다

◇출발 : 7월 24일(토) 밤11시 · 조계사 앞(무박2일)
◇회비 : 4만5천원(조식 중식 포함)
◇접수처 :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3
◇입금계좌 : 조흥은행 322-04-221460(예금주 선정호)
☞구산선문 관련자료 부다피아(www.buddhapia.com)에서 보세요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 일양약품·대한불교제과인회

불서출판, 불황의 끝 보인다 8면
열린마당 '목잘린 단군상' 6면

BBS 불교방송 후원회
불자 여러분의 정성과 예정어린 후원으로 불교방송 프로그램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은행지로 : 8003478 국민은행 : 827-25-0020-943
농 협 : 069-01-238223 외환은행 : 189-13-03929-3
예 금 주 : 불 교 방 송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마보빌딩 (전화 : 02-705-5560~1)

· CELLULOSE FIBER SPONGE · CELLULOSE FIBER SPONGE ·

GREEN SPONGE 환경을 생각하는 주부님들의 벗입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주방일.
잘 닦이고 위생적인 GREEN SPONGE가 해결합니다.
환경오염이 걱정없는 GREEN SPONGE!
주방의 역사를 바꿉니다.

그린 셀룰로즈파이버 스폰지의 특성
● 환경오염을 막아줍니다.
쓰고 버린 후에도 100% 분해되므로 환경오염의 걱정이 없습니다.
●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강한 흡수력이 물이나 오물 등을 빠르게 흡수하여 흠집을 남기지 않습니다.
● 위생적입니다.
물에 살아 소독할 수 있으며 건조가 빨라 여름철에도 위생적입니다.
● 부드럽고 탄력이 뛰어납니다.
부드러운 감촉과 뛰어난 탄력성으로 구석구석 잘 닦입니다.
● 적은 양의 세제로도 충분합니다
천연펄프를 사용한 부드러운 재질로써 소량의 세제로도 충분한 거품이 생깁니다.

- 다양하고 경제적인 생활용품 소비자들이 원하는 모든 제품들이 한곳에 모였습니다.
- 구입하실 땐 만족을, 다쓰고 버릴 땐 흐뭇함을 느껴보십시오. 신뢰를 바탕으로 우수한 양질의 제품만을 선보이겠습니다.


그린 스폰지 GT-001(사각형)
규격 85×135mm
용도 식기, 유리그릇, 냉장고, 조리기구, 자동차 등 세척시
특성 뛰어난 흡수력과 일착력으로 잘 닦이며 살아 사용할 수 있어 위생적입니다


그린 스폰지 GT-002(타원형)
규격 90×120mm
용도 식기, 조리기구, 싱크대, 코팅제품 등 세척시
특성 부드럽고 흡수력이 뛰어나 오래 사용해도 위생적입니다


그린 수세미 GT-003(사각형)
규격 75×115mm
용도 식기, 유리그릇, 냉장고 및 그밖의 물기 제거시
특성 천연스폰지와 수세미의 이중구조로 흡수력, 일착력이 뛰어납니다. 잘 닦이고 건조가 빨라 위생적입니다


그린 목욕 스폰지 GT-004
용도 목욕시
특성 부드럽고 탄력이 좋아 어른뿐만 아니라 아기 목욕시에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린 화장 스폰지 GT-005
용도 화장시
특성 부드럽고 일착성이 뛰어나 화장이 잘 먹습니다


그린 병 스폰지 GT-006
용도 좁은 유리잔, 물통, 아기 우유병 등 세척시
특성 편리한 손잡이와 뛰어난 흡수력으로 구석구석 잘 닦입니다


그린 거품 스폰지 GT-007
용도 식기, 조리기구, 유리그릇 등 세척시
특성 세제를 담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 사용이 편리하며 스폰지와 접촉되는 부분에 작은 구멍이 있어 적당량의 세제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린 압착 스폰지 GT-008
용도 자동차, 주방기구, 유리 등 세척시, 아기 및 성인 목욕시
특성 약간의 물기만 닿아도 점점 커지고 원하는 내용, 색상 인쇄가 가능해 탄력물로 적당하며 부드럽고 거품이 잘 일어 세제가 절약됩니다

GREEN TEX는 환경만족, 고객만족을 약속합니다. 저희 그린텍스는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해 환경을 만족시키며 품질향상에 매진하여 고객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21세기 환경을 이끌어가는 기업! 저희 그린텍스의 미래입니다.

주식회사 그린텍스 GREEN TEX. CO., LTD.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 동 628-14 정호빌딩 2층 TEL:02-3409-2235(代) FAX:02-3409-2236
■공 장 : 경북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202번지 (풍산농공단지) TEL:0571-858-5661(代) FAX:0571-859-3639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어떤 형태나 크기의 스폰지도 가능합니다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GREEN TEX ·

사 설

종교TV는 공공채널

정부 여당이 성안중인 통합방송법이 케이블TV 종교채널을 의무전송에서 제외시키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한 선택이다. 정부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4~5개의 묶음채널을 선택하게 하는 채널티어링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심대한 경영위기에 빠진 케이블TV 산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종교채널을 포함시키려는 것은 종교채널이 갖는 사회공익성을 외면한 근시안적 결정이라는 것이 종교계의 판단이다.

종교채널이 케이블TV가 출범한 이래 어떤 내용을 방송해 왔는가는 시청자나 관계자가 더 잘 안다. 온갖 상업적 선정적 메시지가 관을 치는 현실에서 종교TV는 다른 채널과는 달리 국민의 심성을 종교적으로 순화시키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함양시키는데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IMF 경제체제 이후 경기불황의 여파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경영위기 속에서도 공익성 높은 프로그램의 제작으로 국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설득하고 격려해온 점은 종교채널이 보여준 큰 성과였다. 정부가 당초 종교계에 채널을 허가해준 것도 이런 일을 종교계가 맡아달라는 취지에서일 것이다.

사실 날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타락한 경향으로 치닫는 현대사회를 각성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송은 종교채널밖에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직 역사가 짧고 전송망 등 인프라 문제로 영향력은 적을지 모르나 그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이 종교채널이다. 설사 통계적으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종교TV를 시청하는 시간이 다른 방송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성은 상업적 가치기준으로 평가할 성격이 아니다.

종교계에서 설립 운영하는 모든 채널은 다른 상업방송과는 달리 처음부터 이러한 책임감과 자긍심으로 순수하게 공익지향적인 방송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TV를 의무전송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앞장서서 종교가 갖는 사회공익성을 전면 부정하려는 것이 된다. 이는 도덕성을 지향해야할 정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이 기회에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케이블TV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과오다. 지난 95년 케이블TV가 출범할 당시 정부는 전송망등 아주 기초적인 인프라도 구축해놓지 않고 무리하게 업계에 방송송출을 강요했다. 정부는 일단 케이블TV를 개국하면 전송망이 구축될 것이란 계산을 했는지 모르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송망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많은 업체가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상업자본이 아닌 순수한 종교적 성금으로 참여한 종교채널의 경우는 그 허탈감이 더 하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채널이 의무전송에서마저 제외돼 존폐문제가 현실화된다면 종교계의 반발은 상상외로 심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종교채널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를 비롯한 천주교와 개신교계 지도자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 요로에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종교채널의 공공성을 인정하여 의무전송채널로 묶어주도록 건의문을 제출했다.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상업적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국민정신문화 계도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적극 수용해줄 것을 촉구해 두고자 한다.

꼬리무는 종교편향·훼불

안산시 복지관 위탁공고 불교계 제외
월간지 '신앙계' 불교폄하 글 실어 '물의'

종교편향 및 불교비하 사례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시는 초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자 선정 위탁공고를 내면서 용인소재 불교법인체에만 공고사실을 통보한 가운데 타지역 법인체는 수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심사기준에 따라 지난 4월24일 안산 제일장로교회를 수탁자로 결정했다.

안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허)는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안산 불교계를 배척했다며 재공고를 통한 위탁 재심사를 요구키로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규모 규탄법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안산불교사암련은 시의 약속만 믿고 위탁프로그램을 준비해 왔지만 결과는 따돌림만 당한 꼴이 됐다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재공고를 통한 위탁 재심사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서울도봉구의 한 지역유선방송국이 1천원의 보급형으로 각 가정에 교육방송을 비롯한 국내 공중파방송과 해외 종교채널 중 기독교방송, 천주교방송, 찬송가방송만을 위성을 통해 송신하고 있어 지역 불자들로부터 '전도' 목적이 있는게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개신교계 장로가 월간지 '신앙계' 7월호에 석가모니와 예수를 비교하며 불교를 폄하하는 글을 실어 물의를 빚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김모 장로는 이 잡지 기고문을 통해 '라마다경'이라는 출처불명의 경전을 근거로 "석가는 마지막 설법에 '하시야소래(何時耶蘇來) 오도무유등(吾道無油燈), 즉 언제라도 야소(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진리)는 기름이 없는 등불'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종교편향대책위(위원장 원혜, 현진)는 이에 대해 예수의 한문 표기인 '야소(耶蘇)란 단어가 18세기 이후 사용된 점을 들며, 출처도 불분명한 경전을 예로 들어 불교를 비하한 사실을 조목조목 따져 언론매체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알려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자칫 불교계와 개신교간의 갈등으로 비쳐지는 것을 막고 여론을 통해 불교비하를 막자는 조치이다.

김재경 · 도필선 기자 (jgkim@buddhapia.com)



1천억원대 문화재위조범 15명 적발

서울지검 형사5부(이동기 부장검사)는 7일 불상, 고서화등 1천여점을 위조해 이중 30여점을 판 한국고미술협회 전회장 공창호(51)등 일당 15명을 적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들로 부터 '금동미륵보살반가상'(사진 맨 오른쪽), 결재 정선의 '금강전도' 등 위조 미술품 1천여점과 가짜 낙관 등을 압수했다. 적발된 위조품 1천여점은 진품 시가로 환산할 때 1천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

조계종 장학승 선발
이달말까지 신청접수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올해 국내외 장학승 선발 공고를 내고 신청자에 대해 이달말까지 접수하도록 했다.

장학혜택기간이 1년인 조계종 장학승 신청대상은 조계종 재적승으로 정규대학 석사과정 이상자여야 하고, 종헌 제9조 3항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해외 장학승 15명에 각 200~250만원, 국내 장학승 10명에 각 100만원씩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02)732-4923 김재경 기자

백령도 연등점등 비협조
태고종, 옹진군 항의방문

한국불교태고종 인천종무원(원장 대은)은 14일 경기도 옹진군을 항의방문해 백령도내의 종교편향 사건에 대해 책임자 사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종무원장 대은스님을 비롯한 스님과 신도들은 종교편향대책위원들과 함께 이날 옹진군을 방문해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봉행하려던 백령도내 심청각에서의 연등점등식이 백령면장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못한 데 대해 공식사과와 함께 해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 총무원은 특히 연등점등식을 특정 종교행사로 규정하고 행사당일 시설물을 강제 철거한 김성일 백령면장의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다. 태고종이 종교편향 사례와 관련 이처럼 강력한 대응에 나선 것은 개신교 교세가 강한 백령도의 불교탄압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김재경 기자

성타스님 주지 사퇴
불국사 공금횡령 책임

불국사 주지 성타스님이 재무국장 진현스님의 공금횡령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퇴키로 했다. 성타스님은 5일 열린 불국사 운영위원회(위원장 정휴)에 참석해 이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국사는 이에 따라 조만간 새 주지를 선출해 총무원에 임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정성운 기자

문화재청 '사법경찰제' 시행

시 · 도 문화재담당공무원에 사법권 부여

전국적으로 문화재의 도난 · 도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이 '사법경찰관리'를 지명하고 문화재사범 단속에 나섰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전국 시 · 도에 문화재담당 행정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것을 요청, 7월부터 전국적으로 187명의 문화재 관련 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로 활동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에 따라 사법권이 부여돼, 지방검찰 · 경찰과 함께 활동하며 문화재사범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는 단속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문화재 전문가들이 직접 문화재사범을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문화재 도난 · 밀거래 단속에 개가를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7년 석남사에서 탱화 도난사건이 발생했던 울산시의 경우, 이번에 시와 각 구 · 군 문화재담당 공무원 12명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했다.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울산시 사법경찰관리는 현재 문화재 단속활동 및 발생예방지침에 따라 관할 문화재에 대해 24시간 감시활동을 펴고 있다.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도중필 담당관은 "사법경찰관리는 인천과 제주를 제외한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이 문화재 소재지, 고미술상 등 현장에서 단속 및 감시를 계속해 문화재 보호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한성대 불교행정과정 개설

한성대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불교종무행정 고위자 과정반을 9월부터 개설한다.

교과목은 종무행정의 이론과 실제, 불교재산관리, 불교상담심리 등 세 과목, 8월말까지 접수. (02)760-4401

김재경 기자

분담금법등 개정심의
조계종 종헌개정특위

조계종 종헌 · 종법개정특위 소위원회(위원장 정휴)는 8일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8차 회의를 열고 26일부터 열리는 제141회 임시종회에 상정할 종법 제 ·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한 종법은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사암의 종단등록 및 관리법 △법인법 △계단법 △승려법 △지방종정법 △승적제적법 △원로회의법 등이며, 23일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승적제적법은 승려법에 내용이 중복돼 있어 폐지안을 상정키로 했다.

정성운 기자

16일 전강련 토론회

전국전통강원연합(의장 덕암)은 16일(금) 오전 10시 용주사 효행교육원에서 학술토론회를 갖는다. 원융스님(해인총림 유나)의 '간화선 수행에 대하여', 쵸겔스님의 '티벳불교의 수행종류' 발표 등으로 진행된다.

김재경 기자

연등축제, 문화관광축제서 제외

문화부, 12개 행사만 지정

문화관광부는 7일 하동 야생차축제 등 12개 지역문화제를 2000년 상반기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문화관광축제는 △한라산 눈꽃축제 △대관령 눈꽃축제 △청도 소싸움축제 △경주 전통주와 떡축제 △영암 왕인축제 △서천 모시문화제 △여주 도자기박람회 △진도 영등축제 △남원 춘향제 △충주 무술축제 △하동 야생차축제 △무주 반딧불이축제 등이다. 그러나 조계종이 신청한 연등축제는 특정종교성이 짙다는 이유로 선정에서 제외됐다.

문광부는 2000년 하반기 문화관광축제를 11월경 선정할 예정이며, 3~5개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광부는 95년부터 매년 지역문화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설 땅이 없게

第2會 說戒및受戒大法會

교(敎)는 부처님의 말씀이고 선(禪)은 부처님의 마음이며 계(戒)는 부처님의 행이다.
신라때 자장율사와 진표율사는 선교의 대종장들이 입으로 하는 불교를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통도사와 금산사등여러 곳에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국민윤리운동의 일환으로 설계 및 수계 대법회를 매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 금강선원에서는 자장율사의 출가 정신과 진표율사의 구도 정신을 본받아
설계와 수계의식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저 하오니 동참을 희망하시는 분은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설 계: 99년 8월 6일 ~ 9일(3박4일)
◐ 설계내용: 비구, 비구니계, 사미, 사미니계, 식차마니계, 보살계, 기타사원청규
◐ 수강자격: 관심이 있는 모든 불자
◐ 수 계 식 : 99년 8월 9일 오전 10시부터
◐ 수계자격: 각율전에 나타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다.
① 3귀5계:수계를 원하는 일반불자(제출서류:수계신청서1부)
② 보살계: 3귀5계를 받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불자(제출서류: 수계신청서 1부)
③ 사미,사미니계: 불교기본 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상의 행자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친은사나 당해 사찰주지스님의 추천을 받은사람(서류: 수계신청서, 이력서, 수계증사본,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사진3매)
④ 비구,비구니계: 사미, 사미니계를 받고 3년이상 수행한 사람으로서 은,법사의 추천을 받은사람.
(제출서류: 수계신청서, 이력서, 승적증사본, 수계증사본, 추천서, 주민등록등본 각1통, 사진3매)
◐ 설계동참 회비는 수계회비와 별도로 2박3일 7만원
◐ 수계 및 전계사: 증 계 화 상 : 안덕암 대종사 (사단법인 금강선원 총재)
전계아사리: 이법홍 대종사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설계아사리: 강석주 대종사 (대한불교 조계종 칠보사 조실)
교수아사리: 수진 큰스님 (담양 용화사 주지)
◐ 증 사: 김성륜(연등사 주지) 이월광(수월사 주지) 김성주(성진사 주지) 고법성(법성사 주지) 석적령(약천사 주지)
신법원(보원사 주지) 한보해(세존정사 주지) 한우경(금강선원 이사장) 안경우(경북불교대학장) 심월산(대원사 주지)
전용만(한국불교통신대학장) 김호현(한국불교법사회장) 이광세(천태종 법사) 강혜원(금강선원 이사)
◐ 설계사 및 특강강사: 한정섭(금강선원 이사장), 수진스님(용화사 주지), 성륜스님(조계종 연등사 주지),
전용만(한국불교통신대학장), 이영자(동국대학교수), 정지철(상락향수도원 원장), 안래희(창원전문대교수)
◐ 수계장소: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 산185 상락향수도원(0356-584-0657)
◐ 접수마감: 99년 7월 20일까지
◐ 수계 동참자는 서류심사후 즉시 통보함.
◐ 문 의: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사무국 130-011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1동 54-6
☎ 02-969-2410,962-1666 Fax : 969-4981

社團法人 韓國佛教金剛禪院 設戒 및 受戒奉行委員會

한정섭 법사님과 함께하는 팔만대장경 현지 설법회

(사)한국불교금강선원에서는 한국대장경 불사를 완성하고 제2차 계획으로 부처님께서 8만대장경을 설하신 현지 답사를 다음과 같이 계획하고 있사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답사기간 : 99년 11월 12일 ~ 11월 20일(8박9일)
▷ 지도법사 : 한정섭대법사, 석성륜 큰스님
▷ 참가비 : 165만원 ▷ 참가인원 : 약간 ▷ 접수마감 : 99년 8월 31일 ▷ 참가예약금 : 30만원
▷ 참가예약금은 신청과 동시에 접수하며 개인사정으로 인해 불참시에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 참가문의 :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사무국 02-969-2410,962-1666 Fax 02-969-4981

일정표

일자	지역	일 정
제1일 11월 12일	서울 델리	서울출발 방콕경유 델리 도착
제2일 11월 13일	바라나시 사르나트	초전법륜지 녹야원에서 5비구와 야사를 제도하고 설한 전법륜경의 내용을 설함. 사르나트 박물관과 불영탑 다메크 탑 참배.
제3일 11월 14일	바라나시 보드가야	갠지스강 일출과 항하사를 보고 붓다 정각지에 있는 보드가야 대탑과 금강보좌, 보리수를 바라보며 화엄경을 설한 곳을 참배.
제4일 11월 15일	보드가야 라지기르 나란타 파트나	성도전 6년고행한 전정각산 순례후 라지기르 도착 법화경 무량수경등을 설한 영축산, 죽림정사, 제1회 결집처 칠엽굴을 보고 세계 최초의 나란다불교대학과 그외 박물관을 관람.
제5일 11월 16일	파트나 바이살리 쿠시나가르 바이루와	유마경 및 제2결집처 바이살리 도착, 아쇼카석주 및 원앙봉밀터등 순례, 쿠시나가르로 이동 열반경을 설한 열반당, 다비터, 사이라쌍수 등을 참배하고 네팔로 감.
제6일 11월 17일	룸비니 스라바스티 럭나우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로 이동, 마야부인당, 카필라국을 참관, 아쇼카석주등 참배후 금강경등 370경 이상을 설한 사위성 기원정사로 향함
제7일 11월 18일	럭나우 상카시아 아그라	부처님께서 도리천에 계신 어머니를 제도하고 내려오신 상카시아 참배, 아그라로 향한다.
제8일 11월 19일	아그라 델리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인 타지마할 및 아그라성 방문. 델리 도착. 굽타미나르 등 시내관광
제9일 11월 20일	델리 서울	델리출발 서울 김포공항 도착

제49차 하계교육 동참 안내

99년도 제49차 하계정기 교육을 99.8.6~8.9(3박4일간)까지 중앙교육원(상락향수도원)에서 실시하오니 빠짐없이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일주문 앞까지 위락시설-아파트

흔들리는 수행환경권 실태와 대책

조계종 사찰환경 피해사례 수집나서

전사법 개정안 9월 국회 상정 추진

조계종총무원이 사찰 수행환경 침해사례 수집에 나서는 등 건축법 8조4항(도시미관, 주변환경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폐지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총무원 사회부(부장 성조)는 7일 전국 사암에 배포한 종보를 통해 "건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찰 인근에 무분별한 건축허가를 남발함으로써 사찰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의 보존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며 피해사례 신고를 16일까지 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부는 사례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 허가 취소 또는 건축주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사찰 인근의 건축 및 관광개발 등으로 환경분쟁을 겪고 있는 사찰은 울주 석남사와 울산 청룡암, 구미 원각사, 대구 선본사, 문경 봉암사, 합천 해인사 등 10여곳에 이른다. 대부분의 해당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은 수행과 포교는 뒷전으로 밀어놓은 채 거리로 나와 사찰 수행환경 수호에 나서는 등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석남사의 경우 일주문 바로 앞에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 공사가 한창이다. 조계종이 추진하는 비구니 특별수행도량이라는 사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전통사찰인 원각사도 인근 아파트 건축공사로 사격이 훼손됨은 물론 석탑 등 성보문화재의 파손까지 나타나고 있다. <관련칼럼 6면 · 속보 23면>

분쟁을 겪고 있는 사찰 인근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개정 이전에 난 곳이다. 개정 이전 건축법 8조4항이 사찰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했으나, 이마저 없어짐으로써 사찰과 건축주 · 지자체간의 분쟁 발생이 훨씬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한 업무집행을 우선으로 하는 공직사회의 생리를 무작정 탓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조계종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없어진 보호장치를 전통사찰 보존법 등에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 있다. 조계종 기획실은 전통사찰 보존구역의 확대 및 사찰 인근에서의 금지 행위 규정에 수행환경 침해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기획실은 전사법 개정안을 국회정각회와 3당 불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입법으로 9월 정기국회에 상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법 개정에 따른 사찰 수행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박지원 문화광광부장관과 김성재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약속이 있어 전사법의 개정은 조계종의 요구대로 이뤄질 것으로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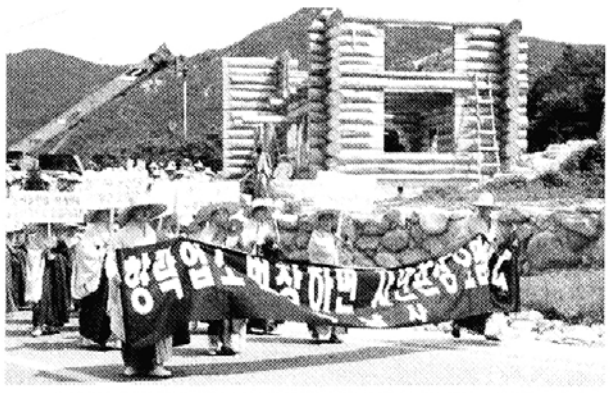
그러나 조계종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개발사업은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가 된 곳이어서 허가취소 또는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사적 이익보다 다수의 국민이 쾌적한 환경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사찰이 간직한 전통문화와 수행력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과실이 더욱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

사찰 수행환경 침해가 심각하고 예측된 상황이었음에도 대응이 늦었다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석남사 앞 위락단지는 이미 목조건물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며, 청룡암 바로 옆에 들어설 예정인 폐건축자재 재활용공장 부지도 기초공사를 진행중이다. 건축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묶여있던 각종 건축허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국적인 현황파악과 함께 개발계획 인지단계에서 총무원에 보고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단 차원의 대책위 구성도 시급하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건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찰인근에 무분별하게 건축허가를 남발해 사찰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 훼손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석남사 스님들이 6월22일 공사현장에서 위락단지 건설 반대시위를 하는 모습.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왼쪽)과 원불교 이광정 종법사가 지난 6월16일 열린 종교지도자 오찬간담회에서 만나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재가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원불교 종단협 재가입 교계반응

"불교화합차원 환영" "교조 석가모니불이어야"

원불교내에서도 가입 찬반 논란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재가입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종교학자들이 원불교의 종단협의회 재가입을 바람직하다고 보는 반면 조계종 소속 일부 스님들은 '석가모니불 교조'를 원불교가 받아들여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동국대 정각원장 법산스님(선학과 교수)은 "원불교는 외형적으로 불교이나, 내면으로는 초불교 · 초대승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협력하고 경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불교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신문 보도 이후 원불교 내에서 종단협 가입 논란이 뜨겁다"고 분위기를 전하고 "교조를 석가모니부처님으로 하고, 종조를 소태산 대종사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내리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석가모니불 교조' 수용이라는 전제에 대해 원불교 교헌에 '법신불 일원상을 종지로 한다'고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원불교가 종단협에 가입하려는 이유에 대해 교계 일부에서는 국제활동과 군포교를 강화하려는 목적에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해 호주에서 열린 세계불교도우의회(WFB) 대회에서 사회자가 원불교 대표를 한국불교 대표로 소개한 데 대해 조계종의 한 스님이 "원불교는 불교와 별개의 단체"라며 이의를 제기한 일이 있었다. 한 교계인사는 "군법사 과견도 의도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일부 종단이 원불교의 종단협 가입에 대해 달갑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조계종총무원은 고산스님의 가입 권유에 대해 "불교가 함께 힘을 합치자는 순수한 뜻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 그대로 받아들여달라"고 강조했다.

원불교의 '불교성'에 의문을 나타내면서도 '화합'과 불교역량의 강화라는 대의명분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윤원철 서울대교수(종교학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다종교사회에서 종교간 종파간 화해와 화합 협력의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주변의 종교학자들과 원불교의 종단협 가입을 주제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뤄졌다며 "불교 내뿐 아니라 종교계, 나아가 우리 사회의 화합분위기 확산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얘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또 원불교의 합리적 교단운영, 활발한 사회활동이 기존 종단에 자극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의견도 많다.

원불교의 종단협 재가입에 대한 논란은 16일 종단협의회 임시이사회에서 공식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이때가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조계종 또는 종단협과 원불교의 책임있는 인사의 만남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목어

화합과 자비

불교의 '업(業)사상'은 일단 발생한 것은 그 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며, 또한 지금의 현상은 과거의 업이 얽힌 연기의 결과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리 부정적인 역사적 사건일지라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지혜와 용기를 지녀야 한다.

우리가 20세기에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자.

일제식민지화, 6.25전쟁, 군사독재, IMF… 등 민족적 수난의 연속이었다. 이들 업은 21세기의 후손들에게 그 연기의 결과로 넘겨질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직후 일본을 방문하여 "20세기에 있었던 일은 모두 이 세기 안에 청산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야 한다. 일본의 과거 청산은 일본인의 양심의 문제이며 한국 정부는 과거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방 이후 계속된 한국쪽의 '과거청산 요구에 대한 일본정부의 형식적인 사과', 이 지루한 되풀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내적으로도 동서화합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독재시절의 지역 감정을 해소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5월18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시민들의 오열속에 5 · 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까마득히 잊은 것 같았다. 지역차별은 같은 민족 사이에서조차 슬픔과 즐거움, 선과 악의 기준을 다르게 한 것이다.

그 갈등의 고리를 메우지 않는 한 민족단합은 있을 수 없으며 남북통일은 한낱 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최근 햇볕정책 아래 우리는 북한에게 줄기차게 민족화합을 제시하고 있다.

통일은 민족공동체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과업이다. 한일의 화합, 동서화합, 남북화합… 이들은 하나의 고리로 연결된 삼위일체의 관계에 있다. 동서화합 없이 통일이 있을 수 없으며, 국제사회로의 도약도 생각할 수 없다. 21세기를 화합의 정신으로 열어가자. 우리에게는 수 많은 친일파, 적색분자, 독재 동조자, 지역분열주의자가 있다. 이들을 단죄하기보다는 이 불행한 시대를 살아야 했던 불행한 민족구성원이라는 마음으로 참회의 기회를 베풀어 포용하자. 그것이 음의 업을 긍정하는 부처의 자비가 될 것이다.

김용운(한양대 명예교수 · 본지 논설위원)

"재적사찰 갖기 지지" 95.3%
"일정자격 갖춰야 신도" 78%

조계종 '포교 의식조사' 내용

조계종포교원(원장 정련)이 마련한 포교 및 신도관련법 제 · 개정안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자칫하면 제도만 있고 실천이 따르지 않는 '죽은 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여론의 호응아래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보한 셈이다.

설문조사의 주요 문항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적사찰갖기 및 신도등록 실시여부

계속 실시하되 방법을 바꿔야 한다 56.3%, 계속 실시 39.0%, 중단 3.9%로 나타났다.

▲신도등록 업무

종단은 신도증 서식만 통일해 보급하고 신도증 발급은 본 · 말사에서 한다(47.3%), 현행대로 포교원에서 발급한다(25.3%), 교구본사에서 등록을 받고 신도증을 발급한다(25.2%), 잘 모르겠다(2.3%) 등으로 나타나 신도증 발급주체를 포교원에서 본말사로 이관(72.5%)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다.

▲신도 교무금(매년 1만원)

교무금제도를 유지하고 신규 등록시 1회만 납부(41.8%), 교무금제도 유지하고 사찰에서 관리 및 사용(16.6%), 교무금제도 폐지하고 신도증 발급비만 받음(16%), 현행대로 유지(11.9%), 교무금제도 폐지하고 신도증 무료발급(6.5%), 교무금제도 유지하고 종단에서 관리 및 사용(5.8%)

▲신도교육 및 수계 제도화

필요하다(47%), 매우 필요하다(40.2%), 불필요하다(8.6%), 전혀 필요없다(2.2%), 잘 모르겠다(1.9%).

▲신도의 자격

오계수지와 소정의 교육이수 후 신도등록(39%), 오계수지 후 신도등록(21.6%), 본인이 원하면 언제나(21.6%), 소정의 교육이수 후 신도등록(17.5%) 순이었다.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78.2%로 나타났다.

▲포교사고시 응시자격(실제 활동경력, 단체임원 또는 지도경력 3년 이상)

필요하다(53%), 매우 필요하다(25.9%), 불필요하다(12.1%), 잘 모르겠다(5.4%). 포교사 양성과정의 강화에 대해 78.9%가 찬성했다.

▲신도단체 임원의 수계(보살계) 및 교육 의무화

필요하다(55.1%), 매우 필요하다(34.9%), 불필요하다(4.6%). 종단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서는 9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중앙승가대학교 이전에 대한 학인들의 입장

중앙승가대학교는 1979년 신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몇몇 뜻있는 선각자 스님들에 의해 설립되어 오늘에 까지 면면이 맥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700여 동문스님들을 배출하여 종단의 요소요소에서 수행자로서 각자 소임에 맞게 매진하고 있다.

본교는 한두 명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배스님들의 피와 땀에 의해서 이루어진 학교이다. 하지만 현재의 안암학사는 공부하기에 주위환경이 열악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애로점이 많다. 1600년대의 역사를 자랑하고 2,000만 불자 운운하는 한국불교 최대종단인 조계종이 수행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다행히 이제 김포학사가 6월 30일자로 완공되어서 우리 학인들은 초발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잘 살아보자며 꿈에 부풀어 있으며, 몇몇 스님들은 김포학사에서 2학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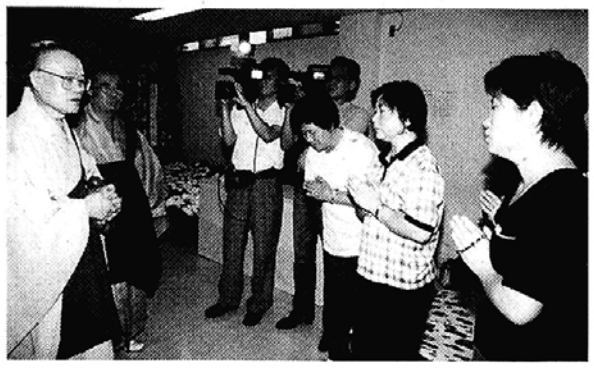
그동안 학교와 총무원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져 교육불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길 바랬고 또한 불사에 누가 되지나 않을까 하여 최근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자제해 왔다. 하지만 최근에 돌아가는 일련의 상황을 보며 우리 학인스님들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풍림산업과 총무원의 공사비 견해차이로 승가대 이전은 지연되고 있으며, 이사장 스님의 낙하산식 인사로 학교에서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또한 김포학사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 우리 학인들은 이사장 스님 이하 김포학사 실무담당자 스님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불교의 미래를 봐서 종단의 중진 스님들이 교육불사에 앞장서야 할 일이건만 이것을 빌미삼아 정치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는 스님들을 보며 참으로 가슴이 아프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학인들은 승가대 이전불사에 끼어들어 방해하려 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중앙승가대학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고 시행을 촉구한다.

1. 이사장 스님은 김포학사 공사비 지급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속히 밝히고, 즉시 이행하라.
2. 이사장 스님은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의 진상을 밝히고 해명하라.
3. 학교소임의 겸임이나 낙하산 인사로 실무진들의 힘을 분산시켜 문제의 초점을 흐려놓고 있다. 이에 이사장 스님은 학교에 대한 독단적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4. 승가대 이전불사에 비협조적인 관계자들은 승가의 이름으로 각성하라.

중앙승가대학교 제 19 대 총학생회



고산스님 씨랜드참사 유족 위로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3일 오전 경기도화성 씨랜드청소년수련원 화재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강동교육청을 찾아가 희생영령을 천도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고산스님과 재무부장 일철스님, 사회부장 성조스님, 문화부장 양산스님, 포교원 포교연구실장 화암스님 등은 이날 합동분향소에서 반야심경을 봉독하고 희생영령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장엄염불과 축원문을 낭독했다. 고산스님은 유가족들에게 "슬픔을 거두고 업장을 소멸하는 선업을 지으며 살아가라"고 위로했다.

조계종총무원은 8월 1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희생영령 천도 49재를 봉행키로 했다.

"업장 푸는 과정 춤사위로 묘사"

'카르마'로 부산무용제 대상 이명미씨



제8회 부산무용제에서 '카르마'라는 불교소재 무용으로 대상을 수상한 우바이무용단 이명미(40) 안무자는 "불교무용회지 발간과 불교무용 논문 등을 통해 계속 공부하는 안무가, 무용가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류 접수부터 수상까지 모든 과정이 부처님이 하시는 일인 듯 하다'는 이씨는 혼자서 안무 음악 조명 의상에 이르기까지 일인다역을 해냈다. 이번 수상으로 8월과 9월에 열리는 부산해변무용제와 전국무용제에서도 카르마를 선보일 예정인 이씨는 올 가을쯤 연출가 이윤택씨와 공동작품을 만들 예정이다.

부산=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도와주세요 방수필름 제조사 디엔에프

화마로 공장소실…첨단기술 보유



문경에 있는 불자기업 디엔에프(DNF)의 대표 배호성 사장〈사진〉이 또다시 곤경에 처했다.

96년 10월 대기업의 횡포로 도산하였다가 종단협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와 총지종의 도움으로 재기를 다지던 디엔에프가 뜻하지 않는 화마를 당한것.

디엔에프는 미국 일본 유럽 등에 5백톤을 비롯 국내외에 연간 1만톤의 통기성 방수필름을 공급키로 계약을 체결, 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거의 매일 철야작업을 해오고 있던중 6월 29일 보일러 과열로 화재가 발생, 공장과 중요설비가 소실되었다. 회사측에 따르면, 기계설비 4억8천만원, 공장건물 1억2천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설상가상으로 화재보험에 건물의 일부만 들어있어 설비는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딱한 처지이다.

배호성사장은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고 하신 지눌스님의 말씀을 되새겨 기어이 재기에 성공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이며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성금구좌, 농협 783-01-208003 예금주 디엔에프 주식회사)

정성운 기자

교차로

선학원 영산설법회서 법문



정일 선학원 이사장 스님은 25일 오전 11시 선학원 중앙선원에서 거행되는 제8회 한국불교 전통선 중흥 초청법사로 법문한다. (02)732-3327

예비역 군법사 활동방향 세미나



성광 예비역군법사단장(화계사 주지)은 16~18일 강화 법왕사에서 여름수련대회를 열고, '예비역 군법사의 종단 직위문제와 향후 활동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무궁화사랑 자비회 총재에



삼중 부산 자비사 주지는 1일 한라에서 백두까지 무궁화를 꽃피워 분단된 조국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무궁화 사랑 자비회' 총재에 선임됐다. (064)722-8449

봉원사 영산재시연 평가회



인공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회장 스님은 16일 오후3시 서울 봉원사 설법전에서 영산재 시연 평가회를 개최한다.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원 열어



혜총 용호사회복지관장 스님은 용호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원을 개설하고 20일 자원봉사 교육과 봉사활동을 벌이기 위해 제1기 교육을 개설한다.

법련사 2대 주지에



오경 송광사 서울 분원 법련사 신임 주지는 25일 오전 10시 영산대법전에서 주지 진산식을 갖는다. 오경스님은 89년 보성스님을 계사로, 현호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송광사 강원 대교과와 실상사 화엄학림을 졸업했다. (02)733-5322

불우아동·노인에 후원금



각우 삼전종합사회복지관장 스님은 12일 불우아동 및 노인 1백여명에게 장학금과 결연후원금을 전달했다.

한·몽 교류협 회장에



주양자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열린 한·몽골 교류협회 이사회에서 제2대 회장에 선임됐다.

'윤선도와 보길도' 펴내



신영훈씨(고건축 전문가)는 최근 전남 보길도의 부용동·세연지 등 고산 윤선도 관련 유적들의 아름다움을 정리한 〈윤선도와 보길도〉(조선일보사 간)를 펴냈다.

'소욕지족운동' 월례 포럼



박광서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 상임대표는 15일 오후 6시30분 재가연대 강의실에서 '무소유, 근검, 청빈, 절제의 불교정신과 소욕지족운동의 전개방안에 대하여'란 주제로 월례 포럼을 갖는다. (02)725-6231

출판기념회 후원의 밤 열어



함종한 한나라당불자회 회장(국회 교육위원장)은 7일 헌정기념관 2층 강당에서 〈함종한의 세상읽기〉 출판기념회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 책은 함 의원의 10번째 저서로 1부 '돈아, 돈아', 2부 '된장문화의 부활을 기다리며', 3부 '안되면 눈물을 흘려라', 4부 '왕따 사설' 등 각 신문·잡지에 기고했던 시론을 4부로 묶어 게재했다.

'출판유통 정보화' 주제 학술회



윤형두 한국출판학회장은 9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한국 출판유통 정보화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군승단후원회 신흥사 순례



송순옥 군승단후원회장은 12일 삼척 신흥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성지순례를 통해 모금한 기금은 군법당 지원금으로 전달된다. (02)447-9267

여성경제인협 제주지회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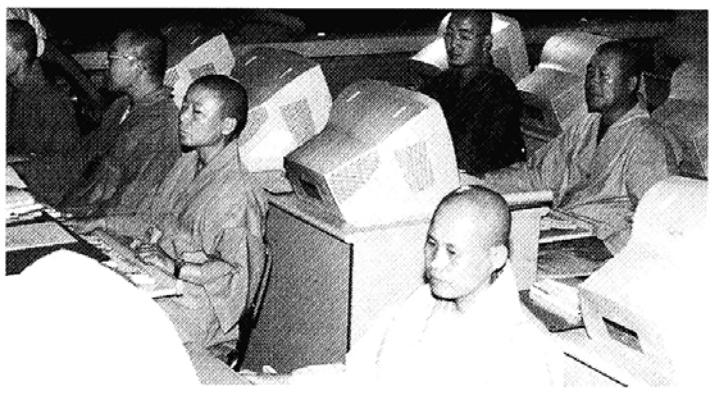
오정희 제주불교관음클럽 회장은 최근 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초대회장에 취임했다.

스님도 컴맹탈출

Focus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종무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스님들의 정보활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5~9일 동국대 전자계산원에서 '조계종 스님 전산교육'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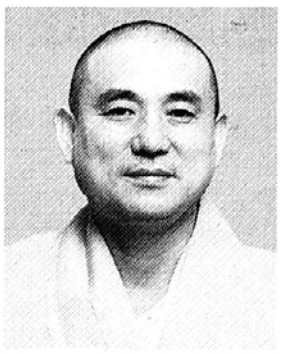
본사 추천 스님이나 각 교육기관 교역자, 종무 전산화 시범사찰 교역자, 중앙종무기관 소임자 스님 등은 물론 전산교육을 희망하는 스님(기초·중급반 각 40·2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전산교육은 지난해에 이은 두 번째, 특히 이번 교육에는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도후 스님이 젊은 스님들과 함께 컴퓨터 교육을 받아 눈길을 모았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장애인 후원인 모집에 최선"

'좋은이웃 111' 캠페인 혜창스님



"장애인들 모두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특히 극빈 장애인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좋은 이웃 111' 캠페인을 전개하게 됐습니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혜창스님은 안방(복지관)에서 행하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부딪치며 장애인들을 돕는 복지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좋은 이웃 111' 캠페인은 이렇게 몸으로 뛰는 캠페인이다. '111'은 1인의 후원자가 1개월마다 1만원씩 후원사업에 참여한다는 캠페인 내용에서 따온 명칭. 직원들끼리 상조회 등을 통해 후원금을 적립하는 것은 물론 직원 개인별 활동을 통해 후원자를 모집하고 지역내 기업체 및 상가단체 등 각급 사업장과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등의 관공서, 사찰 등을 방문해 후원자를 모집한다.

"장애인 복지사업의 활성화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이들의 애로를 직접 알리고 이에 공감하는 후원자를 늘리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시지원금과 법인전입금, 수익금만으로는 이들을 돕기에 한계가 있는 것도 이번 캠페인을 벌이게 된 동기입니다."

캠페인을 통해 강북장애인복지관의 인지도도 아울러 높이고 싶다는 혜창스님은 이 기회에 불교인들이 장애인 복지에 앞장서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많은 불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조계종 교육·편찬·역경위원 27명 위촉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교육위원회, 교재편찬위원회, 역경위원회 등 각 위원회 위원 27명을 선정, 19일 오후2시 교육위원회, 20일 오전11시·오후2시 교재편찬·역경위원회 회의를 각각 열고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각 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교육원 현황보고 및 위원장 선출이 있을 예정이다.

△교육위원=법산(동국대교수) 향적(보문사) 혜능(해인율원) 지현(송광율원) 영진(동화사 기초선원) 종림(혜림정사) 원소(중앙승가대) 지형(청암사) 일연(동학사)

△교재편찬위원회=무관(법계사) 성본(동국대교수) 우진(통도사승가대학) 능허(직지사승가대학) 지욱(불국사) 해주(동국대교수) 일진(운문사승가대학) 탁연(봉녕사승가대학) 효탄(중앙승가대교수)

△역경위원회=종림(고려대장경연구소장) 학담(대승사) 원철(실상사 화엄학림) 계환(동국대교수) 학봉(보문사) 장산(동명불원)' 정인(중앙승가대교수) 흥륜(운문사승가대학) 혜원(소림사)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인사

동국대

■ 서울캠퍼스

〈부속기관장〉 △체육실장 박상호 △출판부장 최창선 △교육방송국장 이범수 〈교학부장〉 △언론정보대학원 신일식 〈실장〉 △학사지원 이병천 △학생선발 이종석 △학생복지 선상규

■ 경주캠퍼스

〈교학부장〉 △지역개발대학원 서병수 〈실장〉 △학사지원 차선구 △학생선발 김종진 △학생복지 하정윤

전통식품지정업체

0598-945-0075~7
삼부농신
경남 거창군 웅양면 신촌리 63

새로운차, 꼭 드셔야 할 차
귀한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황토삼백초

황토삼백초와 함께 몸도, 마음도 맑아진다.
- 황토삼백초차,신농차-


신비의 황토삼백초



신비의 약용식물 황토삼백초

보르혜티 본초강목, 중약대사전 등에 널리 효능이 전해 왔지만 희귀식물로 특정지역에서만 자생되어 일반인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았던 스승님의 약용식물 '황토삼백초' 이제 여러분께 만나 실 수 있습니다. 국내최초로 삼부농산 김정서 선생이 거창의 청정지역 함양에서 특별한 유기농법으로 재배하였습니다.

몸과 정신의 기를 맑게 정화시켜주는 황토삼백초차, 신농차

- 강력한 이뇨작용으로, 몸속의 노폐물을 배설시켜 해독작용
- 과음 과식하고, 담은 과한 온종에 잘 순환시켜주며 입관관 튼튼하게 해주는 작용
- 위장기능을 튼튼히 하여 속을 편하게 하고 피부에 탄력을 주는 작용
- 온몸이 정화되어 면역력 증강 작용



이런분들이 드시면 좋습니다.

- 약을 자주 드시는 분 - 땀이 전혀 없거나 많이 마른 분
- 소화가 안되고 속이 거북하거나, 변비 있는 분
- 머리가 개운치 않고 항시 무거운 분 - 피부미용과 여성질환으로 고생 하시는 분
- 변비습관에 시달리시는 분 - 식수중에 염려되시는 분
- 몸이 계속적으로 아픈으신 분

특 징

- 보혈로 혈액 및 기력이 증진과 체내에 관여하는 유린과 리놀레이드 해당체가 들어 있습니다
- 장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는 천연 옥리고당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 과음 담배하고 많은 음식을 섭취하여 피의 순환을 돕고 손상된 간을 치유해 드림을 주고 과산화지질 조직세포 생성 억제로 항암, 노화 방지에 영향을 미치고 혈독과 이뇨작용이 좋은 프리몬에 등재가 수용성 단백 무린등의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 화학비료인 저분아황과 천연이뇨제인 아스파라긴 글루타민산 프로아닌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용법

- 온가족이 일상차나 숭늉처럼 드시거나 손님접대용으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선물용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 참고문헌 : 조규성 편저 '삼백초건강법'

대한불교 총화종 하계연수교육공고

본종은 산수경관이 수려한 남양주 천마산 수진사 강원에서 제2회 청소년 수련대회와 제17회 종도수련연수교육(목정배교수특강)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겠아오니 공사간 다망하시더라도 수희 동참하시어 종단을 빛내주시고 아울러 정체된 심신을 청정(淸淨)하게 수련하여 여법 홍포에 원력을 거양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청소년수련대회	종도연수교육
일 시	99년 7월22일~24일(2박3일) (7월 22일 오후 4시 입교식)	99년 7월 23일~24일(1박2일) 7월 23일 오전 10시 입교식
교육대상	초등학생~중학생 (4백명) 어머니 보호자 동참 (200명)	주지 대표 및 대덕스님 3백명 (3년이내 입종종도는 의무적수강)
교 육 비	1인당 15.000원	3만원
준 비 물	담요, 잠옷, 세면도구, 필기도구, 손전등	가사장삼, 바루, 잠옷, 담요, 세면도구, 바루미참시 총무원에 준비(3만원)

大韓佛教總和宗
總務院長 全南亭
教育院長 金華潭
布教院長 朴青海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342-1 천마산 수진사
TEL: 0346-591-7710/0346-592-8891 FAX: 0346-592-8892



◇3·4일 완주 송광사에서 열린 수련회는 전국불자교정인들이 심신을 쉬며 참교정인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가 됐다.

"자비심으로 재소자 감싸자"

전국교정인련 수련회 … 신행발표 · 특강도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 전국교정기관에 근무하는 불자공무원들의 모임인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 제3회 하계수련회가 3일과 4일 양일간 완주 송광사에서 2백50여명의 불자교정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수련회는 첫날 신행사례 발표, 대한가수불자회의 환영의 밤에 이어 4일 '한국불교의 현실과 새로운 천년' '생명존중의 시대를 열자' '불교정신과 환경보호'라는 주제에 대한 현진스님과 도법스님(실상사 주지), 혜명스님(혜명선원 주지)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고산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정련스님이 대신읽은 법어에서 "모든 인간의 존귀함을 자비로서 감싸안아 재소자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불자교정인이 되어 달라"고 말했다.

오희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재소자 포교에 전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불자연예인예술단 9월 창립

가수 · 탤런트 · 국악인 등 130여명 창립위원
단장 김흥국…청소년 선도 · 영상포교 앞장

불자 가수, 탤런트, 국악인들이 총망라될 대규모 불자연예인예술단이 조직될 전망이다.

불자연예인예술단 창립을 발의한 대한불자가수회 남강수 회장,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신충식 이사장(탤런트), 한국국악협회 김종헌 사무국장(국악인), 가수 김흥국씨는 2일 불교TV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불자연예인예술단을 창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따라 이날 준비모임은 김흥국씨를 초대 단장으로 한 불자연예인예술단 창립위원 위촉 1차 개별 섭외작업에 들어갔다. 창립위원에는 이선희, 정수라, 강부자, 전원주, 김용림, 김백국, 남궁랑 등 가수 60여명과 탤런트 50여 명, 국악인 13명 등 130여명이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자연예인예술단은 9월경 창립법회에 이어 11월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대규모 창립공연을 계획하고 있다. 또 각 종단과 불교TV, 불교방송 등과 협의해 청소년 선도를 위한 테마공연을 비롯 포교 영상 프로그램 제작 등에 적극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남강수 불자가수회 회장은 "영상시대를 맞아 불교도 영상포교를 통한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대중화'를 꾀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면서 "불자연예인예술단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불교를 통해 유희(遊戱)하고, 종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가수 김흥국씨는 "모든 불사가 중요하고 의미가 있지만 불자연예인이 궐치는 '영상법당' 중창은 21세기에 걸맞는 대작불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중들 가까이에서 친근하게 호흡하는 불자연예인들의 예술단 창립은 향후 대중포교는 물론 영상포교와 해외불교교류, 불교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한 훌륭한 자산이 될 전망이어서 기대된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pia.com)

조계종 교육원 직할교구 행자교육



조계종 교육원(원장 일면)은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중앙승가대 정진관 3층 법당에서 제17기 행자교육원 직할교구 입교대상자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59명의 행자(남 13, 여 46)가 참석한 이번 교육에서는 송광율원 습의사인 진각, 종지스님의 지도로 기초습의와 108참회문, 천수경, 삼보통청 등이 있었다. 중앙승가대학에서 행자교육이 실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덕진스님 '즐겁게 열어가는…' 출판법회



정토사 신도회는 2일 대웅전에서 덕진스님 저서 〈즐겁게 열어가는 행복문 지혜문〉 출판기념회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덕진스님은 출간사를 통해 "불교의 경전, 논서, 어록, 부처와 제자와의 대화 등에서 발췌했다"며 "읽고 난 후 상황이나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를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정병조 한국불교연구원 원장, 울산문인협회 최일성 회장, 정토사 신도 등 2백 여명이 동참했다.

제9회 자원봉사 시민대학 수료식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는 9일 종로구청 4층 대강당에서 제9회 자원봉사 시민대학 및 제18기 사천왕사 불교대학 수료식과 제6기 어진간병인회 발족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성덕스님(방생선원장)과 노귀남씨(경희대 강사) 등 내빈을 비롯 각 60명의 자원봉사시민대학 수료생 및 어진간병인회 참가자, 30명의 사천왕사불교대학 수료생 등 1백5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종교의원 평화강좌 열어



국회종교의원 평화모임(공동대표의장 김영진)은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강원룡목사를 초청, 제1회 평화강좌를 열었다. 강좌에는 서석재 국회정각회장, 김영진 의장, 김성곤 사무국장 등 24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강목사는 "3·1운동 당시 종교지도자들이 합심했듯 종교인들이 앞장서 국민화합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찬불가 부르면 자유 느껴요"

영등포교도소 경연대회…11개팀 참가



"정성스럽게 찬불가를 부르다보면 비록 수형자의 몸이지만 자유를 느낍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의미가 바로 이런게 아닐까 짐작해 봅니다."

수형자 찬불가 경연대회〈사진〉가 2일 영등포교도소에서 열렸다. 경연대회에서는 영등포교도소 정예직업훈련소 훈련생 1백50여명 11개팀이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이날 대회에 라면, 떡, 음료 등을 후원한 상덕스님(옥수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축사를 통해 "수형자의 몸으로 여러가지 번뇌도 많고, 힘든 기술을 연마하느라 어려움도 적잖았을텐데 틈틈히 찬불가를 연습해 발표의 장까지 가지게 된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불자의 바른 자세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경연대회에서는 건축도장팀이 '무상'을 불러 1등상인 불보상의 영예를 안았고, '오호라 연꽃이여'를 부른 건축목공팀이 법보상(2등)을 수상했다. 승보상(3등)은 '홀로 피는 연꽃'을 부른 기능공팀이 차지했다.

운불련 제1회 체육대회
18일 경북고운동장서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박영조)는 18일 경북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제1회 전국 운전불자 체육대회를 개최한다.

21개 지역회 1천여 명의 운전불자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체육대회는 회원들이 함께 땀을 흘리며 친목을 도모하고 동체대비의 정신을 나눈다는 취지에서 여름수련대회를 대신해 마련됐다.

체육대회는 대구개인택시불교정법회(회장 류지순) 주관으로 축구, 줄다리기, 족구등의 경기로 진행된다.

대구 정법회 (053)764-0766

경희의료원
불자회 발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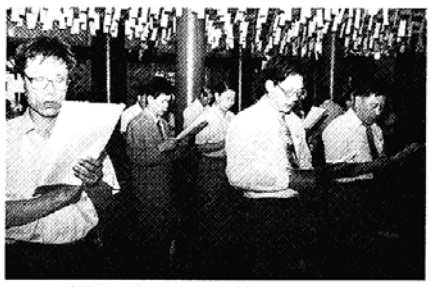
매월 큰스님 초청법회

경희의료원 불자 의료진 및 행정 사무직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불자회가 창립됐다.

경희의료원 불자모임 경불회(회장 황보추, 안과 주임교수)는 7일 연화사에서 창립법회를 가졌다. 권혁운 총무(총무과)의 경과보고, 김재명교수(한방 예제과)의 축사, 대한불자가수회 남강수 회장의 격려사, 연화사 정일스님의 법어, 회장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법회에서 경불회원들은 불자인의 유대감과 공동체의식을 배양하고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발원했다.

황보추 회장은 "일에는 과정과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경불회는 꾸준한 노력으로 금강같은 신심을 닦아 경희의료원불자회가 어떤 곳에서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말했다.

경불회는 매주 1회씩 지도법사인 한정섭 법사와 '인연설' 등 불교 기초교리에 대해 설명했다. (0331)255-2692 안일수



◇경희의료원 경불회 창립은 병원불자회 연합조직 구성 및 연대활동 모색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함께 기초교리를 공부하고, 매월 한차례 큰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경불회 회원 20여 명 외에도 감사원불자회, 한전 반야회, 한국세무사불자회, 국립경찰병원불자회, 서울대병원불자회, 대한가수불자회 대표단이 경불회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대한불자가수회는 이날 법회에서 사회는 물론 독경목탁을 쳐주고, 찬불가 반주를 해 주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02)958-9803 권혁운 도필선 기자

부산 · 광주산악회 교류 논의

영호남 불교산악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부산불교산악회와 광주불교산악회는 17일~18일 서울 중앙사무국에서 임원모임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부산과 광주불교산악회는 활발한 영호남 교류방안과 중앙사무국과의 정보교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 서울 유명관광지 순례도 한다. (02)2232-6948

강화운수법우회 성지순례

서울시 신촌과 인천시 강화 노선을 오가는 버스회사인 강화운수(사장 우보환) 내 불자들의 모임인 강화운수법우회(회장 심충경)는 3일~4일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선운사와 내소사 사찰순례를 다녀왔다.

직장 신행단체로서는 드물게 회사

우리 모임에선

대표의 권유로 모임을 갖게 된 강화운수법우회는 지난 3월부터 계성스님(조계종 교육원장, 전등사 강화포교원 법왕사 주지)을 지도법사로 기초교리를 공부해 오고 있다.

심충경 회장은 "강화운수법우회는 '불교의 생활화'를 기치로 내걸고 승객들을 친절로서 포교한다는 자세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0341)987-6021

수원약사회 교리공부

수원약사불자회(회장 박찬규)는 11일 수원포교당 3층 만불보전에서 7월 법회를 가졌다. 30여 명의 불자 약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 지도법사 성관스님(수원포교당 주지)은 사찰예절과 '업'과

충북예비역 부부동반법회

충북예비역불자회(회장 이만호)는 6월30일 청주 풍주선원에서 부부동반 법회를 가졌다. 70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이만호 회장은 "6바라밀을 생활화해실천수행의 모범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0431)276-6812

'좋사모' 푸드뱅크 음식공양

좋은일하는사람들의모임(사무국장 이건식)은 매일 오전9시30분부터 오후6시까지 푸드뱅크(Food Bank)를 열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일대 10여개 복지시설과 1백여 가구의 장애인 가정 및 불우노인, 소년소녀가장의 집 등에 음식물을 전달한다. (0351)844-6800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99학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5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김 성 철(승가대교수) · 권 탄 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 기 종(동국대교수) · 혜원스님(동국대교수) · 윤 열 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 정 섭(금강선원이사장)
2년 교과목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교육원장) · 최 봉 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정 병 조(동국대교수) · 오 국 근(동국대교수) · 남 수 영(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김 상 현(동국대교수) · 표주스님(동국대교수) · 장 휘 옥(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99년 6월 15일~99년 7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1999년 8월 7일(토) 오후 5시 (동산교육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직장인을 위한 2년제 야간 대원불교대학 통신 · 출강 신입생 모집

1972년에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포교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과정임. <27년간 2천여동문 졸업 · 40기생 모집중>

1. 강의시간 9월 1일 입학 · 주5일 수업(월,화,수,목,금) 19:00~20:30

2. 교육과목 20개 과목외 범패의식 (법현스님) 특강(동 · 하계 스쿨링때 범패의식 교육)

1학년	1학기 (16주)	◇불교경전의 이해 ◇초기불교의 이해	◇불교의 종교학적 이해 ◇불교상용 의식	◇유식사상
	2학기 (12주)	◇화엄사상 ◇구사론(아비달마)	◇중국불교의 이해 ◇불교상용의식 실습	◇비교종교
2학년	1학기 (18주)	◇부파불교의 이해 ◇대승기신론	◇밀교학의 이해 ◇우리말 불교의식	◇반야사상
	2학기 (12주)	◇한국불교의 이해 ◇선사상	◇대승불교의 이해 ◇우리말 불교의식 실습	◇천태사상

3. 교 수 진 권탄준박사, 최종석박사, 최봉수박사, 허경구박사, 김경집박사, 김종명박사 김호기박사, 권오성법사, 법현스님(동국대), 정성준박사, 김은희박사

초빙강사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 무진장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권기종(동국대 사회교육원장), 강건기(전북불교대 학장)

4. 모집 및 전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불교학 출강 00명	●체계적 불교교육을 원하는자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서류전형
●불교학 통신 00명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보유자	●주민등록등본1부 (사진 3매)	합격자 개별통지

5. 원서교부 및 접수 8월 28일까지 (본대학 서무과) ※수시접수가능

원서교부 ▶ 서울 불교 문화센터 (불교방송국) (02)703-0108
▶ 대구 적선사불교서점 (053)255-8875 ▶ 원주 법웅사 (0371)742-2701
▶ 제천 묘장암 (0443)653-3249 ▶ 진해 삼밀사 (0553-542-6531
▶ 목포 축성암 (0693)461-1212 ▶ 하동 도림사거사림 (0595)882-4585

6. 특전사항 ◇ 법사고시 경유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개원시 종교법인의 보호 ◇ 자원봉사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02)754-1613, 776-7156, 773-9171, FAX : 756-7258

이렇게 들었다 — 재해예방

"다리를 놓고 등불을 다는 까닭"

씨랜드어린이 수련원 참사를 비롯 롯데월드 천장 돔 유리파열사고, 휴양림 수련장 샤워온수기 폭발사고 등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각종 사건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무더운 여름을 지나는 동안 일어날 장마 태풍 등 기상재해와 휴가지에서 발생할 갖가지 안전사고 등 미리미리 점검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될 돌발적인 상황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지난해 전국을 강타해 12만명이 넘는 이재민을 발생시켰던 수해도 역시 재난 예방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는 우리 모두의 무관심이 한몫해 일어난 인재(人災)였다. 재난 예방을 위해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을 설했는지 경전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방종한 마음으로 사업에만 집착하여 오욕에 빠져 정신이 혼미해진 사람은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가 괴로움을 당하듯이 자신의 과보있음을 외면하고 교만하다가 그 업이 다하면 눈물지으며 큰 고통 받으리라. 〈별역잡아함경〉

▨작은 악을 대단치 않게 알아 재앙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물방울은 작지만 시간이 흐르면 차츰 큰 그릇을 채우고 만다. 〈열반경〉

▨보살은 보리도를 수행할 때 길을 잃은 중생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며, 길의 와석(瓦石)과 가시덤불을 제거하며, 건너야 할 물이나 험한 곳에 다리를 놓으며, 어두운 곳을 위해 등불을 단다. 〈대집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이 경을 듣거나 독송하고 향, 꽃, 음식, 의복, 보배 등을 가져다 보시 공양하고 찬탄하여 우러러 예배하면 위난을 당할 때에 신들의 보호를 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질병에 걸리지 않으며 홍수나 화재의 재앙이 근접치 못하고, 도적으로 부터 액란을 당하지 않으리라. 또한 총명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장보살본원경〉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라.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소를 빼앗겨서도 안된다. 〈법구경〉

▨세상에 재앙이 있고 일기가 고르지 못해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굶주린 나머지 고향에 안주하지 못하고 등을 돌려 도망치고자 할때는 마땅히 비심(悲心)을 일으켜 곡식창고를 열고 가난한 삶을 일시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그 목숨을 건져 본토에 안정해 살도록 해야 한다. 〈아난사시경〉

▨쓸쓸한 길에 우물을 파며, 과수를 심어 서늘한 숲을 이루며, 다리 놓고 배 만들어 사람 건네며, 보시를 행하고 계를 닦으며 지혜있어 곧 탐심 버리는 이는 공덕이 밤낮으로 증장되어 언제나 천계에 태어나리라. 〈승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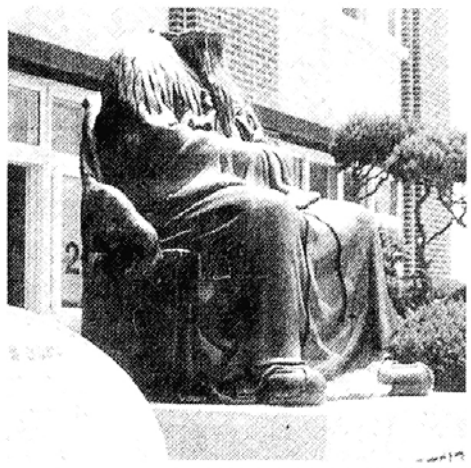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경우 그 재앙을 자초하는 것 뿐이어서 부모 형제 종족이 그 죄를 대신해 받아주는 것은 아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경우 그 복을 스스로 받는 것 뿐이어서 부모 형제가 그 기쁨을 대신해 얻는 것도 아니다. 〈출요경〉

▨소 치는 다니야가 말했다. "나는 이미 밥도 짓고 우유도 짜 놓았습니다. 마히강 기슭에서 나는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움막은 지붕이 덮여 있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만일 비를 내리시려거든 비를 내리시옵소서." 〈숫타니파타〉

열린마당

목잘린 단군상

경기도 여주군의 중학교와 초등학교 3곳에서 지난 4일밤과 5일 새벽 사이 학교 운동장에 세워져 있는 단군(檀君) 좌상의 목이 처참하게 잘려나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단군 좌상은 한문화운동연합이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건전한 민족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전국 360개의 초 중 고교에 세운 것. 그러나 단군상 봉안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일부 개신교 단체들은 우상숭배라는 이유를 들어 철거를 거세게 주장해 왔다. 이번 사건에서 지난해 6월 제주 원명선원의 750구 불상의 목이 잘려나간 악몽을 떠올리는 불교계는 일부 기독교 광신도들이 또 불상파손 등의 훼불을 일으킬까 우려하며 경찰이 철저한 조사를 해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단군상 파괴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는다. 〈편집자 주〉



◇목이 잘려나간 경기도 여흥초등학교내 단군좌상. 민족정신의 시조로 보지않고 단순한 우상으로 여기는 일부 기독교 광신도들의 소행으로 여겨져 충격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단군상' 우상시각은 편견 '민족얼 찾기' 운동 확산돼야

●… 단군신화는 일연스님이 집필한 〈삼국유사〉에 기록돼 있는 백의민족의 자랑스런 신화이다. 그런만큼 단군시조를 모시는 것은 국조를 떠나 민족의 얼과 혼을 찾는 것과도 연결돼 있다. 그러므로 최근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민족정기를 바로잡기위해 각 학교에 단군상을 건립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이번 여주지역 초·중등 3개교에 모셔진 단군동상의 목이 잘려나간 사건은 자기민족의 뿌리를 뒤엎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일부 기독교단체의 야만적인 행위로, 민족의 존엄등을 조장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 세계에 수많은 민족중 시조없는 민족은 하나도 없다. 단군시조를 우상으로 보는 것은 종교적인 억지일 뿐이다. 기독교의 성경도 이스라엘의 조상과 신화가 나와있다. 이스라엘 민족신화는 철저하게 믿으면서 우리민족의 신화를 믿지 않는 것은 가깝게는 아버지 아버지도 믿지않겠다는 것밖에 안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을 운운하고 화합 평화 통일 인권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모두 위선임을 지적한다. 그리고 우리불교계도 이 일을 계기로 종단과 불자들이 나서서 민족혼을 살리는 단군상 건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외세세력의 매국행위를 엄단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선스님〈불추위 상임대표〉

●… 단군상 건립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특정 종교의 시설물을 공공기관인 학교에 세울 수 있느냐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여러 종립학교가 신앙대상의 시설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도 모두 없애야 하는 것인지 그들에게 묻고 싶다. 이번 훼손 사건은 한국인의 민족정신의 상징으로서의 단군과 종교 상징으로서의 단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의 소행으로 본다. 어느 종교든지 한국인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자기 종교의 가르침과의 접목을 고민해야 한다. 이 고민이 없는 종교와 종교인은 성숙한 종교 종교인으로 성장할 수 없다.

종교지도자와 종교학자들은 질높은 사상을 정립해 신도들과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는 우리 사회발전의 순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 우리 사회는 모든 종교와 관념이 공존하는 사회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이나 상징물을 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부모를 해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단군상은 그것이 종교 숭배물이든 평범한 상징물이든간에 지켜져야 한다. 단군신앙은 신앙으로서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사회통념상 지켜져왔다. 그런 상태에서 다른 종교나 사회통념이 자신의 종교가치와 다르다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종교가 나쁘다기 보다는 그릇된 신앙생활에서 비롯됐다고 보아야 한다. 이같은 행위는 그 종교집단을 폐쇄적으로 만들기 쉽다. 오종근〈호원대 경영학과 교수〉

●… 단군설화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바탕이었기에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다. 일연스님이 쓴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설화는 인간세상을 교화시키고 인간을 널리 이익되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을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각급 학교에서 단군상을 기증받아 세운 것은 인성교육 및 역사교육의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족정기의 상징으로 세운 교육시설물을 '종교적 이단'으로 과잉판단해서 목을 잘라내는 어른들의 행태를 보고 어린 학생들이 무엇을 배울지 걱정된다. 단군상 건립이 문제가 된다면 법적으로 따져야 한다. 이 일로 인해 자녀들의 등교거부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는 일부 종교인의 발상은 종교적 단견이자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됨을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김학룡〈경기 여흥초 교장〉

●… 역사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신화적 인물의 동상을 공공장소에 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며 단군상의 목을 베어낸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우리 한민족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까봐 우려된다. 우리가 오늘 존재하고 있는 것은 단군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수많은 우리의 조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군상을 단순한 우상숭배로 보기전에 민족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역사와 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없이 오로지 특정 종교의 특정한 교리만을 잣대로 삼아 행동한 결과인 것이다. 이같은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다종교 사회구조속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종교단체와 그 지도자들이 오로지 경전에만 의존해 정제되지 않은 논리로 종교인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견해를 버리고 우리민족의 조상으로서 단군과 단군사상을 재조명해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돈규〈경찰청 수사국 경정〉

목·소·리



일면 조계종 교육원장

메달로 다시오신 큰스님

1999년, 1900년대의 마지막해인 올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참으로 반가운 불사소식을 접했다. 1900년대 즉 근세100년을 살다가신 큰스님들을 기념메달로 제작해 기린다는 것이다. 그것도 문중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조폐공사가 주최를 해 벌이는 문화불사라니 더욱 큰 울림을 받았다. 만공 한암 한영 용성 스님 등 법명만 들어도 환희심이 솟는 큰스님들이 다시 이승으로 나투시는 듯한 감동을 받게된 것이다.

직접 친견하지는 못한 스님 또 가까이서 가르침을 받은 스님 등 강원 선원생활에서나 모든 수행공간에서 끊임없이 경책을 주신 큰스님들이 기념메달로 나투셔서 다시 가까이 만날 수 있다니 큰 기대감으로 한 세트를 소장했다.

부처님 말씀에 시공이 따로 없고 시간 역시 인류가 정한 개념상의 약속이지만, 100년 한 세기를 보내는 이즈음은 뒤돌아보고 의미를 새기게 되는 때이다. 지난 100년은 특히 우리 민족에게는 질곡의 역사였다. 나라를 침탈당하고, 배고픔에 시달리고 물밀듯이 밀려드는 서세동점의 대세 속에서 가치체계의 전도 등 부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국민이 어려울수록 정신적인 지도자의 그림자는 넓고 크다. 독립운동도 항일투쟁 정신교육의 방편으로 시절시절마다 큰스님들은 민초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큰 버팀이 되신 것이다. 이제 외환위기로 국민들의 마음이 넉넉하지 않는 현실이다. 근세 고승 기념메달로 다시 오신 큰스님들이 국민들의 고달픈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근세 100년 한국불교 인물사가 정리된다는 것이 여간 뜻깊은 일이 아니라고 본다.

목탁소리

위 영 란〈취재 부장〉

개발해선 안될 곳

법보종찰 해인사 바로 앞을 관통하는 도로가 들어서려 하고, 선기 철철한 봉암사 옆에 스키장이 만들어지려 할뿐만 아니라 비구니 수행도량 가지산 석남사 일주문 바로앞에 대형 음식점이 생기려는 등 전국 사찰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무장된 수행환경 파괴 위협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피해 사찰마다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관계기관과 여론에 촉구하면서 지역민이나 환경단체들과 연대해 대응하는 등 현실타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대해 전통사찰의 대다수를 가진 조계종은 최근 사찰환경 침해 사례를 수집하기로 하고 각 사암에 피해사례를 접수해달라는 협조문을 보냈다. 이론적으로 일별 보기에는 마땅한 조치이고 시급한 장치라고 보이지만, 과연 피해 당사자인 사찰들은 물론 피해 예상 사찰들에게 얼마나 공감을 얻을까 하는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그것은 이미 지난 97년 사찰환경보존위가 출범하면서 이론적인 기반과 제도적인 틀을 만들면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것을 상기하면 더욱 실감이 난다. 당시 사찰환경 공청회 전시법 안에 사찰수행환경권의 명문화 노력등 초유의 작업과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조계종과 정부 차원의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접수받아 총 69개(정부집계 52개)를 집계해 보고서도 내고 여론화도 했다. 그러나 이후 아무런 후속 조처나 달라진 상황에 대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물론 종단사태 등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으나 사찰환경 대응 문제는 완전히 소강된 상태였던 것이다. 이번에도 또다시 집계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자칫 실질적인 피해사찰들은 오히려 신고해서 무엇하나 하는 종단에 대한 불신감만 증폭될 수도 있다.

사찰 수행환경권 수호는 호법신장의 자세로 지속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행정적 제도적 지원과 예산집행이 가능해야 비로소 사찰 수행환경의 침해를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yryui@buddhapia.com)

신개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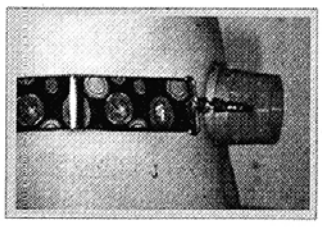
김시연 스님

시·연·쑥·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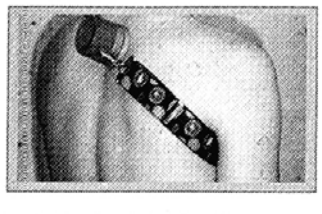
난치병에서 피부미용까지

쑥뜸의 효능은 3,000년간 인정받았습니다.
피부에 전혀 손상없이 가정에서 간단하게 뜰 수 있습니다.
한의사 대체의학 연구원이 상담해 드립니다.

▼복통치료장면



▼어깨결림 치료장면



○ 프랑스의 슈미트 의학박사는 현대의학상 외과수술외에는 쑥뜸법으로 무슨 병이든 전부 치료할 수 있다고 격찬하였다.

○ 독일의 헤리 베르르 수미트 박사는 쑥뜸법은 동양 의학에서는 과거의 유물일지 모르나 서유럽에서는 새로운 의학이며 장래성 있는 의학이다.

○ 일본의 원지명태량 의학박사는 쑥뜸의 새로운 연구는 의학 최종목적인 치료의학과 예방의학의 양면을 동시에 해결케 해준다고 하였다.

·각종질병 쑥뜸의 효능·

만성피로	정력강화	고혈압
견비통	신경통	저혈압
간장병	당뇨병	요통
전립선	조루증	냉증
피부병	생리통	위장병

♣몸 어느 한곳이라도 좋지 않은 분은 本社 제품 꼭한번 사용하세요.

♣「시연 쑥뜸기」는 아픈 곳이 곧 치료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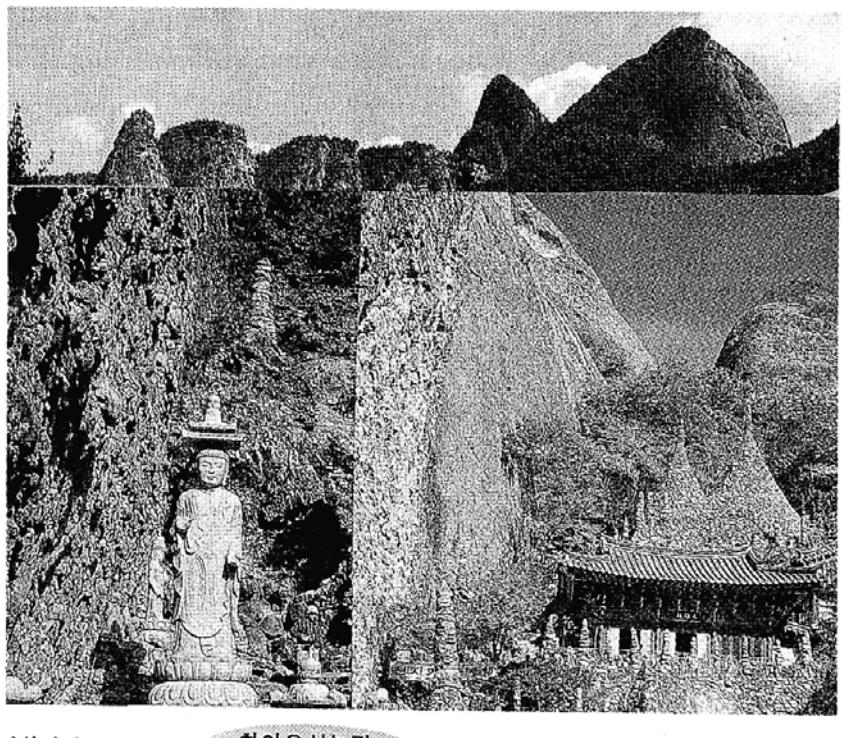
만병의 원인은
피가 탁하고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것인데 쑥뜸을 뜨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증가하여
피가 맑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되어 병이 치유됩니다.

■판매원 여래치신자연식품회사 ■제조원 : 도훈건강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1138
053-628-9145 / H.P 011-808-8880
입금계좌: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가격 : 200,000원(1set)
압축쑥 1개월분(50,000원), 쑥뜸기일체, 안내책자(16,000원)포함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전주 40분 M 마이산
광주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33-2900,0303
32-0652,0072

'나' 찾아 떠났다가 '나' 방생했네

송기원 장편소설 '안으로의 여행'

히말라야 순례 번뇌로부터의 자유 체험
계룡산 토굴서 1년 넘게 글쓰며 참선

"히말라야나 남대문시장이나 다를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저자거리 주변에 번다한 유혹이 많아 이겨내지 못해 떠났을 뿐, '나'를 찾는 여정은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어디에 있건 중요한 것은 내 안을 들여다 보는 것입니다."

인천 용화사 조실 송담스님의 속가제자로서 97년 갑자기 8개월여간 인도로 떠났던 소설가 송기원(宋基元·법명 睡蓮·53)씨. 귀국후에도 1년 넘게 계룡산 대자암 근처의 한 토굴(土窟)에서 정진중인 그가 그간의 '내면으로의 여정'을 기록한 구도소설 〈안으로의 여행〉(문이당)을 펴냈다.

6년전 내원암 주지 석호스님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참선수행과 글쓰기 작업을 병행해 온 송기원씨가 펴낸 이 책은 자신의 수행담을 소설의 형식으로 객관화시킨 결정체다. 중년 남자가 '빈껍질(번뇌 덩어리)'만 남은 자신을 벗어나기 위해 해발 3천m의 히말라야 설산(雪山)을 떠돌며 참선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줄거리를 담고 있다.

소설은 허무의식에 사로잡힌 한 잡지사 기자가 직장에 사표를 내고 아내에게는 이혼서류를 맡긴 채 인도로 떠나 자신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는 여행 어느날 '아이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 그 울음소리는 바로 자신의 한 살 무렵이며,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는 엄마가 자신을 떼놓고 어디론가 가버리자 그렇게 몸서리치도록 울었던 것이다. 처음에 제목을 갈애(渴愛)라고 붙였던 이유도 여기 있었으며, '갈애'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욕망과 고뇌를 상징하는 그의 절절한 화두였다.

아이 울음소리 이후 그는 이상하리만치 심신이 평온하고 아늑해지며 떠나오기전 자신을 옥죄었던 탐욕과, 속박과 허위, 고정관념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자신을 벼랑으로 몰아세워 가둘 수 있는 공간(히말라야)에서 모든 번뇌로부터의 자유, 즉 진정한 의미의 방생(放生)을 실현한 것이다.

작가는 "울음소리는 자기 무의식의 밑바닥(번뇌의 뿌리)에 도달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의식(我相, 내가 있다는 생각)의 세계에서 분별심이 끊어진 무의식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 보았다. 그리고 '내가 나의 스승이고 길이다'는 신념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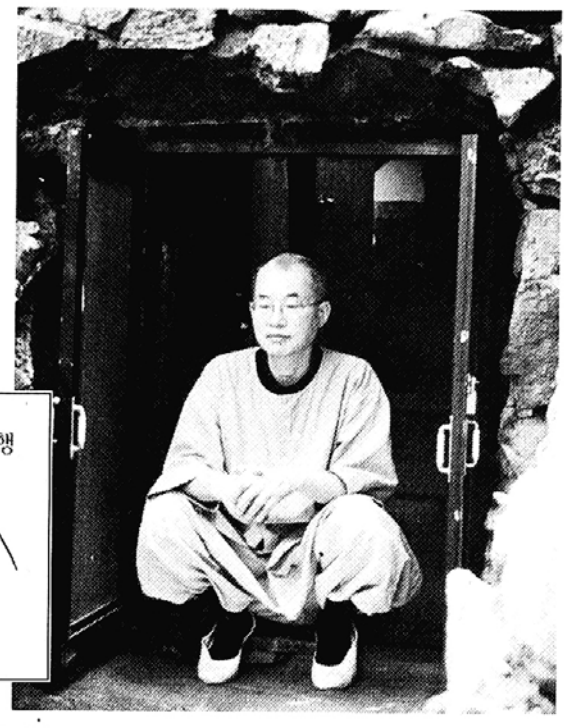
송씨는 "80년대에 치열하게 투쟁하며 골몰했던 리얼리즘이나 아이 울음소리 이후 비로소 알게 된 '내면의 리얼리즘'이나 그 뿌리는 동일하다"며 "진정한 깨달음과 자유는 현실과의 정면대결에서 얻어진다"고 밝힌다.

따라서 그가 안주하고 있는 토굴은 도피처가 아니라 그의 작업장소이자 쉴 곳일 뿐이다. 노트북과 〈능엄경〉〈금강경〉〈아함경〉 등 경전들, 〈감산대사의 기신론 풀이〉 등 몇권의 책이 전부인 토굴생활, 참선과 산책, 글쓰기가 전부인 그의 여유로운 삶에서 진한 수행의 향기가 묻어나온다.

"마음공부는 참으로 즐거운 또 하나의 생활입니다. 하지만 견성이나 깨달음에 대한 욕심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분수를 알고 분별심 없이 사는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에 펴낸 소설 〈안으로의 여행〉은 인도에서의 처음 석달간의 이야기이다. 그는 토굴에서 1년간 더 머물며 '울음소리' 이후의 여정을 정리, 2부작으로 완성할 예정이며 '청년 붓다'도 구상중이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apia.com)



◇계룡산 대자암의 토굴앞에 앉은 송기원씨. 송담스님으로부터 받은 '이뭣고' 화두로 출가자가 못지않은 수행에 몰두하고 있다.



서산대사 詩碑 첫 공개

조선중기 이전 스님제작 추정
문화재소장가 보관…백범 애송시

조선 중기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서산대사(1520~1604)의 시비가 최근 공개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백범 김구선생이 어려운 결단을 내릴 때마다 되새겼던 시로도 유명한 이 선시는 폭 25cm 길이 90cm의 빛바랜 화강암에 새겨진 것으로, 8년전 문화재소장가 이원기(70) 씨가 서울의 한 골동품점에서 구입해 보관해 왔다.

이씨는 "처음엔 서산대사의 선시인 줄 모르고 그냥 내용이 좋아 구입·보관해 왔다"며 "최근 백범 서거 50주년을 다룬 일간지의 기사를 보고 서산대사의 작품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씨는 원래 시비가 있던 자리에 대해 "남한산성 어딘가에 방치돼 있던 것이란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시비 탁본 과정을 지켜본 한국문학비건립동호회 이상보회장(국민대 명예교수·국문학)은 "이 땅에 변변한 시비 하나 없어 문학비 건립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귀중한 서산대사 시비가 발견돼 매우 기쁘고 놀랍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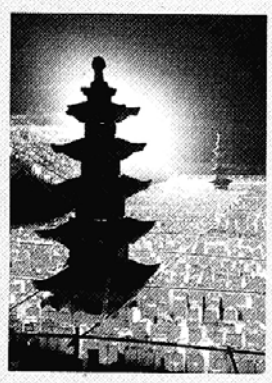
또 금석문을 전공한 서예가 정상옥 교수(홍익대)는 "서체는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때 유행했던 해서체로 새겨져 있어 적어도 조선 중기 이전의 것으로 보이며 남한산성 부근의 폐사지에서 나왔다면 서산대사를 존경하던 스님들이 세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오종욱 기자



◇문화재소장가 이원기씨가 공개한 시비. 시비에는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부수호란행(不須胡亂行)/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눈덮인 광야를 지나갈 때엔 함부로 걷지 말아라. 오늘 내 발자국은 마침내 후세들의 길이 되리니)라는 서산대사의 시가 새겨져 있다.

관광사진전 대상 **이순애씨의 '불심'**



'불심', '제비원 붓다' 등 해외 홍보사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15~19일 세종문화회관 전시장에서 열리는 한국관광공사의 '제27회 관광사진공모전 입상작 전시회'가 그것. 이번 전시회에서는 부처님오신날 구례 화엄사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시킨 '불심'(이순애·대상·사진), 힘있는 공간 배치와 구도가 돋보이는 '제비원 붓다'(안드레 호프만·금상)등 공모전 입상작품 90여점이 선보인다.

부산무용제 대상 **이명미무용단의 '카르마'**

지난달 30일 폐막된 제8회 부산국제무용제에서 불교무용단인 이명미 우바이 무용단의 작품 '카르마(業)'가 대상을 차지했다. 부산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지난달 27일부터 열린 이번 무용제에는 부산지역 7개 무용단이 참가해 각각 창작무용을 선보였다. 〈관련인터뷰 4면〉

무용단 '짓'의 '분절'과 4차 심사까지 가는 치열한 경합 끝에 대상을 차지한 작품 '카르마'는 업(業)의 뜻을 가진 범어. 이번 작품에서는 우리 인간이 입과 귀를 비롯해 눈과 마음으로 짓는 무수한 죄를 사하는 과정을 그렸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카르마'는 "작품에 대한 문제 의식이 뛰어났다"는 호평을 받았다.

김주일 기자



◇변갑수씨의 '소나무'.

변갑수씨 소나무전
19일까지 백상기념관

동양화가 혜암 변갑수씨가 40년 화업을 정리하는 초대전이 10~19일 백상기념관에서 열린다.

20세에 충북 괴산 보운사, 경남 합천 청양사등 사찰 탱화를 그리면서 본격적인 화업의 길로 들어섰던 변씨는 의재 허백련 등을 사사하며 산수화, 사군자 등을 화폭에 즐겨 담아왔다. 이번 전시회에서 변씨는 94년부터 작가 특유의 화풍으로 담아온 소나무 그림 43점을 선보인다. (02)724-2236

2백여 만다라 '감상'

롯데월드 23일부터 '티벳만다라전'

오색의 돌가루로 불교 세계관을 정교하고도 화려하게 표현하고 있는 만다라를 대하노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만져보고 싶은 손끝의 유혹을 느꼈을 것이다.

서울 롯데월드는 티벳불교의 각종 만다라를 감상할 수 있고 또 직접 그릴수 있는 '티벳 만다라 전'을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민속관에서 마련한다.

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노은천)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히말라야 산속에서 티벳스님들이 기도와 수행으로 조성한 만다라 200여점이 선보이고, '만다라 그리기' '만다라 대법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된다.

만다라는 여러 부처님과 존자를 대칭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치해 불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우주의 진리를 체계적이고 상징적으로 함축한 예술작품.

이번에 전시되는 만다라는 자비와 동정으로 중생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관세음보살만다라', 인생을 사랑과 자비로 복되게 한다는 '바즈라만다라', 모든 병과 액을 물리친다는 '메디슨단다라' 등 10여종에 이른다.



◇금강석 가루로 만다라를 제작하고 있는 티벳 스님들.

이외에도 불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만다라 그리기'와 '만다라 대법회'도 마련된다. '만다라 그리기'는 전시장에서 상게스님 등 6명의 티벳스님들이 '칼라차크라만다라' 그리기를 시연하고, 또 불자에게 만다라 그리는 방법을 지도하는 코너. '만다라 대법회'는 전시회 기간중 매주 한 차례씩 봉행된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용화사 미륵불등 성보 5건 전북도 지방문화재 지정

전북도는 6월29일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주우철)를 개최하고, 완주 송광사 나한전과 부안 용화사 미륵불입상등 성보문화재 5건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

'나한전'은 조선중기에서 후기까지의 불전양식의 흐름을, '미륵불입상'은 고려시대 거불형식을 고스란히 간직해 불교건축·미술사적 가치가 크다.

17세기 건축 양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금강문(완주 송광사), 고려시대 지방불상의 양식을 보여주는 석불여래좌상(전주 천고사),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꽃송이를 들고 있는 독특함이 돋보이는 마애여래좌상(남원 노적봉) 등도 각각 지방문화재로 지정됐다.

이외에도 전북도는 완주 정수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완주 송광사 명부전 소조지장보살삼존상·오백나한전 목조석가여래삼존상·목조삼전패·석조 등에 대한 국가지정 보물과 사적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오종욱 기자

건강을 선물합시다.

… 절기마다 기운의 흐름이 다르고,
그 흐름에 따라 양생법(養生法)이 다르다 …



· 소서체조 · 대서체조 · 고치집신

그림과 함께 익히는!!
날마다 젊어지는 절기맞춤체조
크라운판 260쪽, 정가 7,500원



신선들의 무병장수체조는 근육이 아닌 정신과 경락을 단련하니 그림과 함께 동작을 익히고, 틈틈이 설명을 본다
송나라의 신선 진희이선생이 창안함에 퇴계 이황선생도 친히 그려가며 즐겨 수련한
8가지 동작과 육기가결!

집중력 강화에는 '고치집신'을
입냄새 제거에는 '적룡교해'를
피로에 지쳤을 때는 '예수안정'을
정력강화에는 '8가지 기법'을…!!

24절기운동을 익히면서 8단금좌공법으로 보충하고
병이 있을 때는 신선들의 42처방을 참고하며
때때로 몸과 정신이 맑아지는 경문을 읊는다.
15일에 한 동작씩 24동작을 익히면 한달이면
건강해지고 1년이 안돼 신비로움을 느끼리라.

너무나 쉬운 동작 속에 진리가, 특히 수험생과 노인 투자자 등 주변의 친지분께도 선물하여 다같이 건강장수를 누립시다.
대유학당은 건강운동에 동참하는 뜻에서, 7월 한달 동안은,
5부이상 구입시 권당 5,000원에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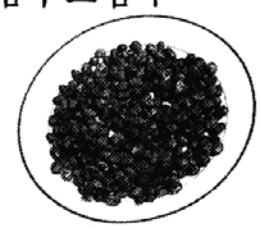
평생의 반려자

하루의 투자로 평생의 삶을
미리 알 수 있는 『하락리수』!
우주의 생성소멸원리를 부호화하고 도식화하여
나의 능력과 운명을 알 수 있게 한 비결!!
태어남(생년월일에 음양과 오행이 부여됨)→
384운 중의 하나→ 나의 평생운과 우주의 운행이 일치하는가?
거스르는가?→ 또 올해의 운, 이달의 운, 오늘의 운과의 일치여부→ 일치한다면 길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일치하지 않으면 신중하고 조심하여 어려움을 넘긴다.
※대유학당에서는 하락리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대유학당은 좋은 책만을 고집합니다: 02)2232-8383, 02)2234-1786

주역입문, 대산주역강해(上,下), 주역전의대전역해(上,下), 대산주역점해, 주역인해, 미래를 여는 주역, 편해 매화역수, 하락리수(上,下), 음부경과 소서, 오행대의(원문, 번역), 천문류초, 태을천문도, 예언의 허와실, 절기맞춤체조.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력이 있는
설악산 신흥사 거룡 범주스님의
선식 검정콩
'金금 檀단 花화'





"왜 콩을 통째로 삼키느냐, 한번 보세요. 염소 배설물처럼 자그마하죠? 그런데 이게 항문을 통해 나오는 것을 보면, 4~5배 불어나 어른 손톱만큼 불어납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분석해본 것은 아니지만, 위 대장 소장을 거치는 동안 각종 노폐물과 세균을 흡착하는 것 같아요. 내가 대변으로 배출된 콩을 씻어서 씹어보았더니 아이고! 소태보다 더 쓰더라니까"

옻나무와 소나무의 옻진과 송진을 채취하여 두어달 발효시킨 뒤 마늘, 토종꿀, 감식초, 부추, 대파, 생강의 생즙을 낸 다음 옻진 송진 발효된 것과 잘 혼합하여 검정콩을 액체에 담궜다가 건져내 따뜻한 온돌방에서 10일간 말려내면 30세 이하가 복용하는 초벌용 금단화가 완성되고, 이 과정이 두번, 내지 세번 반복되며 액체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약효가 달라지는데 40세가 넘는 성인용의 경우 숙성 기간이 족히 2개월을 넘는다는 설명이다. 하면 일반에서도 금단화를 제조하여 먹으면 좋겠지만 옻진이 한되에 기천만원을 호가하며 그마저도 국산 옻진을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 여성동아 1월호 인터뷰 내용 중 -

"선식 검정콩은 특히 변비, 다이어트에는 빠른 효과를 보이며"
3개월 복용한 "분당"의 한 주부는 4kg이 빠지고
더부룩하던 증세가 1달만에 깨끗이 없어졌다고 자랑이 대단하다.

효능 당뇨병, 간장병, 부인과, 피부과, 변비, 치질, 다이어트용, 위장병, 정력, 장정소, 혈압, 치매, 관절염, 신경통, 혈액순환, 체질개선

◐ 상담문의 ☎ (02) 3437-8282 ◑

불서출판 상반기 결산 '불황의 끝 보인다'

신간 1백여권 '탄생'…번역서 강세

'승려와 철학자' '무문관 혹은…' 베스트불서로
어린이·청소년 불서-기획출판물 여전히 관심밖

IMF 관리체제 이후 교계의 각 분야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출판계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교계출판계는 지난 한해 동안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금년 초만해도 그러한 영향은 계속됐다. 1주당 출간된 신간은 10권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부처님오신날을 정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출판계의 불황과 고질적인 매출 부진에도 불구하고 출판사 경영진들은 새로운 운영체계를 마련하기도 했다. 성과도 만만치 않다.

불교출판협의회가 '사찰도서관 만들기' 일환으로 도서전시회를 개최했고, 불교시대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새로운 출판시장의 활로를 개척한 것이다.

상반기동안 출간된 신간서적은 1백여권.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부문을 차지한 것은 번역서. 모두 30여권이 출간됐으며 독자들의 호응도 높았다. 특히 〈승려와 철학자〉〈파란 눈 스님의 한국선 수행기〉〈오직 모를 뿐〉〈불교선수행의 핵심〉〈티베트 성자와 보낸 3일〉 등은 꾸준히 읽히고 있다.

상반기동안 가장 많이 읽힌 불서는 법정스님의 〈산에는 꽃이피네(소)〉,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보살의 마음 중생의 마음〉 〈불교 선수행의 핵심〉, 〈승려와 철학자〉 〈거지성자〉 등이다. 베스트불서는 주로 불황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거울 삼아 심신을 다독일 수 있는 청량한 내용을 담은 책들이 주종을 이뤄 사회적 상황과 독서경향이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여시아문에서 출간된 한글세대를 위한 선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중국 불교 선문의 어록과 논을 정리한 〈선문촬요〉와 중국 승대81명 선사들의 행장 법문 등을 모은 〈선림승보전〉등 선종의 대표적 선서가 번역 출간된 것은 상반기의 괄목할 만한 성과다. 시인 고은씨의 〈수미산〉과 제원스님의 첫 소설 〈엔트런스〉, 그리고 무소유를 실천하고 있는 독일 퀼른의 성자를 소설화한 〈거지성자〉도 화제의 책.

고승들의 전기와 사상을 담은 책도 속속 출간됐다. 불교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책들도 눈길을 끌었으며, 재출간된 책도 적지 않았다. 이들 불서들은 대부분 꾸준히 읽히는 책으로 교계출판사들이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으로 보인다.

여시아문의 '주머니속 대장경', 운주사 '선학총서' '세계로 가는 서병후의 불경영어' 등 시리즈물과 소책자도 가세해 교계 출판 전망을 밝게 했다. 이밖에도 〈황수영 전집〉과 〈신문으로 본 한국불교 근현대사〉자료집도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미래불교의 동량이 될 어린이 및 청소년용 불서와 20세기를 정리하는 기획출판물 등의 부재현상은 교계 출판계의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다.

한 관계자는 "불서들이 입문서와 전문서적 등으로 양극화 되어 있다"며 "불교를 어느정도 알고 있는 신지식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서나 20세기를 정리하는 기획물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불서전문서점인 여시아문 신간코너에서 불서를 고르고 있는 불자들.

지식인 대상 '심경' 해설

정병조교수 '반야심경의 세계'



초심학 단계를 거친 불자들을 위한 〈반야심경〉 해설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병조교수가 펴낸 〈반야심경의 세계〉는 20여년전 동국역경원에서 출간된 〈지혜의 완성〉을 새롭게 꾸민 증보판이다. 이 책은 유일하게 전해오는 원측스님의 〈반야심경〉 해설서를 저본으로 해 원측스님의 눈을 통해 본 반야심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지혜의 완성〉의 큰 줄거리는 그대로 두고 세부적인 내용을 전면 수정 보완했다. '공과 반야' '반야심경' '지혜의 완성' 등 모두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출판된지 오래되어 내용과 형식이 너무 구식이어서 현대인들에 맞게 재구성했다"며 "초보자들을 위한 글이라기 보다는 어느정도 불교적 소양을 지닌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가장 보편적으로 읽혀온 〈반야심경〉. 다른 경들도 마찬가지이지만 많이 읽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불교연구원 刊, 값 6천원〉

선종의 심오한 사상 읽기

안동림씨 '벽암록' 수정 보완 펴내



중국 역대 선승들의 일화를 엮은 선종의 종문제일서 〈벽암록〉. 송나라 설두선사와 그의 제자 원오선사가 엮은 선문학의 최고봉으로 일컬어지는 책이다. 오직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하고 깨우칠 수 있을 뿐이라는 선문 전통의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벽암록〉은 스님들의 필독서로 꼽혀왔다. 안동림(67) 前 청주대 교수가 78편 펴냈다가 절판된 것을 수정 보완해 다시 펴냈다. 이 책에 실린 이야기는 모두 100칙(則). 양 무제와 달마대사의 문답을 실은 제1칙을 비롯해 '구지의 손가락 하나' '운문의 진진삼매' '유마의 불이법문' 등이 담겨 있다. 운문선사와 조주선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벽암록〉은 140여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이 책은 수시(垂示), 본칙(本則), 송(頌), 착어(着語), 평창(評唱)의 모두 5부로 구성돼 있다. 또 석가모니부처님부터 달마-혜가-승찬 등으로 이어지는 불조의 법계승표와 인명 및 제목 색인표도 덧붙였다. 〈현암사 刊, 값 8천원〉

나란히 출간

'제경요집2'
'선법요해 外'
'소실지갈라경'

동국대 역경원에서 〈제경요집 2〉〈선법요해 外〉〈소실지갈라경〉 등 3권이 나란히 출간됐다.

〈제경요집 2〉에는 13권부터 20권까지의 〈제경요집〉과 〈다라니잡집〉으로 구성됐다. 중국 양나라때 편찬된 〈다라니잡집〉은 갖가지 신주를 모아 수록한 것으로 화를 막고 복을 주는 여러가지 주문과 그 사용법을 소개하고 있다.

〈선법요해 外〉는 삼매로 불도를 닦는 요점을 해석한 선법요해를 포함해 삼매속에서 마음을 안착하는 방법을 설하는 〈법관경〉, 선정을 닦는 요점을 가리킨 〈선요경〉등이 실려있다. 5세기초 구마라집이 한역한 〈선법요해〉는 삼매에 대한 그릇된 관찰과 네가지 삼매법 등에 대해 해석하면서 '불도수행은 조용히 앉아서 자기 마음을 살피는데 있다'고 설명한다.

〈소실지갈라경〉에는 8세기 중엽 당나라 수바가라가 한역한 〈소실지갈라경〉을 비롯 총 7개의 경전이 들어있다. 기도하는 목적과 지켜야할 일들을 설명한 12품의 상권과 기도하는 절차를 설명한 20품의 중권, 기도의 효험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설명하는 5품의 하권으로 구성됐다.

〈역경원 刊, 값 각권 1만5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문예촌
2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3	거지성자	전재성	선 재
4	오직 모를뿐	은석준	물병자리
5	화엄의 길 생명의 길	도 법	선우도량
6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형조	여시아문
7	길끝나는 곳에 암자가 있다	정찬주	해들누리
8	티베트에서 온…	주민황	정우사
9	가슴을 적시는…	성우·지현	민족사
10	선문촬요	이철교	민족사

구입문의:(02)737-0695

해외신간



▲연꽃 위서 꾸는 꿈=구도를 좇는 사람들에게 '꿈'은 무엇인가. 미국의 심리학자 세리니티 영이 펴낸 〈연꽃 위서 꾸는 꿈(Dreaming in the Lotus : Buddhist Dream Practices and Imagery)〉은 불교의 교리와 수행에서 꿈의 의미와 그 본성을 파헤치고 있다. 저자는 '수행자의 꿈은 구도 과정에서 오는 근원적 욕망의 발현'이라는 대전제를 세워놓고, 인도와 티벳 고승들이 구도 과정에서 꾸었던 꿈에 근거해 '불교와 꿈'의 관계를 분석했다. Wisdom 출판사. ISBN 0861711580



▲새 천년의 윤리=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연설문을 모아 새 천년의 윤리관을 제시한 〈새 천년의 윤리(Ethics for the New Millennium)〉가 출간됐다. 저자 알랙산더 놀만은 달라이 라마의 말을 인용, "새 천년의 윤리는 모든 틀을 벗어나는 것"이라며 "각 종교의 벽도 허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자연친화적 삶의 방식이 기술문명의 해악을 이겨낼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Riverhead 출판사. ISBN 1573220256

고침 229호 8면 '회당대종사 일대기 출간' 기사 제목중 '비로나자불'은 '비로자나불'의 오식입니다.

화제의 책

법화경 이야기 — 혜경스님 엮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할까



우주의 절대진리인 일승묘법이 설해져 있고 영원한 생명이 설해져 있는 최고의 경전 〈법화경〉. 다른 경전과는 달리 교상문(敎相門)과 관심문(觀心門)이 함께 갖춰진 경전으로 널리 독송되어 왔다.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 〈법화경〉은 28장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혜경스님이 펴낸 〈법화경 이야기〉는 〈법화삼부경〉 삼십이품에 주력하면서 각품의 요점 그리고 꼭 알아두어야 할 대목들을 현대적 감각에 알맞도록 정리했다. 〈범우사 刊, 값 7천원〉

무학대사 연구 — 황인규 지음

무학대사 생애·사상 집중 분석



고려말 혼탁한 세상을 바로잡고자 불교계 대표로 새로운 사회건설에 뛰어들었던 무학대사. 신진 성리학자의 척불숭유의 사회적 상황속에서 불교를 보호한 대표적 스님이다. 신간 〈무학대사연구〉 억불숭유의 정책속에서 불교의 맥을 바로 세우면서 선사상을 계승 발전한 무학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비롯 려말선초의 불교계의 혁신과 대응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은 황인규 동국대 강사가 97년 박사학위 논문 '구학자초연구'을 보완해 책으로 엮은 것이다.

〈혜안 刊, 값 1만3천원〉

절따라 전설따라 — 김승호 지음

문화재로 본 사찰의 연기설화



사찰연기설화는 사찰과 사람들을 맺어주는 인연의 고리다. 따라서 사찰연기는 희노애락을 절절히 갈무리한 담론의 총화라 할 만하다. 김승호 동국대 강사가 펴낸 신간 〈절따라 전설따라〉는 이대(二代)에 걸친 효행으로 건립된 불국사와 석굴암을 비롯 비교적 흥미롭고 서사성이 강한 36곳 사찰의 연기설화를 담고 있다. 이 책에 실린 연기설화는 문화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다. 문화적 가치와 정신적 배경을 설명해 가면서 그와 관련된 연기담을 잔잔하게 들려준다. 〈대원정사 刊, 값7천5백원〉

주머니 속 대장경 303 - 선(禪)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빛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한형조 교수의
한글 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오늘의 언어로 열어 보이는 本地風光

언어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선(禪)의 세계

● 최근 출판가엔 가히 한국판 선의 황금시대라 할 만큼 관련 서적이 다투어 출판됐지만, 이처럼 원문의 맛을 살리는 것에 더해 탁월한 문학적 향취까지 풍기는 책은 흔치 않다. (문화일보 김종락 기자)

●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선을 언어를 통해 그 본질을 소개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과 사회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나 자신까지 해체해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광표 기자)

● 선(禪)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뿐 아니라 궁극적인 물음, '너는 누구냐'는데 답하기 위한 준비에 충분히 감당할 책이다. (한국일보 장병욱 기자)

● 선불교의 진면목을 간단명료하게 보여 주는 화두집인 『무문관(無門關)』을 번역 해제한 이 책은, 동양적 혹은 불교적 세계관에서의 자아찾기 과정을 제시한다. (세계일보 이준수 기자)

● 이 책은 언어라는 도구를 사용해 현대인들을 선의 세계로 초대한다. …… 달마라는 페르시아 승려에게서 출범한 선(禪)이 6조 혜능에 이르러 기반과 동력을 얻기까지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읽고 있다. (시사저널 성우제 기자)

한형조 지음/ B6 변형 334쪽 /값 6000원

여시아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영업부), 737-0691(편집부), 737-0697(팩스)

석굴암 목조전실 잘잘못 논쟁

강우방씨 '보수의 실책' 주장에 성낙주씨 '보존의 중요성'으로 반박

석굴암에 목조전실이 있었나 없었나, 석굴암 돔을 둘러싼 시멘트겹은 왜 해체하지 않나 등 석굴암 보수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거져 나왔다. 이 논쟁은 강우방 관장(국립경주박물관)이 6월1일자 조선일보에 기고한 '신음하는 석굴암을 그냥 둘건가'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성낙주씨(노원중 교사)가 〈인물과 사상〉 7월호에 '강우방 관장은 석굴암의 현실을 직시하라'는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성 교사는 강 관장이 60년대 석굴암 보수가 석굴암 보존의 원칙과 철학이 결여된 산물이라며 일제시대 때 석굴암 돔을 덮어씌운 시멘트 콘크리트를 없애지 않고 오히려 거대한 철근 콘크리트층으로 그 위를 다시 덮은 것과 전실에 목조지붕을 씌운 것은 당시 보수의 실책이라는 주장에 대해 일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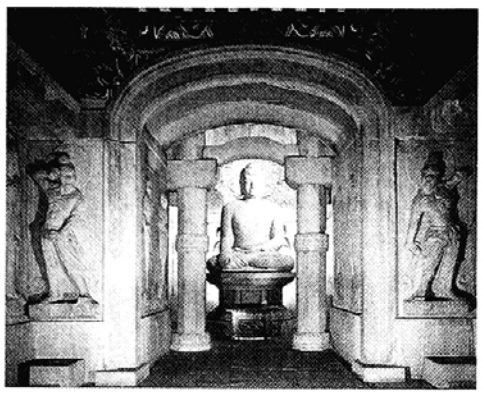
성 교사는 "강우방 등 목조전실 철거론자들은 전실을 노천에 방치해 놓은 사실은 개의치 않고 오히려 목조전실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조전실을 철거하면 엉터리 공사로 석실 내부에 이끼가 끼고 불상도 피해를 입었다고 그들이 비난해온 일제의 보수공사 때로 돌아가는 데도 말이다"라며 "목조전실은 최소한의 안전시설"이라고 지적했다. 시멘트 콘크리트 제거에 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시멘트를 벗기는 것이 중요한지 석굴암 조각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묻고 있다.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는 콘크리트 겹과 전실의 문제는 1913부터 3년여에 걸쳐 일본 총독부에 의해 시행된 1차 중수로 인해 불거져 나온 일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 3개년의 석굴 공사가 착수돼 일본이 시공한 석굴을 그대로 두고 그위에 새로운 돔을 건설하고 개방됐던 전실에는 목조육개를 얹었다. 당시 석굴암 보수 공사의 담당 수석관이었던 황수영 박사(동국대 명예교수)는 "60년대 전실 건립 당시 석굴을 찾았던 부근 마을의 노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옛날에 목격했던 전실규모와 새건물의 그것을 비교하면서 모두 환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석굴암에 대한 오랜 문헌이란 겨우 〈삼국유사〉의 짧은 기록 뿐이기에 석굴암 전실 존폐에 대한 논쟁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토함산 석굴암. 일제시대 세차례에 걸친 중수로 씌워진 시멘트와 60년대 보수로 목조기와를 얹은 전실은 이후 학계의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석·박사 논문 인터넷 검색

불교학 논문 363편 열람

국내외 석·박사학위 논문을 직접 도서관에 찾아가지 않고서도 집이나 연구실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화제다.

네티즌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사이트 아카데미 인프라(www.acain.co.kr)는 국내의 석박사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논문 목록 뿐만 아니라 초록, 원문 등에 대한 다운로드 서비스를 실시한다. 온라인으로 논문 복사를 주문받아 배송해 주는 논문복사 주문 사이트들은 많이 있었지만 논문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카데미 인프라가 처음이다. 아카데미 인프라에서 불교를 검색어로 쓸 경우 검색되는 석박사 학위 논문은 363편. 전공자도 불교에서부터 철학 사회학 체육학 유아교육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해 불자 네티즌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카데미 인프라는 일반 복사서비스가 저자의 사전동의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지는데 비해 원칙적으로 저자와 저작권위탁계약을 맺고 합법적으로 논문을 제공하는데다 관매 금액의 일부를 저작권 이용료로 지불하는 등 적법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설한지 1년이 좀 지난 현재 가입회원수는 3천5백여명, 검색 건수는 5만4천여건을 넘어섰다. 논문목록 검색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네티즌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 2월부터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PC통신을 통한 서비스도 시작했다. 앞으로 국내 유일의 학위논문 전자도서관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아카데미 인프라' 사이트 화제

"불교·유학 연구 시각 동아시아로 넓혀야 사실에 접근 가능"

김인환 교수 "한·중·일 학술용어사전 필요"

"동아시아의 문화가 서로 최선의 내용을 주고 받으려면 자기문화와 상대문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세계문화를 전체적으로 전망하는 이해력이 필요하다. 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연구태도는 한국 내 문화 연구에 있어서도 치명적인 결함이 되어왔다."

최근 발간된 〈열린지성〉 5호에 실린 '동아시아 문화연구의 반성과 전망'에서 김인환 교수(고려대)는 "한국철학사 연구는 삼국·고려시대에는 불교에 치중하고 조선시대에는 유교에 치중해왔다. 삼국 유학과 고려 유학을 무시함으로써 신라시대에 〈주역〉이 교육되었다는 사실을 기술하지 않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불교를 무시함으로써 태고 나옹에서 청허 편양을 거쳐 설봉 백파로 이어져 내려온 한국 선의 계보를 기술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도 엄연히 존재했던 화엄종·천태종·정토종의 변화를 기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학연구와 불교 연구는 동아시아를 단위로 삼지 않으면 사실에 부합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유학과 불교는 20세기의 동아시아에 현존하는 사유양식이자 믿음체계이며 생활방법이다. 김 교수는 경학사는 20세기의 경학연구를 포함해야 하고 선사(禪史)는 20세기의 선 연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0세기의 〈법화경〉 연구, 20세기의 〈주역〉 연구, 〈자본론〉 수용사 등의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제안을 했다.

김 교수는 또 원효를 한국철학사를 움직이는 주인공들 중의 하나로 인정하면서도 그를 독창적인 사상가로 찬양하는 것은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흔히 원효의 설로 인용되는 인과사슬은 원효의 창안이 아닌 〈기신론〉 저자의 견해이고 원효는 그러한 인과사슬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첨가했을 뿐이기에 원효 연구는 〈기신론〉 연구사에서 원효가 차지하는 위상의 해명 이외의 다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동아시아 문화연구에서 당장 시급한 과제는 한국·중국·일본 대비(對比) 학술용어 사전을 만드는 작업이다. 불교 용어의 경우에는 한국어·중국어·일본어 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어·팔리어·티베트어까지 포함한 용어대비사전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 연구는 한중일 세언어에 내재한 공통요소를 확대하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지연 기자

"붓다는 석가모니뿐 아니라 깨달은이 총칭"

조준호씨 빨리문헌분석통해 주장

"붓다라는 칭호가 석가모니 일인만을 중심으로 확고해지자 같은 시간 같은 세계에 두 붓다가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일국토 일불설'이 강조되었다. 절대적인 붓다 개념인 일국토 일불설은 초기 불경 제작자들이 고안한 것이다. 그들의 탁월한 종교 문학적 상상력과 구상력은 고의적으로 모든 베다의 신들을 붓다의 시종으로 만들었으며 독각 돌 전륜성왕 과거불·미래불 개념 보살 개념 등을 통해 붓다 개념을 더욱 격상시키고 있다."

인도 델리대에서 '붓다 개념에 대한 연구:빨리 문헌에 나타난 일국토 일불설에 대한 비판'으로 올해 박사학위를 딴 조준호씨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 논문에서 조씨는 "깨달은 이를 가리키던 붓다가 초기 불교문헌에서 석가모니 붓다에게로만 집중된 것은 붓다를 새롭고 유일한 존재의 영역으로 부상시키기 위한 결과물"이라며 "유일한 존재로서 붓다 개념은 32상 80종호라는 신체적 정신적 특징과 삼명 육통 십력 사무외심을 갖춘 것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초기 불교경전에서 묘사하는 붓다 개념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특성들의 대부분은 아라한에게도 찾을 수 있는 것이기에 초기 불교경전이 형성되기 전의 최초기 붓다 개념은 '같은 시간과 공간에 많은 붓다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조준호씨는 결론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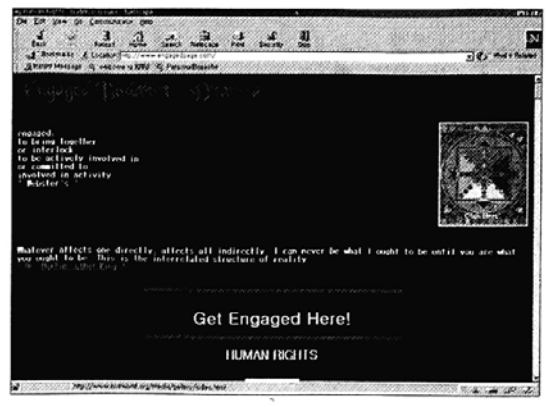
'72시간 계획' 평화운동 전개

URI 미국회의 열어

세계종교대표자들은 샌프란시스코 스탠포드 대학에서 6월20일부터 25일까지 '종교연합준비기구로부터 종교연합에로의 변화이행 시작(From the URI to the UR Beginning the Transition)'을 주제로 제 4차 세계종교연합준비기구(URI) 세계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세계회의에서는 금년말부터 내년초에 걸쳐 전개할 평화운동인 '72시간 계획', 2000년 6월에 있을 종교연합(UR) 헌장조인과 창립식, '종교연합연구소' 및 기금조성 계획 등이 다루어졌다.

한국지부(URI Korea)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온 진월스님(동국대 강사)은 곧 한국지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12월31일부터 2000년 1월2일까지 상징적으로 시행될 '72시간 계획'을 남북분단의 한국적 상황을 감안해 관문점 등지에서 한국의 대표적 종교인들이 모여 군사적 적대행위 종식과 화해 및 통일정신을 고취시키는 평화집회를 갖고 전국의 다양한 종교기관에서도 동시에 평화의 종타종을 논의할 방침이다.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참여불교 '달마'

종교·인종 초월 사회운동 집중소개

'미얀마 대인지뢰 제거운동' 큰 반향

인터넷에서 가장 인기있는 참여불교 사이트는 단연 '달마(Dharma)'다. 인터넷 검색엔진 '인포식', '라코스' 등에서 네티즌이 가장 즐겨찾는 사이트 가운데 수년간 수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달마'에는 종교와 인종을 넘어선 불자 사회운동가들의 활동이 집약, 소개되어 있다. 그들은 "세계는 내적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곳의 모든 유·무정물은 직·간접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불교적 세계관에 힘입어 종교와 인종을 벽을 넘어설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이트에서는 티벳과 미얀마등 불교국 뿐만 아니라 하와이의 '핵실험 고발운동', 멕시코의 '빈민퇴치운동', 아프리카의 '인종차별거부운동' 등 세계 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회운동을 접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얀마의 '대인지뢰 제거운동'에 대한 정보는 세계인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달마' 사이트 후원자이며 대인지뢰 제거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마하 고사난다스님(캄보디아)은 "평화를 되찾기 위해선 땅에 묻혀있는 '지뢰'를 제거해야 하고, 이와 함께 마음의 지뢰, 즉 삼독심도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이 코너에서는 세계 각국에 묻혀 있는 대인지뢰의 추정치와 사상자 수 등 각종 통계자료를 상세히 열람할 수 있다.

'티벳 주권운동'도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불교계 사회운동 가운데 하나다. 이 코너에서는 98년 99년 달라이 라마의 신년 메시지를 열람할 수 있고, 티벳불교계에서 매년 봉행하는 '세계 평화 기원 대법회' 소식도 접할 수 있다. 또 판첸라마의 복권을 위한 티벳망명정부(인도 주재)와 각국 불교계의 노력도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의 '창가학회', 영국의 '불교윤리', 캐나다의 '목소리', 스리랑카의 '종교·인종 화합'등 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계 사회운동단체를 소개, 이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또 인권·빈민·환경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글과 사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마크 에드워즈(사진작가)가 인도 캘커타에서 2년간 거리부랑아와 고아들을 소재로 찍은 사진 50여점, 1948년 유엔에서 제정한 '인권선언문', 19세기 중엽 "자유시장은 '부(富)'만을 좇는 사회주의 논리"라고 역설했던 미국의 사회운동가 노암 촘스키의 연설문, 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실험 참상을 담고 있는 윌리엄 로저스 주니어가 1996년 하와이 문제를 주제로 〈워싱톤 법 리뷰〉지에 개재했던 '정의감과 의식의 공정성(The Sense of Justice and the Justice of Sense)' 등이 열람해 봄직한 정보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http://www.engagedpage.com

"스님, 영가는 어떻게 천도합니까?"
우룡큰스님의
영 가 천 도
4×6판 / 160면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백중·49재 법보시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법보시는 원이시는 분은 주문하시오. 언제든지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우룡큰스님 법문집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룡큰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Ⅰ. 지성(至誠)으로 살자
Ⅱ. 불자의 살림살이
Ⅲ. 불자의 축원
Ⅳ. 불자의 기도
Ⅴ. 일체고액을 벗어나는 길
Ⅵ.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월간 『법공양』을 보셨습니까?

월간 『법공양』은 불자들의 바른 신행생활을 위해 매월 1회 발간하는 64쪽의 조그마한 잡지입니다.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우어 주는 큰스님들의 비중있는 법문과 신행생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김현준 원장의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년 구독회비는 1만원이며 법보시를 원하는 분을 운영위원으로도 모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월간 『법공양』을 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신청하십시오. 이 한 권의 잡지가 틀림없이 신행생활의 기초를 다져주고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회원가입 및 문의 : ☎ (02) 587~6613
불교신행연구원

오온에 '나'가 없음을 관하라

경전 속의 禪 사상 26

무아·공사상 토대로 선수행 가르쳐
여러 경전 수행방법 일목요연 정리

수행도지경

글쓴이



안승준
〈동국대 강사〉

〈수행도지경〉은 불멸후 700년경 카니쉬카왕 시대에 승가나찰(僧伽羅刹) 곧 중호(衆護)라는 논사가 편찬한 경이다. 8세기 말에 인도출신의 학승 축법호가 한역했는데 7권 30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많은 경전에서 수행의 방법과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모아서 정리하고 있다. 오온무아설을 중심으로 불교의 교리와 법상의 이해를 위한 다양한 관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살의 행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서술함으로써 대승적 관점으로 통합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은 대승불교 수행의 기본 지침으로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행법은 아함경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취하고 있어서 흥미롭다.

이 경은 이름이 나타내듯이 불교 수행의 나아갈 길과 단계를 밝히고 있다. 수행하는 이가 일체의 번뇌를 버릴려고 할진대 마땅히 정진에 오로지 하여 다른 행을 일으키지 말며 교범과 계율을 헐지 않아서 적정한 관법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수행하는 이는 마땅히 오온의 근본과 상과 성패 등을 알아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오온을 여실히 분별하여 그것에 나가 없음을 관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도닦는 사람은 자비심을 체득할 뿐만 아니라 실지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자비심을 가지고 그것을 실지로 베풀면 그 누구에게서도 침해를 받지 않으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숙여든다는 것이다. 자비심은 불로도 태우지 못하고 칼로도 해치지 못하며 악마의 힘으로도 꺾지 못하는 마음의 위력인 것이며 수행자의 필수적인 덕성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도닦는 자가 지니는 믿음과 정진과 지혜의 내용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이 덧없다는 것과 받은 몸이 다 고통덩어리라는 것과 온갖세계가 모두 공이라는 것과 모든 것이 나가 아님을 아는 것이다. 이와같이 세상을 보고 믿을 때 전도된 생각을 벗어나서 불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정진이란 언제나 모든 것이 공이라는 마음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불이 나의 머리를 태우고 뼈와 살을 태워서 내 몸이 죽게 될지라도 끝내 닦는 도를 버리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지혜란 명상에 들때를 알고 관찰할 때를 알고 살필 때를 알고 마음을 정할 때를 알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마음을 조절할 줄 아는 등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다. 그러나 도닦는 자가 도의 갈래를 모르고 마음에 두려움이 서리고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지 못하면 지혜를 이룩하지 못한다고 가르친다.

다음으로 도닦는 자가 경계하여야 할 여러 가지 바르지 못한 마음을 경계하였다. 바르지 못한 마음이란 일체 악한 마음을 말한다.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병자가 의원에게 자기의 병세를 털어놓고 말하듯이 자기의 마음을 스승에게 솔직하고 진실하게 털어놓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스승은 탐욕에 뜬 자에게는 사람의 몸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이치를 말해줄 것이고, 성내기를 잘하는 자에게는 인자한 마음을 키우는 이치를 가르쳐 줄 것이며, 어리석은 자에게는 인연을 따라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다는 십이인연의 이치를 일러줄 것이고, 잡생각이 많은 자에게는 마음을 편안히 하는 수식관을 가르쳐 줄것이며, 교만한 자에게는 사람이 허무한 송장과 같다는 이치를 말해줄 것이다.

수행하는 이가 아무리 사대를 능히 분별하여 아는 법을 놓지 않을 지라도 몸의 공을 알지 못하면 곳에 따라 하는 일에 몸이 있고 또한 내가 있다고 억측하게 된다. 본래 무를 보았다면 안의 사대나 바깥의 사대를 헤아려 보아도 모두 평등하여 다름이 없으며 오온 안에 의착하거나 밖에 의착함이 없는 것이다. 수행하는 이가 의심됨이 있으면 마땅히 본래의 근원을 살필 것이니, 능히 그 근본을 알면 곧 진리를 알게 된다고도 하였다.

대략 살펴본대로 〈수행도지경〉은 철저히 무아와 공사상에 입각하여 불교의 근본교리를 관하는 행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행법은 교선일치(敎禪一致)적인 체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선의 수행법은 교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선의 귀결점도 곧 교리의 체득에 있음을 〈수행도지경〉은 웅변하고 있다.

태국 나나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⑦

의지의 길 ②

마음을 현재순간에 두라

오직 관찰만 하고 끄달리지 말아야

매 순간 마음을 보고 깨달음을 얻기 원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는 태국을 방문해 마하 부아 스님의 명상법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이미 '불교'에 심취해 있었고, 마하 부아도 잘 알고 있었다.

명상법회에서 분명한 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었던 그는 "모든 것이 변하고, 고통스럽고, 자아가 없는 것이라면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라고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은 한바탕 웃고 자유에 대해 그에게 물으며 "혹시 그대의 자유란 오로지 생각의 실현이 아닌가? 그대가 찾아야 할 것은 모든 환경과 시간대를 넘어선 자유(解脫),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하 부아 스님은 경행을 해 보라고 권하며 "그대가 앉거나 걸어갈 때, 항상 생각하고 행하는 것에 집중하면,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게 되고, 그 사유는 부처님이 가르친 깨달음의 초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음을 현재 순간에 두라는 것은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든지 오직 알아차리기만 하고 그대로 두라는 것이다. 장애물을 마음에서 없애려 하는 것은 더더욱 안된다. 좋거나, 나쁘나, 뜨겁거나, 차갑거나, 빠르거나, 느리거나 간에 차별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 나도 없고, 자아라는 것도 없고, 모두가 있는 그대로일 뿐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면 특별히 다른 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오로지 걷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을 주시해야 한다. 홀로 있기나 은둔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 어디에 처해 있든지 평상심 상태에서 관찰함으로써 자신을 알도록 해야 한다. 의혹이 일어나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면 된다. 이것은 매우 간단하다. 단지 무엇에도 끄달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수행은 마치 길을 따라 걷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는 장애물과 자주 마주칠 것이다. 번뇌를 만나면 오직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냥 보내버림으로써 극복해야 한다. 이미 지나쳐온 장애는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에만 머물러야 한다. 갈 길이 얼마나 먼지,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신경쓰지 말라. 이것이 계속되면 마음은 자연스러운 균형을 이루면서 수행이 저절로 되어질 것이다. 모든 것은 저절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갓 출가한 미국스님들 가운데는 그들이 받게 된 가사나 발우, 바랑 등에 집착심을 내는 이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몸에 걸치는 가사를 좋아하는 색깔로 정성껏 물들이고, 발우도 새로 나온 가벼운 소재를 손에 넣으려고 무진 애를 쓴다.

수행하는 것 외에 할 일이라곤 없는 생활 속에서 두 세 가지 소유물에 대해 신경을 써서 챙기고 집착심까지 일으키면서 그것들에 시간을 꽤나 쏟고 있는 것이다. 그 출가승들은 바로 수행의 첫 장애와 맞닥치게 된 것이다. 모든 장애물의 뿌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마하 부아 스님은 일러 주셨다.

"우리는 실제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물을 관찰하면 모든게 무상(無常)하고 비어(空)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되면, 약간의 지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대한 의심과 권태로움이 다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실재(實在)를 모르고 명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가 겪어야 할 과정의 일 부분이며 우리 자신의 정신상태, 우리의 가슴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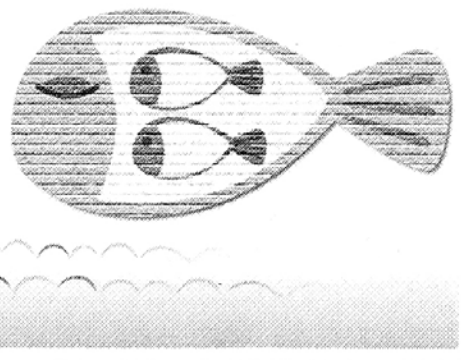
번역=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과 학 산 책

화학물과 관계

모든 현상 실체없고 '관계'만 존재

대기중 오존 유해한 자외선 흡수
땅위의 오존 대기오염현상 일으켜



우리는 지난 호에서 동식물에 유전적 변형을 가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자연과 인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다루었으며 모든 것은 독립된 실체가 없고 다만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불교의 가르침과의 일치성을 살펴보았다. 이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데에도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라고 인식하는 모습은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때의 '나'를 '나'라고 할 수 있는가? 아버지로서의 나가 나인가? 남편으로서의 나가 나인가? 아들로서의 나가 나인가? 아니면 회사 직원으로서의 나가 나인가? 본래의 우리 모습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고 하여도 많은 경우 우리의 모습은 관계를 떠나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문헌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도 관계는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이 세상은 모두 환상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시간과의 관계를 말이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책상이 환상이라고 여겨지면 손으로 한번 힘껏 내려쳐 보라. 아마도 깨달음의 경지에 있지 않으면 몹시 아플 것이다. 이 말의 본 뜻은 영겁의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결국 흥망성쇠를 거치게 되므로, 지금 당장은 눈앞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영원한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라는 것이다. 영겁의 시간에 살지 않고서는 환상이 아닌 것이다. 시간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본래의 말뜻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중요성은 화학에서도 존재한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로얼드 호프만(Roald Hoffmann) 박사는 그의 저서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까치 출판)에서 관계라는 말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개념상으로는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악인은 없고 다만 인간만이 있는 것처럼 나쁜 분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탈리도마이드는 임신 초기에는 유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탈리도마이드가 나병과 관련된 염증을 치료하는 데에 유용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의 하나로 알려진 HIV 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일산화질소는 연탄가스 중독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며 또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이지만 자연적인 신경전달 물질이기도 하다. 즉 이 물질이 없으면 신경전달에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살균제로 많이 쓰이는 오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오존이 성층권에서는 얇은 층을 이루면서 태양으로부터 도달하는 유해한 자외선을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똑같은 오존이라도 지표면 가까이 에서는 주로 자동차 배기 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현상인 광화학적 스모그를 일으키는 악역을 한다. 그에 의하면 오존은 자동차 타이어를 못 쓰게 만들어서 오염물질을 만든 자동차에게 조금은 복수를 하지만, 식물의 생명을 단축하고 우리 피부를 망가뜨리는 일도 한다.

호프만 박사는 분자는 분자일 뿐인데 화학자들과 공학자들은 분자를 변환시켜 새로운 분자를 만들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팔고 사람들은 그런 분자를 사용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화학물질의 이용과 오용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이런 점에 사회에 대한 과학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창조물이 어떻게 이용되고 오용되는가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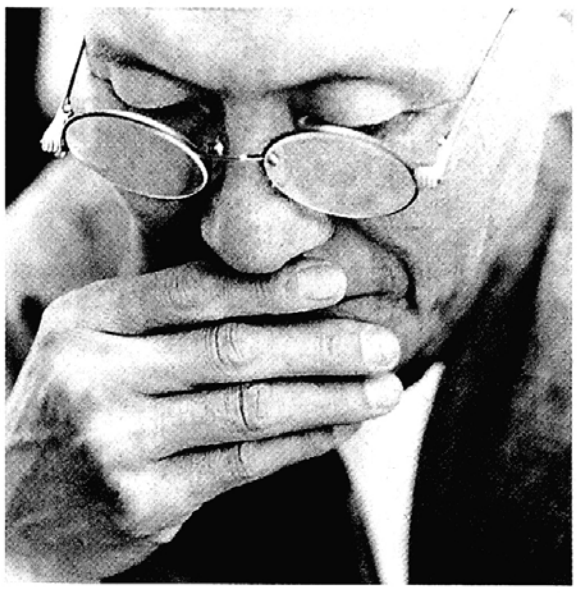
● 1998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
(교보문고 집계 종합 1위)

맑고 향기로운 법보시

산에는 꽃이 피네

법정 스님 · 류시화 엮음

강원도 산골, 화전민 오두막에서 홀로 생활하는 법정 스님의 삶의 풍경과 지혜의 말씀
그 목소리와 함께 전해지는 감동의 메시지



오디오 북

법정 스님이 직접 읽은 〈산에는 꽃이 피네〉 카세트 테이프

이 책은 〈산에는 꽃이 피네〉의 내용을 법정 스님이 직접 읽어 녹음한 카세트 테이프로 만든 오디오 북입니다. 출퇴근 길 차 안에서, 또는 조용한 거실에서 스님의 숨결과 영혼이 담긴 목소리로 직접 듣는 메시지는 책에서와는 또다른 감동을 줄 것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이나 어른들에게도 뜻깊은 마음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 70분 테이프 2개/값 8,000원/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작은 책

주머니 속의 향기, 〈산에는 꽃이 피네〉 작은 책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산에는 꽃이 피네〉를 아주 작은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손 안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지만 큰 책의 내용과 감동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담았습니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부담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이웃에게 선물한다면 진정한 마음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 손 안에 쏙 들어가는 작은 크기/ 248쪽/ 값 3,000원

아름답고 달콤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실행이 따르지 않는 그런 글에 독자는 실망과 공허함을 느낀다. 언행이 일치하는 스님의 음성을 대하면 나는 갈증나는 산행길에서 샘물을 만났을 때와 같은 기쁨이 솟아오른다.

– 이계진(방송인)

● 다량으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다량 주문은 출판사에서 직접 받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묵정동 18-9 배영빌딩 401호 전화 2263-1941/ 팩스 2263-1946 동쪽나라

시방세계

身土不二의 企業
興國農産
⊙ 전 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土種 홍화씨
함양산 土種 홍화씨가 왜 좋은가?
● 지리산지락 함양은 재배의 적지
● 함양은 10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격 동네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천의 얼굴 연기 절로 삼매경



◇드라마 속에서나 밖에서나 넉넉하고 따뜻한 우리시대 한국의 어머니상을 표현하고 있는 연기자 강부자씨. 강씨는 드라마 '유정'에서 법복을 입고 단주를 차고 목주머니를 든 모습으로 출연하고 있다.

탤런트 강부자 씨 산문밖의 禪

나를 비울수록 자연스런 연기
배역과 하나되기 37년 화두
"향싼 종이처럼…" 국회에서 선서
항상 손에 단주…"부처님과 함께"

약 력
- 1941년 충남 논산 生
- 1961년 충남대 국문과 수료
- 1962년 KBS-TV 탤런트 2기로 입사
- 1971년 방송연기자협회 부회장
- 1993년 제14대 국회의원
- 1997년 한국방송대상 개인상 수상
- 연기생활 37년동안 드라마 '달동네' '아망의 세월' '한중록' '목욕탕집 남자들' 등 40여편 출연
- 현재 연극 '오구', KBS-2TV 드라마 '유정'에 출연중

"연기생활이란 나를 비우는 작업이 아닌가 합니다. 초창기에는 어떤 역이 주어졌을 때 잘하고자 또 멋지게 하고자 의식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예요.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오더라구요. 나를 비워가면 갈수록 그 역할이 자연스럽게 우러나 지는 거예요. 나를 많이 비울수록 좋은 연기, 자연스러운 연기가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 어느 직업보다도 특히 아상(我相)이 많으면 잘 할 수 없고 오래 할 수 없는 것이 연기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 62년에 데뷔한 이래 37년의 연기생활동안 수많은 배역을 맡았지만 그때마다 한 번도 배역을 골라 본 적이 없다는 강부자씨(59). 어떤 배역이 주어지건 이것이 나에게 맞는 최상의 인연이구나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몰입한다는 강부자씨에게 사람들은 '연기의 달인' '천부의 연기자'라는 수식어를 곧잘 붙인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여름 초입, KBS 별관 스튜디오에 있는 드라마 '유정' 녹화장에서 강부자씨는 75세 노인 박옥남으로 자연스럽게 변신해 있었다. 다른 연기자로 인해 몇번의 NG가 났지만 강부자씨의 모습은 여여했다. 수 차례 반복되는 되풀이 녹화에도 연기에 기복이 없다. 평상심이 그대로 연기에도 묻어난다. '유정'에서 강부자씨가 맡은 박옥남역은 대기업사장을 아들로 둔 과짝한 할머니로 못마땅한 구석이 있으면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바른 말을 해대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그러면서도 정작 마음은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인물이다. 강부자씨는 평소 자신의 성격과 거의 들어 맞는 배역이라서 그런지 더욱더 정이 가고 소화하기가 쉽다고 말한다.

드라마 '유정'에서 강부자씨의 구수하고 정감어린 연기 이외에 불자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법복을 입고 손에 단주를 낀 모습으로 출연하는 것이다. 작가나 연출자가 따로 지시를 한건 물론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대본에도 없는 것을 강부자씨의 뜻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그의 불심이 연기에 여과없이 반영된 결과다.

드라마속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인 강부자씨는 실제로 어느 장소에 있든지 잠잘때를 제외하곤 단주를 손에서 떼어 놓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절에 다니며 다져진 돈독한 불심탓에 괄피 악세사리는 끼지 않아도 단주는 꼭 챙긴다.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 등 출연하는 모든 대본을 받으면 일단 사찰에 찾아가 부처님 전에 올립니다. 그리고 이 작품에 온 열정을 다 쏟아 부어 중생들에게 무사히 회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빕니다." 이렇게 부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는 모습은 62년 첫 데뷔시절이나 중견 연기자가 된 지금이나 여법하다. 그러한 습관은 또 한 가지가 있다. 출연료나 기타 수익금이 생기면 처음에 받은 것은 꼭 부처님전에 바친다. 지금의 모든 것이 부처님의 가피로 이뤄진 은혜에 다소나마 보답한다는 뜻이다.

천의 얼굴을 가진 강부자씨의 진가는 브라운관만이 아닌 연극 무대에서도 발휘되고 있다. 18일까지 정동극장에서 공연되고 있는 '강부자의 오구'에서 그는 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 어머니의 이야기를 특별한 감동과 재미로 풀어내 신명나는 무대를 꾸며주고 있다. 강부자씨가 97년부터 주연을 맡아 감칠맛 나는 연기로 공연해온 연극 '오구'는 89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2백3십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히트작. 또 90년 동경연극제와 91년 독일 예센 세계연극제, 98년 베를린 세계문화의 집 초청공연 등 해외무대에서도 극찬을 받은바 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문화 관광 상품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오구'는 그에게 있어 한국적인 체취가 몽근히 녹아있는 연기를 마음껏 보여주는 좋은 기회다.

재벌 사모님으로, 철없는 할머니로, 생활력 강한 어머니로, 업격한 대왕대비로 무슨 연기든 완벽하게 소화하는 그이지만 역시 모든 것을 포용하고 깊은 정을 지닌 자애롭고 넉넉한 한국의 어머니상을 연기 할 때 가장 빛을 발한다.

중견 연기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만 강부자씨에게 '연기'는 늘 화두다. 최고의 경지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더 새로운 연기, 자연스러운 연기를 시청자에게 보여줄까 고민한다.

"일단 배역이 주어지면 그 인물을 나름대로 연구해 성격을 파악하고 개성을 부여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배역에 몰입합니다. 일체의 잡념을 없애고 그 배역과 자신을 일치시키지요. 오로지 기도에 매진하다 보면 삼매경에 드는 것처럼 배역에 몰입하다보면 강부자는 사라지고 새로운 인물이 탄생되지요." 지난해 최고 인기를 끌었던 KBS 일일드라마 '정때문에'의 푼수 '옥봉이'역이 화제를 모은 것도 강부자씨의 배역과 하나되고자 하는 집념에서 나온 것.

미모만 앞세운 젊은 연기자들이 잘될때의 반짝인기에 도취되어 자신의 내면닦기에 소홀할 때 결국 반짝스타로 끝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는 그는 후배연기자들에게 연기뿐 아니라 마음을 닦는 노력과 성실한 생활인이 될 것을 항상 강조한다.

국회의원이 처음 됐을때의 일화가 하나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선서를 하는데 강부자씨는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책은 생선을 싼 종이에서는 악취가 난다는 부처님말씀처럼 향기로운 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국회직원중 한 사람이 찾아와, 오랫동안 의원회관에서 근무했지만 부처님말씀을 인용해 의원들앞에 나가 당당히 선서한 의원은 강부자씨가 처음이라고 감격해했다.

강씨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우연의 일치인지 국회의사당안에 법당이 생겼다. 강씨는 국회의원 시절내내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항상 법당에 들러 삼배를 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삶을 돌이켜 보면 삶이 곧 연기이고 연기가 곧 부처님과 함께 한 신행 생활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제 연기 인생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김주일 기자(jkim@buddhapia.com)



◇97년부터 징기공연에 들어간 연극 '오구'에서 강부자씨는 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 어머니역을 특유의 감칠맛나는 연기로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KBS-2TV 드라마 '유정'. 괴팍하지만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은 박옥남 할머니로 분한 강부자씨.



◇드라마 녹화에 들어가기전 부처님께 잘 회향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는 기도를 드린다. 사진은 할머니로 분장하고 있는 장면.



현대불교 99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강릉 송라사 약사불

왼손에 약함…마모 심해

■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강릉시 연곡면 방래리 송라사 석조 약사여래좌상은 약함이 손의 크기나 몸체에 비해 크다.

두상에는 나발과 육계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완만한 곡선으로 이루어졌으며 몸체와 두상이 균형미는 있으나 얼굴에 눈과 입의 형태가 사라질 정도로 마모가 심하다. 코와 이마의 형태는 마모되어 윤곽만 남아있으며 이마에는 백호공이 있는데 근래에 구슬을 박아놓아 얼굴과 균형이 맞지 않다.

짧은 목에는 삼도가 없고 두 어깨는 완만한 각을 이루고 있어 근엄함을 나타내고 있다. 불의는 통견으로 의문이 굵고 단조롭게 표현돼 있으나 무늬주름이 깊게 나타나 법의가 두텁다.

오른손은 항마촉지인이며 왼손에는 약함을 들고 있는데 선정인 형태에서 명치 부근까지 높이 들고 있다. 결가부좌한 다리는 법의에 가리어 항마좌를 하고 있는지 길상좌를 하고 있는지 구별되지 않는 상현좌의 형태다.

한국석불문화연구회 류영렬 답사부장은 "몸체에 비하여 하체가 커서 안정감을 주고 다리를 덮고 있는 의문은 율동 불동하여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한 흔적이 특징인 신라시대 불상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리=김원우 기자

불사의 전당
▶ 희수관음 보살상
부처님조성 천불 만불
불교조각원
서울사무소: (02)738-8447~8
대전사무소: (042)483-8466
천찬

철원 삼신사지 석불

육계와 불두 선으로 구분
고려말 호족세력이 제작

고증: 정영호 박사



철원 삼신사지 불상 〈본지 220호 참조〉은 자연관석에 불상을 조성한 것으로 예술감각이나 조형미는 떨어지나 크기는 대형으로 지방 호족세력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눈과 머리는 옆으로 길게 조각하였으며 양어깨에서 내려오는 팔은 균형미가 떨어진다. 또 육계와 불두, 머리와 귀를 선을 그어 구분하는등 조형미가 떨어진다.

삼신사지 석불입상은 조형미와 균형미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불상제작의 쇠퇴기인 고려말에 조성됐다고 보여진다.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돌부처 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다시 푸는 경서

수심결(修心訣) ②

故世尊云 普觀一切衆生 具有如來
고세존운 보과일체중생 구유여래
智慧德相 又云一切衆生 種種幻化
지혜덕상 차운일체중생 종종환화
皆生如來圓覺妙心 是知離
개생여래원각묘심 시지이
此心外 無佛可成 過去諸如來
차심외 무불가성 과거제여래

그러므로 세존께서 '널리 모든 중생을 관찰하니 다 여래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다' 하시고 또 이르시되 '가지가지의 허망된 생각들이 다 원만히 깨달은 여래의 묘심(妙心)에서 나온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떠나서 부처를 이룰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只是明心底人 現在諸賢聖
지시명심저인 현재제현성
亦是修心底人 未來修學人
역시수심저인 미래수학인
當依如是法
당의여시법
答在汝身中 汝自不見 汝於十二時中
답재여신중 여자불견 여어십이시중
知飢知渴 知寒知熱 或嗔或喜
지기지갈 지한지열 혹진혹희
竟是何物 且色身 是地水火
경시하물 차색신 시지수화
風四緣所集 其質頑而無情
풍사연소집 기질완이무정
豈能見聞覺知 能見聞覺知者
기능견문각지 능견문각지자
必是汝佛性 故臨濟云
필시여불성 고임제운
四大不解說法聽法 虛空不解說法聽法
사대불해설법청법 허공불해설법청법
只汝目前 歷歷孤明 勿形段者
지여목전 역역고명 물형단자
始解說法聽法
시해설법청법
所爲勿形段者 是諸佛之法印
소위물형단자 시제불지법인
亦是汝本來心也 則佛性 現在汝身
역시여본래심야 즉불성 현재여신
何假外求 汝若不信 略擧古聖
하가외구 여약불신 약거고성
入道因緣 令汝除疑 汝須諦信
입도인연 영여제의 여수체신

망령된 생각 여의면 그대로 부처
그대몸에 있는데도 보지 못할뿐

願諸修道之人 切莫外求 心性無染
원제수도지인 절막외구 심성무염
本自圓成 但離妄緣 卽如如佛
본자원성 단리망연 즉여여불

과거의 모든 여래도 오직 이 마음을 밝히신 분이며, 현재의 모든 성현들도 역시 마음을 닦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미래에 수행할 사람도 응당 이 진리에 의지해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밖에서 찾지말라. 마음의 성품은 깨끗하여 본래 스스로 원만한 것이라 단지 망령된 생각들만 여의면 곧 그대로가 부처일 것이다.

問若佛性 現在此身 旣在身中
문약불성 현재차신 기재신중
不離凡夫 因何我今 不見佛性
불리범부 인하아금 불견불성
更爲消釋 悉令開悟
경위서석 실령개오

묻다. "만약 불성이 지금 이 몸에 있다고 한다면, 이미 이 몸 안에 있으므로 범부를 떠난 것이 아닌데 어째서 저는 지금 불성을 보지 못합니까. 다시 해석하여 속속들이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答在汝身中 汝自不見 汝於十二時中
답재여신중 여자불견 여어십이시중
入道因緣 令汝除疑 汝須諦信
입도인연 영여제의 여수체신

답하다. "그대 몸에 있는데도 그대 스스로가 보지 못할 뿐이다. 그대가 하루 가운데서 배고프다, 목마르다 하는 것을 알고, 춥다, 덥다 하는 것을 알고 혹 성내거나 기뻐할줄 아는데 이것이 결국 어떤 물건인가. 이 몸은 지·수·화·풍의 네 가지 요소가 모여 이루어진 것이라서 그 바탕이 둔하여 감정이 없으니 어찌 보고, 듣고, 지각할 수 있겠는가. 능히 보고, 듣고, 지각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그대의 불성이다. 그러므로 임제 스님은 '이 몸뚱이는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듣지도 못하며, 허공도 법을 설하거나 법을 듣지 못하고 단지 그대 눈 앞에 밝음이 역역하지만 형상이 없는 그것이 법을 설하고 법을 들을 줄 안다'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 없는 그것'이란 바로 모든 부처님의 바탕이며 또한 그대의 본래 마음이다. 그러므로 불성이 지금 그대의 몸에 있는데 어째서 헛되이 밖에서 구하겠는가. 만약 그대가 믿을 수 없다면 간략하게 옛 성인들이 도를 깨친 인연을 들어 그대의 의심을 풀어줄테니 그대는 잘 듣고 믿기 바란다.

김원각 〈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참회의 시간 많을수록

태정스님 〈서울포교원 주지〉



약력
- 1928년 경남 함양생
- 1949년 해인사 명허스님 은사로 득도
- 1962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졸
- 1973년 불암사 주지
- 1975년 조계종 총무원 서무국장,
- 재무 · 포교부장, 불교신문 주간 역임
- 1987년 조계종 제8대 중앙종회의원
- (現) 서울포교원 주석

불교는 이론이 아닌 실천의 종교입니다. 이론은 이론에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라도 가르침대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신심과 발심으로 시작될 때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며 참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그리운 5살 때 지리산 영은사에 들어갔습니다. 출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몸이 약해서였지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절에서 약 5km 떨어진 초등학교에 갔다오다 그만 정신을 잃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스님들이 쓰러진 나를 발견하고 절로 업고 갔지만 며칠간 물 한모금조차 넘기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지요. 이런 나에게 주지스님은 처방을 내려 주셨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라는 것이었지요. 스님께서는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부르면 아프지도 않고, 네가 하고 싶은 것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잘 때까지, 아니 잠을 자면서 까지도 관세음보살을 항상 생각하며 쉬지 않고 염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스님이 시키는데로 뜻도 모른채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봄나물을 뜯다가 잠이 들 때도 있었답니다.

성장하면서 사찰의 생활이 하나씩 몸에 익숙해졌고 서서히 수행자의 길로 다가서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고, 스님들 기도할 때 같이 따라 기도도 할 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심이었다는 것을 후에야 알았습니다.

불자라고 자처하려면 무엇보다 신심이 돈독해야 합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도리가 완전한 실상이므로 그것을 배우고 실천하면 커다란 이익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단호한 확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심만 있고 그에 따르는 행동이 없다면 씨앗을 뿌려 놓고 가꾸지 않는 것과 같이 소득이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신심은 외부의 불리한 여건을 만나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도시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신심이 깊어질 수록 절을 자주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심을 더욱 온전케 하고 자라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절을 찾아 예경을 하고 나면 청법을 해야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즐겨서 묻는 사람이 있고 잡담이나 하다가 오는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라고 해야 할 만큼 가르침을 청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거지라도 즐겨 배우기를 힘쓰면 성인이 될 것이고, 성인이라도 배우지 않으면 거지가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의욕 즉 신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초발심이 정각을 이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영은사를 떠난 것은 여순반란사건의 후유증으로 절이 불에 타 소실됐을 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절을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해인사로 들어가 명허스님을 은사로 재출가를 하고 수행자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8년 제2의 발심을 하고 경학공부를 시작했답니다. 무작정 부처님을 존경만 하는 것보다 왜 존경해야 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공부를 시작하니 길이 보이더라구요. 그 때 깨달은 것이 바로 인과의 진리입니다. 하고자하는 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하는 만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땀을

신심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씨 뿌리고 가꾸지 않는것 같아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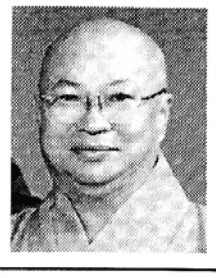
흘리지 않는 곳에 성불의 꽃이 필 수 없고 보리의 열매는 열리지 않는 법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 보람있는 것, 가치있는 것은 노력의 산물이요, 땀의 결과인 것입니다.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시간은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있을 때입니다. 선방에서 용맹정진하는 수좌, 법당에서 일념으로 염불을 하는 스님의 모습이 성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가치있는 일을 달성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막연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면 편할 것 같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데, 결코 참다운 즐거움이나 행복은 느낄 수 없기 때문이지요.

물론 수행하는 동안 마장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 마장을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도 수행입니다. 해인사에서 공부할 때 4·19가 일어나 주지스님이 바뀌고, 강사스님마저 떠나셔서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공부든 수행이든 혼자서 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럿이 모여 규율을 정해 놓고 해야 여법하게 공부가 잘되는데 말입니다. 초심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글어 줄 스승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공부를 할 수 없으니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한참 신심을 내 공부할 때 쉬는 것은 굉장한 역효과를 초래합니다. 나는 할 수 없이 경학 공부대신 팔만대장경이 봉안돼 있는 장경각에 들어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때 참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터득했답니다. 기도생활이 하루하루 이어지면서 지난 날의 내 자신과 지금의 나를 되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정진하며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여겨 왔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오히려 어린시절 내 모습이 더 진실되고 깨끗했었던 것이었어요. 습의와 교리에 대한 지식은 늘었지만 마음의 때는 더 짙어졌고, 정신은 더욱 혼탁해 졌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그래서 참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참회의 시간이 많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화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영험함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솔선식(2개월 50만원), 솔효소정액(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2개월 100만원), 치신왕기환(3개월 50만원)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대구여래한방)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여든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뵈온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므로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명 합장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흡곤란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옥고(경옥고) 같이 생긴「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다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 주지 박 법륜 합장



여성중앙 99년 6월호

지금 일본에서 최고 인기!
'크로스 건강법'을 아시나요?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을 물질로, 지금까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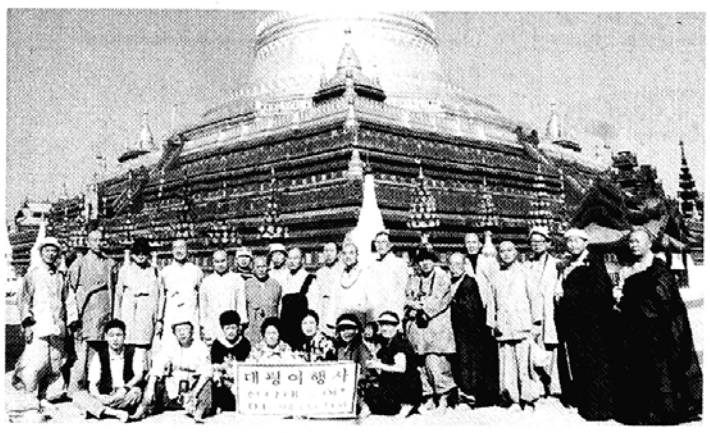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 (053) 655-2227
(011) 808-8880

큰스님 수행한담

삶이 더욱 윤택해져요”

“좋은 보약보다 약방의 감초처럼 꼭 필요한 수행자 되자”



◇1996년 6월 불암사 대중들을 비롯 도반스님들과 함께 미얀마 성지순례를 했다.(오른쪽 두번째 태정스님)

을수록 성숙돼 수행이 잘된다는 새로운 세계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아마 깨닫지 못한 범부로서 악업을 짓지 않는 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치열한 약육강식의 시대에서 삶이란 그 자체가 경쟁이요, 투쟁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먼저 이웃을 걱정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참다운 불자의 삶입니다. 해인사에서 1년정도 돼 교무소임을 맡았습니다. 그후 종단 총무원을 비롯해 본사인 봉선사, 불암사 등에서 60여년등안 각종 소임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줄곧 잊지않았던 것이 유년시절 영은사 주지스님께서 일러주신 ‘관세음보살’ 염송이었습니다. 본래의 내 모습과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을 입에 달고 다녔지요. 이를통해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자리를 다독였습니다.

부처님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방편은 산중 선방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 수행하는 사람만이 수행자가 아닙니다. 주위의 불자들을 보면 산승들만 수행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심에 있는 스님들은 모두 수행자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스님들처럼 언제나 중생들 편에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수행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란 산과 도심을 떠나 처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선지식이 태어나는 것은 그분 스스로만 된 것만은 아닙니다. 인과법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요. 그분의 용맹정진과 그리고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불자, 이끌어준 스승, 그리고 불교계 구석구석에서 정진하고 계시는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큰 깨우침을 얻었다해도 주위에 귀의해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내가 출가해 공부할 때 어른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약방에 감초처럼 꼭 필요한 수행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과법에 의해 이뤄진 것이지요. 그분의 용맹정진과 그리고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불자, 이끌어준 스승, 그리고 불교계 구석구석에서 정진하고 계시는 많은 스님들과 불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혼자서 아무리 큰 깨우침을 얻었다해도 주위에 귀의해 따르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내가 출가해 공부할 때 어른스님들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군요. 약방에 감초처럼 꼭 필요한 수행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감초는 그 자체로는 좋은 보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감초가 보태 짐으로써 약의 가치는 더 높아 지는 것입니다. 승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나없이 좋은 보약만 찾으면 안됩니다. 감초처럼 요소요소에 꼭 필요한 수행자가 될 때 불교는 더욱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행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행도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억지로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다고 해서, 참선 습관이 들었다고 해서 다 수행자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고자 하는 마음 즉 신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제라도 신심을 내 잠자는 것 잊어버리고 송곳이라도 찔러서도를 닦아야 할 형편인데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려 옵니다. 그러니 내 정신은 아픈데로만 갑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수행이 돼야 하는데 이제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요즈음 세월의 무상함을 절실하게 느끼지요. 그래서 나는 2년전부터 사경수행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주로 밤이나 새벽시간을 이용해 사경을 하고 틈나는대로 참선도 병행합니다. 요즈음 사경을 하는 신도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경을 해야 할 스님들은 줄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수행의 한 방법이기에 사경은 스님들 공부에 필수과정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속에서 생활하는 신도들은 사경에 전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염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에 가보니 신도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염불만 하고 앉아 있더군요. 그리고 스님이 염불하다 틀리니 대뜸 ‘무슨 스님이 염불도 못하냐. 중도 아니다’라고 핀잔을 하더라구요. 이것은 바로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승단의 교육체계를 바로세우는 것도 수행이나 포교 못지 않게 중차대합니다. 스님들은 물론 재가 신도들도 우선 불교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불교의 근본을 뚫어야지 공덕을 앞세우는 것은 멀리 돌아가는 길입니다. 특히 스님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이런 것을 해야하고, 마음가짐을 이렇게 해라, 세상을 이렇게 살아라’는 것을 부처님 사상에 맞게 설해 주어야 합니다. 지혜의 눈을 얻도록 하기 위해 교화하라는 것입니다. 염불을 외우면 공덕이 크다는, 사경을 하면 그 공덕이 높다 등 공덕설만 주장해서는 안됩니다.

포교현장을 보면 우수운 일이 많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따라서 신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스님을 마치 병을 고치는 의사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신도들은 가까운 사찰을 가지 않고 영험한 도량만 찾아 나섭니다. 포교원을 운영하다보니 이러한 신도들의 의식을 알 수 있겠더라구요. 늙으막에 포교원하나 마련하고 그동안 못한 포교를 한번 해보려고 하니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중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바로 가까운 이웃 포교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우선 저자거리의 포교원을 절로 여기지 않을 정도니까요. 오직 영험하고 큰 사찰만 절이고, 그곳에 계시는 스님만 스님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불자들은 위대한 법을 대하고 있으면서도 전체를 볼 줄 모르는것 같습니다. 마치 〈백유경〉에 나오는 장님 일화처럼 말입니다. 부처님 법은 하나인데 자기 기준에 맞춰 마음대로 부처님을, 사찰을, 스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간혹 스님들도 이와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참선만 하는 사람이다. 나는 경만 하는 사람이다. 나는 율만하는 사람이다. 선사는 강사보고 그것이 무슨 법문이냐. 강사는 선사보고 그런 법문이 어디 있느냐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선은 부처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법입니다. 이 교법가운데는 선교율이 함께 합해져 있는 것입니다. ‘선시불심(禪是佛心)이요, 교시불어(敎是佛語)요, 율시불행(律是佛行)이다’는 부처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름지기 수행자는 결국 마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 마음에 의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있었기에 팔만대장경이란 교법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께 공양하고 배우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선·교·율이 다 하나로 부처님 법에 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인 달은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두고 옳거니 그르거니 하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달을 볼 줄 아는 마음이 제대로 됐다면 남을 비방할 시간이 어디있습니까. 탁마해야지요. 대중들이 모여 앉아 탁마는 할 지언정 뒤에 대고 비방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미래를 봐야 할 때입니다. 21세기가 다가왔다고 말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새 시대를 담을 아무런 틀이 마련돼 있지 않는데 말입니다. 임시처방을 해서는 병이 낫지 않습니다. 미래를 지양하는 설계가 되고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준비합시다. 개인부터 불교계 전체가 의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정리=김중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땀 흘리지 않는곳에 깨달음 열매 없어
확고한 믿음 깨달음 향한 씨앗입니다

나의 수행일기



김 일 곤 〈(주)우광안전 소장〉

〈上〉

나의 직업은 매우 다양했다. 30대 초반까지는 직업군인이었고, 전역 후 건설회사 화약 발파기사, 중기관리자, 택시운전자,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까지 했다. 이 중에 택시운전사와 주택관리사 직업은 각양각색의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으로 마음닦는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 어느새 불혹의 나이가 됐고 42살 되던 해 ‘이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안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거세졌다. 결국 불교수행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어렸을적 나의 꿈은 신통자재한 도인이 되는 것이었다. 언젠가는 출가 수행하여 꿈을 이루리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항상 부처님을 그리며 살아왔던 것이다.

가지 경계를 보게 되었다. 기도만 하면 소원성취가 쉽게 이루어져 경제적 이득을 보는 등 이러한 체험을 자주 하게되자 독송에 재미가 붙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기복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예를들면 나는 부처님 잘 믿어서 복만 오고 재앙은 안온다. 난폭 운전해도 교통법규 안지켜도 부처님이 봐줘서 위반과태료를 부과 받지도 않고 사고도 안난다. 또 내가 산 주식은 무조건 올라서 고수익을 얻는다. 기도만 하면 뭐든지(옳지 않은것까지도) 다 된다… 이런 사고가 싹터 오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에 빠진 것이었다.

이 무렵 아파트를 분양받아 일산 신도시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금강경〉

“네 한마음 닦아 성불하라”
금강경 참뜻 새기니 기복 벗어나



〈금강경〉 등 경전과 불서를 구입해 집에서 공부하고 참선도 해 보았으나, 곧 독학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지식을 만나 수도하길 간절히 염원하고 있던 중에 ‘금강경 독송회’ 서울법당을 알게 되어 〈금강경〉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처음엔 뜻도 잘 모르면서 하루 금강경 7독과 1~2시간 정근하는 수행법을 5~6년간 꾸준히 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수마와 싸우면서 공부가 시작되었고, 직장근무를 제외한 시간은 거의 〈금강경〉 수지독송으로 보냈다. 따라서 가족과 주위에서 너무 깊이 빠져 들었다며 독송을 반대했다. 그러나 이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 만큼은 그 누구도 꺾을 수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나의 생사문제를 해결하는 중차대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부처님 49년 설법의 핵심 경전이다. 우리가 수지독송을 하게 되면 무시겁으로 지어온 업장이 해탈되고 밝아지게 된다. 번뇌 망상의 중생 마음을 부처님께 잘 바쳐서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다. 그런데 공부가 조금 깊어지면서 부처님의 광명등, 신비한 체험과 여러 공부를 계속해서 더욱 깊이 있게 해 보겠다는 원이 있어 만난 곳이 생활속에서 〈금강경〉을 실천하고 있는 ‘바른법 연구원’이었다. 사실 그동안 〈금강경〉의 내용을 잘 모르고 달달 외우다시피 독송을 해왔는데 ‘바른법 연구원’을 다니면서 경전내용을 하나하나 익혀 나갔다. 〈금강경〉의 참뜻은 ‘네 한마음 닦아 성불하라’는 것이 핵심이고, 경의 내용을 알고 수지독송하는 것이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그때부터 기복적인 사고는 철저히 부서졌다. 우리가 〈금강경〉을 바르게 공부하다 보면 복은 부수적으로 저절로 따라 오는 것이니, 탐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것이다. 특히 평소 〈금강경〉 공부를 하고 싶어 해설서를 여러 권 사보았지만 똑같은 구절을 두고도 해설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는 책을 찾아 볼 수 없었는데 이곳 바른법 연구원에서 〈금강경〉을 현대인에 맞게 해설한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이 나왔다. 어찌나 고맙고 반갑던지 이 책으로 직접 강의도 듣고 공부하여 그동안 쌓여있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 수 있었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진달래

누구에게 보이려
꽃망울 꽃을 피웠나

곱디고운 모습으로
함박 웃음 머금고

분홍빛 드리운
솜털 구름위로

그대 그리워 바라보며
분홍빛 가슴으로

얼굴 묻는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 영 숙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 숙 (법명: 無生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55호 탑골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뒷편효원빌딩 502호
☎ 대표전화 : (02)2275-5592~3
핸 드 폰 : 018-277-5592

손해보험 대리점
설계사 모집

당사는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와 제휴하는 총괄법인으로 불교문화 진흥 및 불자님들의 복지를 위한 한불복지재단(가칭) 설립에 참여하실 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자 격 ◀
25세 이상 고졸이상의 남·녀
기존 활동중인 대리점 사장님, 설계사

▶ 취급 업무 ◀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상해보험, 단체보험, 대출등

▶ 특 전 ◀
· 최고의 수수료(높은 마진)
· 불교계 관련 보험 업무지원
· 성지 순례 부여
· 사무실 및 집기 비품 지원
· 전담 직원 관리 시스템

연락처 대표 02)392-6233~6 / 02)737-5925
Fax 02)313-1301
H.P 011)260-4454

주최 : 주식회사 태고 대표이사 김 태 균
후원 : 한국불교태고종 전국신도회 명예회장 김 철 회
한불복지재단(가칭) 추진위원회 위원장

주 식 회 사 太 古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63-1 삼창 B/D 6층
※전화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숯이 책임집니다!
전국에 숯의 돌풍을 몰고온 화제의 베스트 셀러, 드디어 3판 돌입!
집안에 놓아두기만 해도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숯 100배 활용법
2100년 전 무덤에 묻혔던 여성의 시체가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게 만들었던 숯의 비밀,
우리 조상들이 장을 담글 때나 아기가 태어났을 때면 금줄에 숯을 사용했던 비밀을 여기에 밝힌다

숯은 수많은 구멍과 탄소성분을 갖고 있으며
음이온 덩어리일 뿐만 아니라 원적외선을 방사하며
수많은 미네랄을 갖고 있어 미네랄의 보물창고라고도 불린다.
방부효과 · 여과효과 · 음이온 발생 · 전자파 차단효과 · 원적외선 효과 등등

한국목탄 연구소 소장 강 재 윤 지음 값 9,000원



숯 이 사람을 살린다

▶숯의 일반적 효능
⊙수돗물도 미네랄 워터로 만든다. ⊙숯을 밥 속에 넣어 맛있는 밥을 짓는다. ⊙쌀통에 넣어 쌀벌레 발생을 방지한다. ⊙과일, 야채의 농약성분 제거에 숯을 넣는다. ⊙튀김을 바삭바삭, 기름을 오래 쓰게 한다. ⊙땔래에도 숯을 넣어 뽀얗게 한다. ⊙공포의 전자파를 차단한다. ⊙독가스를 먹어치운다. ⊙유독한 실내공간을 숲속 같이 만든다. ⊙명실에 비치하면 생명에너지를 공급한다. ⊙목욕탕에 넣으면 알칼리 온천이 된다.…등등

▶숯의 치료적 효능
⊙잠을 자면서 건강해진다. ⊙위궤양, 식중독, 설사 장염, 맹장염, 변비, 고열, 간염, 황달, 담석증, 담낭염 등 ⊙숙변제거와 다이어트 효과 ⊙뱀, 벌, 개, 모기, 불개미에 쏘였을 때 ⊙불이나 물에 데었을 때, 습진, 피부염, 골수염, 각종 염증 ⊙중이염 ⊙눈의 염증 ⊙기관지염, 폐렴, ⊙신장염, 신부전증 ⊙발모증에도 특효 ⊙기미 주근깨도 없애준다. ⊙화천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 ⊙혜수, 담수. 양식장에도 숯이 필수… 등등

지성문화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 2동 1423 (대지 빌딩 205)
☎02-2233-5554 02-2233-8090 FAX. 02-2238-4240

왜 팔각다층탑을 세웠을까

가람의 장면들 9

월정사 석탑

김 봉 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원래 오대산은 중국 싼씨성에 있는 청량산의 다른 명칭이다. 문수보살이 살고있는 곳이라 믿어졌던 중국 불교의 성지였던 만큼, 아직도 오대산 일대에는 백여개소가 넘는 사찰들이 남아있다.

신라의 승려 자장율사는 당나라 유학시절에 오대산을 보았고, 귀국 후에는 신라의 전국토를 불국토로 만들기 위해 중국과 인도의 성지 이름을 전국의 유명산에 붙이기 시작했다. 중국의 오대산과 가장 닮은 곳을 강원도에서 발견했고, 문수보살의 주처로 삼아 이름을 붙였다. 후대의 승려들은 동서남북과 중앙 다섯 봉우리(五臺)에 암자들을 경영했고, 이는 사방불 개념의 화엄신앙과 결합하여 더욱 복합적이고 상징적인 성산으로 숭상되어 왔다.

강원도 평창 땅의 이 오대산을 관장하는 큰 절이 바로 월정사다. 신라 때 창건되어 명성을 떨쳐왔지만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각들은 모두 불에 타버려, 현재의 건물들은 최근에 신축한 것들이다. 예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은 단지 팔각구층석탑과 그 앞의 약왕보살상 뿐이다. 그러나 이 한 기의 석탑은 신라말 고려초기 전국에 불었던 새로운 문화운동의 유력한 증거가 된다.

이른바 통일신라 시대란 경주의 왕권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하려던 시기였다. 경주 왕실은 정복지인 옛 고구려와 백제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적인 통치를 꾀했고, 정치체제뿐 아니라 사상과 문화마저도 신라 일색으로 바꾸어 명실상부한 통일왕국을 이루려했다. 예컨대 지역적 정서를 무시하고 신라왕실이 후원하는 화엄종 계통의 승려들을 전국에 파견하여 화엄사찰들을 세움으로써 세 나라의 불교를 하나로 통합하려 했다. 불교예술 역시 신라식 예술을 전국에 확산시켰다. 목조건축들은 남아있지 않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신라식 삼층 석탑들을 유포시켜 전국의 석탑들을 통일된 양식으로 획일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집권체제는 귀족들간의 왕권다툼으로 자체 분해되기 시작하여 지방에는 그 지역의 토착세력들이 힘을 키우기 시작하여 신라 체제의 붕괴를 초래했다. 이른바 호족이라는 지방의 유력세력들은 경주 왕실의 귀족적인 교종불교를 배척하고 새로운 선종불교를 받아들여 사상적으로도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지방 맹주인 호족들은 자신이 지배하는 지역의 문화와 풍습을 존중하여, 옛 백제 땅에는 백제의 예술형식이, 옛 고구려 지역에는 고구려적 예술형식이 활발하게 부활되었다. 호족 연합체의 성격으로 건국된 고려 초기에는 이런 지역 자치적 전통이 더욱 성행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먼저 불교를 받아들였던 고구려에는 대형 사찰들이 많이 건설되었다. 지금까지 10여개의 가람터들이 발굴되었는데, 대부분 가람의 중심에는 팔각 목탑이 서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금당과 부속건물이 둘러싸는 독특한 배치법을 따랐다. 따라서 고구려 가람 건축의 특징이라면 이른바 '1탑3금당제'와 '팔각 다층목탑'의 전통이라 할 수 있다. 팔각탑은 백제나 신라에서는 볼 수 없었고, 신라 통일기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고구려가 멸망한지 300여년에 지난 고려 초기, 옛 고구려 영토의 남한계선이었던 경창 오대산 및 월정사에 드디어 '팔각 다층탑'이 부활한 것이다. 비록 목탑이 아닌 석탑으로 부활했지만, 사라져 버렸던 것 같은 고구려의 팔각탑 전통이 다시 생명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월정사뿐 아니라, 광안도를 중심으로 한 옛 고구려 땅의 가람들에는 팔각다층석탑이 심심찮게 전하고 있다. 묘향산 보현사, 평양 영명사가 대표적인 예들이다. 모두 고려초기에 조성된 것들로 월정사와 함께 예술계에도 지방 자치의 거센 바람이 불었던 시대를 증명하고 있다.

같은 시대, 옛 백제 땅에는 이른바 백제계 석탑들이 부활되고 있었다. 부여 땅에 있는 정림사지 오층석탑을 모델로 삼아 수많은 백제식 탑들이 조성됐는데, 지금 남아있는 것만 해도 30여기에 이른다. 또한 안동 의성 땅에는 벽돌로 만든 전탑들이 유행같이 세워져 역시 또 하나의 지역적 문화전통을 만들고 있었다.

강압적 중앙집권체제가 지방분권체로 바뀌면서, 예술과 건축도 지방 자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신라말 고려초의 10~11세기는 새로운 사회를 맞아 새로운 건축을 활발히 모색했던 시대다. 그 흔적들을 우리는 각지에 남겨진 석탑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일단은 각 지역의 옛 전통들을 부활하는 방향에서 전개됐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월정사탑이 비록 고구려 팔각탑의 전통을 따르고 있긴 하지만, 가늘고 호족한 비례, 섬세한 건축적 조각술, 작아진 규모 등은 고구려가 아닌 고려 건축의 특징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탑이 아닌 석탑으로 건축됐다는 사실은 결국, 형태는 복고적이지만 내용은 현재적일 수밖에 없는 건축의 본질을 보여준다.

본질적인 것은 아름답고 감동을 준다. 월정사 팔각탑과 같이.



◇오대산 월정사의 팔각구층석탑은 고려초기 거세게 불었던 지방자치, 복고운동의 증거물이다. 옛 고구려의 팔각 목탑전통을 되살렸지만 섬세한 건축적 조각술로 만들어진 석탑으로 고려 건축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고려초 문화복고운동 증거물
고구려-고려양식 적절한 조화

재정보다 '의지' 더 중요

사찰도서실도 포교공간… 건축불사 못지않아

우·리·절·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사찰에는 법당과 각 전각들이 있다. 하지만 법보를 비치한 도서실은 찾아 보기 힘들다. 그나마 시설이 있다 해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찰 도서실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선 스님들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문제.

예산

공간과 관리 인력 그리고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대부분 사찰에서는 예산을 이유로 도서실 만들기를 꺼려하고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지금 꼭 해야 하는지 잘못 이해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사찰도서실은 의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사실 일선 관계자들이 재정적인 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사찰 도서실 마련은 건축불사와 비교하면 불사도 아니다. 때문에 도서실 만들기에 재정을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사찰에 도서실이 없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법당과 불상을 조성하는 불사는 당연한 불사이고, 도서실을 마련하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그릇된 의지가 도서실 만들기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미래를 한번쯤 고민해 봤다면 도서실 마련에 등을 돌리진 않을 것이다. 양서들이 사찰로 모여들어도 일선 사찰 주지스님들의 의지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사찰도서실 만들기의 일차적 주체는 주지스님의 의지가 결정적이다. 사찰도서실 만들기에 주지스님의 역할은 재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바로 주지스님들의 의지가 사찰에 도서실을 만들수도 있고, 있는 도서실의 문을 걸어 잠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지스님들의 의지에 신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가세한다면 사찰도서관 만들기는 손쉽게 진행될 것이다.

사찰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모아두고 빌려주는 곳만은 아니다. 신행과 포교의 장으로, 미래불교를 구현하는 중심으로,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문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법당인 것이다. 이제부터는 건축불사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법보를 통해 불자들의 마음을 살찌우는 도서관 불사에 더 큰 의지를 심어야 할 때다.

불서 1600권 기증 정병조 교수



"교학 발전·전법의 밑거름 됐으면…"

정병조 동국대 교수(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가 '사찰에 도서실을 만듭시다' 캠페인에 불서를 기증했다. 기증한 불서는 5백여종 1천6백여권으로 신간, 석·박사학위 논문등 불교학 전문도서들이 주종을 이룬다. 해외에서 간행된 각종 문헌도 포함돼 있다. 이 불서들은 대부분 정교수가 도서관장을 맡고 있을 때 기증받은 것을 모아 둔 것, 이밖에 논문, 자료집, 연구서 등도 틈틈히 모았다. 사찰 도서실 만들기에 적극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 정교수는 "언젠가는 보탬되게 쓰일 줄 알았다"며 "원하는 사찰이 있다면 모두 보시하겠다"라고 기증의 뜻을 밝혔다. 정교수가 기증을 원하는 곳은 승가대학(강원), 일반사찰이 아닌 학인들이 공부하고 있는 승가대학에 기증하기를 희망한 가장 큰 이유는 불교학 발전을 위해서다.

승가대학의 도서관이 공부해질 수록 불교학이 발전된다고 강조한 정교수는 "어떤 학교든지 도서관은 교수 강의실과 함께 학교가 갖춰야할 기본요건이다"며 "사찰도서실 만들기 캠페인이 확대돼 승가대학은 물론 각 사찰에 도서실이 설립해 불교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도서실 추진 동산반야회

"1인 1불서 보시" 1천여권 수집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최근 동산불교대학 2백여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1권 불서보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동산반야회는 7월말까지 교육관내에 문고판 도서대를 설치키로 2백여권의 불서를 기증받고 있다.〈사진〉 동산반야회의 이같은 캠페인은 각 지부로도 확대돼 활기를 띠고 있다. 대구 염불선원에서는 동참의 뜻을 밝히고 1차적으로 1백여권을 보내왔다. 현재 동산반야회에 있는 불서는 약 1천여권. 하지만 공간부족으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열람하기 어려운 상태다. 이번 캠페인이 확대되면 작은 도서실을 만들어 재학생들이 마음껏 열람하고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권 같은 종류의 불서가 많이 기증될 경우 미주에도 보낸다는 복안이다. 현재 미국 시애틀에는 동산불교대학(87)을 졸업한 김승일씨가 홈페이지를 통해 불서읽기 운동을 펼치고 있어 이에 협조한다는 것이다.

연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 백화점
몰·부다피아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천연옥을 원석 그대로 가공한 석풍 건강옥 방석으로 시원한 여름을…
- 인체발열, 습기에 제로 없는 청결한 옥방석
- 세계 최초로 병충 및 청결 효과가 있는 옥방석
- 천연옥을 가공한 건강 옥방석으로 여름철 시원함(대나무 방석 대용)
- 겨울, 기름, 김칫국물을 흘려도 걸레로 닦아주는 것으로 OK!!
- 차량 방석으로 사용가능
•크 기 44 X 44 Cm
•원 산 국내산 연옥 분말
•포 장 실 켈트지
•배달특 히고립성지 (무료리·하이오세라믹 처리)
•가격:₩9,000

더우십니까? 참선명상 방석으로 선 삼매에 드세요.
국내 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참선·명상·단전호흡 수련방식
수행시 비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여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크기 39×43(cm)
•가격:₩27,000

자비로움의 표현 불자들 모두가 함께입는 여름 필수 부다피아 티셔츠
•제질 순면 100% (20수)
•색상 흰색
•인쇄 나염인쇄 (칼라)
•가격:₩7,000

연꽃 지구촌
다가올 21C 불국토를 염원하며 연꽃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자비연꽃나팔
지비의 법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연꽃 나팔

100장 이상 주문시 6,500원 단체·사찰명 인쇄해 드립니다.

천진동자 부채로 더위를 날려 버린다.
앞면 뒷면
200개 이상 주문시 단체·사찰명 인쇄해 드립니다. (결기10월~2개월)

강행복 합죽선
*강행복 합죽선은 작가의 관희 작품을 담장으로 보내 수공으로 제작합니다
•가격:₩100,000
우리 선조들이 즐겨그린 인화풍을 현대적 감각의 목판화로 재 해석 하였으며 강렬한 먹색 연잎아래 유유 자적하게 노니는 오리 한쌍을 동양적 여백으로 표현하여 날마다 좋은 날을 기원 하였다
•제작연도 1998년 / •기법 목판화+채색 / •판도수 1판 1색+채색5색
•재질 천주한지 / •크기 53×16.5cm / •판 500

바위속에 숨은 부처. 대자대비 바위속에 숨은 영겁의 비소를 영상으로 보며 더위를 식힌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민중의 대상인 부처님상을 많이 조성하였고, 아름답고 성스러운 신 특히, 경주 남산은 불보살이 어울려 있는 신령스런 영산으로 믿어 수없이 많은 마애불과 석불 석탑이 조성되었다. 국보급 유물과 자빈유형문화재 등 빼어난 유물들이 불국정토 회엄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려던 선인의 혼이 서린 성역임을 실감케 한다
(제작) 대접프로덕션
문화관광부 등록 제1호/구성 감독-황기태
상영시간 바위속에 숨은 부처 - 40분
반야용선 - 30분
•가격:₩13,000

숙면의 요인 중에는 베개선택도 중요한 요소! 한방 옥 베개로 시원한 여름을…
-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심치리에 안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짜증스럽거나 피곤한 분에게
-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에게
- 많은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휴면을 하고 싶은 수험생
- 만성두통,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분에게
- 목부위에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분에게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신 분
•가격:₩30,000(1개) / ₩56,000(1세트)

몰·부다피아 쇼핑몰 주문방법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mall.buddhapia.co.kr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나'를 찾으려 말고 그냥 놓으세요

나 이끄는 선장
나한테 있으니
놓는 작업 자꾸하면
주인공자리 잡혀요


그림 · 최주현

조건없이 보시하면 조건없이 받게돼요
둘 아니게 놓는 도리가 육바라밀 정진

여러분과 또 한자리를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늘 주인공(主人空)을 말하는데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자체가 공(空)자가 '빌 공(空)' 자죠? 그럼 '주인공' 할 때에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다도 없고 있다도 없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 볼 때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까, 있다는 생각이 듭니까?

만약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주인공이라는 이름도 다 없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비었어도, 비록 허공이라 할지라도 찬 거나 뜨거운 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아주 면밀하게 크고 작은 것, 짜고 싱거운 것 또는 사계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있다는 생각 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렇습니다. 없다는 생각이라든가 있다는 생각이 다 동일합니다. 그 생각 자체가 나는 것이 바로 그 생각 속에서 수없는 생각을 해내고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때와 용도에 따라 그냥 나오는 거요. 신기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아무 생각이 없다가도 그냥 용도가 닥치면, 예를 들어서 '여보!' 하고 부르든가 '아버지!' 하고 부르든가 한다면 아주 여여하게 해내는 거, 찰나찰나 해내는 마음 그 자체가 바로 우주를 살림할 수도 있다 이런 소립니다.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살아나갈 때에 한다 안 한다 생각을 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죠? 한다 안한다 생각없이 삽니다. 그러다 닥치면 그냥 닥치는대로 받아들이고 넉넉하게 해냅니다. '아버지' 하면 아버지 노릇하고 '얘 아무개야' 하고 부르면 친구로서 여여하게 해내고 아주 치밀하게 거기서 그냥 그 상대방의 용도를 보고서는 그 사람의 과정을 벌써 익힌 사람이라 그냥 그냥 여여하게 나오죠.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나를 내가 찾는다 또는 내가 나를 찾아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나를 찾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의 그림자를 두개를 놓고 하나는 찾고 하나는 찾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찾는다'가 아니라 그냥 '놔라' 이랬습니다. 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런 예가 있었죠. 예전에 내가 나이 참 스물 안쪽이었을 때 백련사를 지나가는데 묘지 두 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다리가 아파서 좀 쉬느라고 턱 앉으니까 하는 소리가 '저 묘지가 둘인데 하나는 아들 거고 하나는 애비 거니라. 그런데 애비가 아들한테 가면 자식으로 하나가 되고 자식이 애비한테로 가면 애비로 하나가 되니 무슨 연고냐?'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도저히 생각이 나지를 않았습니다. 보이는 데만 집착을 하고 보이는 데서만 습이 많이 젖었기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한참이나 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해결을 못하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다가 아차 하고 생각난 게 뭐냐 하면 체가 없는 거를 생각했습니다. 저건 체가 없이 죽었지 않느냐. 살아있는 나도 만약에 마음이라면, 영이라면 체가 없을 거 아니냐. 그럼 뭐 둘 셋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아, 그렇지, 영이 영한테 들어가면 영이지 뭐 별 수 있나. 또 이쪽으로 와도 영이 영이니까 그냥 하나로 되지, 나중에 세밀히 따지고 보면 영이란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거지.' 하구서 생각을 하니까 다리가 뚝 떨어져서 그냥 일어났어요.

그럼과 같이 만불(萬佛)이 일불(一佛)이다 하는 뜻이 뭡니까. 만 사람이 깨우쳐서 만 개의 영이 있어도 한 개의 영에 들어가면 그냥 일불로 되는 겁니다. 굳이 말을 할려니까 일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다, 불성이다, 불국토다 하는 이유는 뭐냐? 불이라는 것은 생명을 뜻합니다. 생명! 생명의 근본을 불이라고 한다면 어디나 불이 들어가죠. 불교도 불이 들어가고 불국토도 불이 들어가고 불성도 불이 들어가고 이 셋이 다 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셋이 한데 합쳐도 셋이 아니란 얘기죠. 생명의 본질이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나를 찾을려고 하지 마라, 왜냐? 말하는 놈도 보는 놈도 듣는 놈도 바로 그놈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찾을려고 하지 말고 그걸 몰입해서 오로지 놓아라 이런 거죠. 오로지 거기에다 몰입해서 놓아라. 놓는 작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들고나는 것이 그대로 여여해서 들고남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닌 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하면 그대로 아버지 역할을 해낸단 말입니다. 스스로 들어와서 스스로 또 내죠. 그게 여여하게 작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반야심경〉에도 '고정됨이 없이'라고 풀이를 해놨죠.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라고 한 까닭도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말하는 것, 가고 오는 것, 만나는 것, 차를 타는 것, 시발점이 종점이고 종점이 시발점인 것 등.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는 자체가 바로 그대로 한군데서 아니 한군데라고도 할 수 없는 데서, 쥘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데서 그 많은 모두가 나오고 자동적으로 여여하게 나고 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깨우쳤든 안 깨우쳤든 우리가 이렇게 찰나찰나 보면 보는대로 들으면 듣는대로 가버리죠. 찰나찰나 가버리고 또 들게 되고 찰나에 가버리고 또 보게 되고, '여보!' 하면 남편이 돼서 돌아가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돼서 돌아가고 '얘, 아무개야!' 하면 또 아들이 되고 이렇게 자꾸자꾸 돌아가듯 말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공했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찰나찰나 가고 공해서 없으니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우리가 찰나찰나 쉬지 않고 돌아갈 뿐이지 함이 없이 그냥 공해버렸다. 그래서 각자 여러분들이 모두 공해서 함이 없이 하고 있고 삶이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탤런트가 죽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여여하게 하는 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죽는 역할을 해도 그 역할만 끝나면 자기는 살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략 알고 있으리라고 믿으면서도 또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자리를 잡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리를 잡고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놓고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상당히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실천하는 것이 그대로 뛰는 거며 그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알아지는 거죠.

나를 이끌어가는 선장은 바로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선장과 내가 상봉을 해야만 자리가 잡히는데 자리가 잡히기 전에 놓는 작업을 자꾸 해야만 완벽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게 되죠. 조그만 거든 큰 거든 실천에 옮기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어쩌다 한번 실천을 하게 되고 또 어쩌다 한번 느끼게 되고 그렇게 차차차차 하다보면 문이 활짝 열리게끔 돼 있거든요.

불가에서는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계를 받으셨죠. 오계를 받는 도중에 육바라밀의 뜻이 다 거기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둘 아니게 이 마음 하나로서 일체가 다 담겨있으나 담겨있지 않고 비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보살행은 어떤 거고 무주상 보시라는 건 뭐고 또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건 무엇인가 이겁니다. 꼭 큰 것을 보시를 해서만이 보시가 아니라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막론하고 하다못해 사탕 하나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건 보시가 되는 수가 있고 진짜 무주상 보시가 되는 수도 있고 보살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큰 돈을 보시를 했다 이래도 무주상 보시가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보살행이 안되는가. 준 것만 생각하지 가져간 건 생각을 안하기 때문예요. 여북하면 제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가게 가서 물건을 사면 돈을 주고 물건을 사 온 거지 내가 가게에 돈을 줬다고 말하겠느냐고. 이것도 배우는 과정에 쓰는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글에 얽매여 실상을 못보면 덫에 걸린 것

부처님께서는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라."고 하셨다. 이 세상에는 강을 건너신 분들의 뗏목, 즉 가르침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지만 그 뗏목들은 강 이쪽의 것이 아니라 강 저쪽의 것이다. 손짓을 해서 부른다고 건너편 뗏목이 내 앞으로 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뗏목을 스스로 만들어 건너야 한다. 나의 뗏목이란 무엇인가. 내 참 마음이 나의 뗏목이다. 모든 것을 나의 근본에다 맡기고 가는 것이 나의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는 것이다.

경을 보되 그 경에서 참뜻을 놓치는 사람은 마치 창 밖의 꽃을 보고 유리에 머리를 부딪치다 죽는 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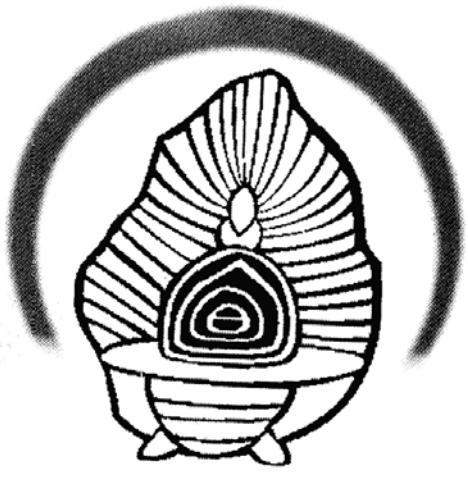
말에는 한계가 있다. 글에도 한계가 있다. 우선 바로 알지 못하기 쉽고, 설사 바로 안다고 해도 사물의 이치는 너무 세세하므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을 들되 마음으로 들어야만 한다. 비유하자면 경을 읽는다는 것은 나무의 잎새를 세는 것과 같고 경배한다고 함은 나뭇가지를 만지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는 잎새와 가지를 말씀하심으로써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셨다. 고로 뿌리에 물을 주어야 한다. 뿌리가 아니라면 나무는 죽는다. 꽃 피고 열매 맺는 도리도 뿌리에 있다. 일심으로 뿌리에 물을 주어야 한다.

금강경을 달달 외웠다 해도 무위법의 뜻을 모르면 글자만 보고 따른 것이지 부처님의 참뜻을 따른 게 아니다. 불교는 행이다. 경 · 율 · 론 삼장이 모두 행을 위한 설명인 것이다.

팔만 대장경을 모두 다 배우려면 재능 있는 사람도 20년이나 30년쯤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인생은 짧다. 고로 곧바로 마음 닦아라 하는 것이다.

주장자가 서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을 때는 경전을 보되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등을 보아라. 내 마음을 바로 밝혀 역력하게 나를 보았다면 옛 성현들이 말해 놓은 가르침의 방편을 참고해도 된다. 경으로 보되 보지 않고 경을 보지 않되 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이다. 내면 세계의 참 자기를 알고 보아야 경전을 보더라도 글과 백지를 둘 아니게 거머쥐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올바로 안다면 과거에 선조들이 그렇게 많은 방편과 설법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부처라는 이름조차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알지 못하니까 설법도 하고 염불도 있어야 하고 촛불도 밝혀야 했다. 현재도 그러한 방편 법을 다 따르는 게 예의로 되어 있지만 그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비단이 개발되어 진작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무명 짜는 방법을 고집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요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불의 길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방편을 덧붙여 짐이 되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로케트 타고 날으는 세상에 차도없어서 걸어가던 그때의 그 걸어간 얘기를 계속해야 할 것인가.



팔만 대장경에 문자로 기록되어 있어서 진리가 아니다. 병풍 둘러치듯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팔만 대장경의 근본이자 진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돌아가는 실상 속에서 즉설이 되어야 하고 즉행(卽行)이 되어야만 즉여(卽如)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말 한마디 인도하기가 쉽지 않다. 스스로 실상 속에서 터득을 해야 자신이 들어가 본 곳에 남도 끌고 들어갈 수 있듯이 피안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자신이 물의 깊이를 알지 못했을 때는 고작해야 시늉만 내는 길잡이가 될 뿐이다.

경전이란 이 세계를 말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경전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경전을 보느라고 실상을 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예전의 선사 중에는 수좌들에게 처음에는 오히려 경전을 보지 못하게 하신 분도 있었다. 경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면 경전 벌레밖에 될 게 없다.

억대 부처님들이 방편으로서 수많은 말의 덫을 놓았지만 그렇게 가르치고자 한 뜻을 가벼이 볼 수는 없다. 혼히들 길핥기에 치우쳐서 '본래 공인데 있기는 뭐가 있으며 불을 데가 어디 있느냐' 하지만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으로 그것을 느낀 사람이라야만이 서슴없이 그렇게 할 수 있지, 느끼지 못한 사람이 흉내나 낸다면 그 업은 수억겁을 거쳐도 벗기 어렵다. 그러기에 나로부터 상구보리 하화중생해야 한다. 내 몸 속에 있는 그 의식, 마음들을 한마음으로 뭉쳐서 요리한다면 그때에 바깥으로 남을 유익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협찬 : 주인공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크든 작든 자꾸 실천하다 보면 문 열려

☞ 15면에서 계속

말이고 그래도 다 배워서 자리를 잡고 넘어간다 이런다면 조건없는 무주상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조건없이 무주상으로 해라 이런다면 힘이 듭니다. 물론 알면 힘이 들지 않지만 말입니다.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렇게 진화되고 형성돼서 벌어진 생명들인데, 부처님께서는 일대사의 인연으로서 그것을 다 아셨기 대문에 뼈무더기 하나로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어떻게 짐작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으니 모든 게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작년이 있고 올해가 있다. 또 네 자식 내 자식 네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이 고정됨이 없다. 자기 차원대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금은 금대로 금방에 가고 넝마는 넝마대로 넝마전에 가고 이렇게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다는 말을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가 그러하니깐 얘깁니다.

또 지계가 있죠. 왜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지킨다고 하는가. 지킨다 하면서 못 지키는 것은 단 오계도 제대로 못 지킨다 이겁니다. 그런데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다 놓고 거기서 욕심과 집착과 관습 이런 거를 다 놓아버리게 된다면 그냥 놓고 우리가 가지 않습니까. 놓고 가는 도중에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그냥 계율을 지키는 거죠, 그냥. 다 그냥! 다 계율을 지키는 거죠. 계율 안 지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바닷물과 같고 허공과 같이 돼라. 그러면 어떤 게 있어도 그 허공을 싸고 돌아가고 고름물, 핏물, 구정물, 흙탕물 등 온갖 물이 다 들어가도 그것이 한 바다의 물로 다 짠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도 우리가 억지로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탐심도 없고 집착도 없고 또는 남을 모함하지도 않고 둘로 보지 않고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오계를 받은 여러분처럼 그 오계가 다 공심으로서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계율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게 없이 되죠.

내마음이 둘아니게 푸근하면
몸속 의식도 둘아니게 푸근해서
싸움도 없고 건강하고 편안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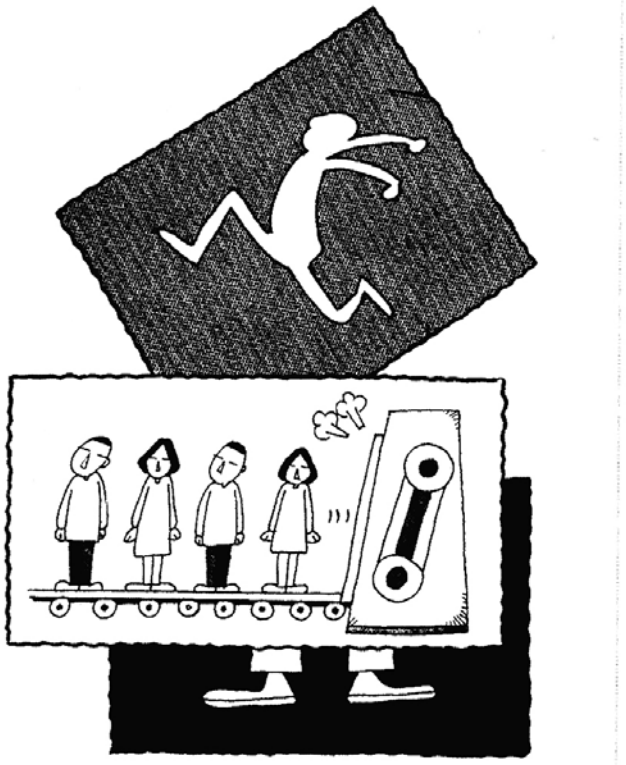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것, 끼리끼리 이렇게 차원대로 만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에 물건 놓은 것을 봐도 끼리끼리 놨지 절대로 섞어 놓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기사 여러분이 법정에 가서 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자기 기술대로 자기가 하는 것대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마련이거든요. 그런것과 같이 우리 사는 것도 벌어졌다 오므라졌다 벌어졌다 이렇게 세상이 막 돌아갔는데 그것을 잘 따져서 보면 내 아님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법당에 보시를 한다 할 때도 꼭 자식이 잘 되거나 남편이 잘 되거나 부인이 잘 되거나 우리 가정이 잘 되겠지 하는 깔린 요구가 있습니다. 꼭이요. 그냥 무주상으로 했으면 자기도 무주상으로 100% 받을 것을 그 깔린 것 때문에 다 못 받아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둘이 아닌 고로 나는 내 주인공 자불 자부처님한테 올린다 이런다면 자기한테 자기가 올려서 자기 밥 자기가 먹는데 그걸 뭐 보시했다 뭐 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를 진정으로 믿으니까 자기한테 자기가 하는데 무슨 보시가 되고 뭐가 불겠습니까. 무조건이지, 그게.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면 조건없이 한 것처럼 조건없이 받을텐데도 불구하고 항상 요구 조건이 붙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건대로 붙은 것만큼 덜 받게 되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 한생각 때문에 그만큼 떼어놓고 받게 되니 말입니다. 그러니 한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한생각이 우주 법계를 움죽거리게 하고 그 한생각이 바로 세상을 움죽거리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보이는 몸체를 가지고 살아있지만 보이지 않는데서 살아있는 여러분도 많으니까 말입니다.

간략하게 말한다면 '보시' 그러면 공심으로써 보시를 해야만 합니다. 공심으로써 보시를 해야만 그건 보살행이요, 무주상 보시요, 조건없는 보시다 이겁니다. '공생' 하는 뜻은 모두 내 아픔과 내 생명인 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또 내 마음과 둘 아니다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는 그 속에는 아픔도 찢기는 마음도 다 담긴 것이 내 한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 속에 내 한마음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를 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자 무주상보시자 조건없는 보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께도 조건없이 갈 겁니다. 그건 둘째 쳐놓고도 벌써 이 우주간 법계에서 전부 알게 돼요. 날아다니는 새들도 알게 되는 도리가 되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없는 것도 한 세계이기 때문에 각자 모두는 한 세계를 가지고 있는 왕이어요, 왕! 그래서 자불이라는 거죠. 내 자불을 모르고는 외부의 모든 일체제불을 모른다는 얘기지. 내 자불을 모르는데 어떻게 일체제불을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육신통을 벗어나야 이 육신을 제 맘대로 굴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걸 통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오신통을 굴리려면 바로 오신통에서 벗어나서 누진까지 들어가야 굴릴 수 있는 거죠. 자유자재로 이 몸뚱이를 굴릴 수 있어야 이 공기주머니라고 하는 이 지구를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지구라는 건 뭐냐? 우리 인간을 새로 만드는 공장이다 이겁니다. 지구라는 혹성이 인간을 인간답게 차원높게 만드는 공장이다 이겁니다. 이 공장에서 지금껏 수억겁을 거치면서 돌았다 이거예요. 돌고 돌고 또 돌고, 그건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거지만 한마디로 하려면 이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계공장에서 말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내보냈는데 잘못 만들어져서 도로 그 공장으로 되돌아올 때 그 물건은 다시 불 속으로 넣어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육도윤회라 하면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하늘인간 이렇게 얘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중에서도 공장에서 아주 찌끄럭지 남는 거 이런 것이 즉 아귀 축생이라. 무쇠덩어리로 나가 부지깽이도 만들고 뭐 불 뚜껑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말입니다. 이렇게 아무 뚜껑이나 바깥에 놓고 써도 괜찮은 것, 이런 거 만드는 게 아귀 아니냐 이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고통, 이거 현실입니다. 입은 조그맣고 몸은 길고 크고 그런 것이 땅 속에서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상하게 오래 살지도 못하게 자꾸 죽여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생을 사는데 빨리 돌아가는 도중에 빨리 한생각 해라 이거야, 아귀를 벗어날려면. 허허. 왜 저 사람네들이 나를 자꾸 이렇게 죽이나, 우리를 몰살을 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고. 왜 하루 종일 먹어도 배가 고픈가. 그런데 배가 고프게 이렇게 사는 불쌍한 나를 왜 또 죽이나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냐구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다 가졌는데 생각을 못하는 거죠. 본래 누구나가 다 생각할 수 있게 불성은 다 돼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모자라고 모자라지 않는 이 차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사람 만드는 공장이지 뭐 다른 거 없어요. 중세계라는 것이 바로 사람 만드는 공장이더라고요. 그러니 천차만별로 모습을 해가지고 하세계로 떨어지느냐, 또 어떻게 상세계로 승진을 해서 올라가느냐 이 문제가 중세계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죠. 그리고 중간에서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중세계에서 그대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바퀴에 끄달려서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우리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중생들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우리 이외에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예요. 우리 눈앞에 바로 우리 발밑에 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둘로만 본다면 내가 뭣 때문에 저 사람네들로 인해서 자나깨나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그게 아니예요. 벌써 둘이 아닌 까닭에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아프면 약을 발라서라도 고쳐야 내가 편안하지 이거를 안 만져놓으면 아주 귀찮단 말예요. 아프고 귀찮고 그러니까 고쳐서 가는 거지 남이 불쌍해서 건지려고 또 아주 좋은 선지식이 돼서 그러는 게 아니요. 착하고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아프니까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뿐이라구요. 이게 둘이 아니게 돌아간다는 그 사실만 알아도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니 보시를 많이 하고 착하게 마음을 써서 보살행을 한다 부처가 된다 이게 아니고 알고 본다면 즉 모두가 나 아님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올 때 미생물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었습니다. 자꾸자꾸 진화돼서 인간까지 올라와서 보니까 오늘의 내 부모만 있는 게 아니라 어저께 내 부모도 내 부모요 오늘의 내 부모도 내 부모요 이건 내 부모 아닌 게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없더라 이 얘깁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식의 묘로 가면 자식으로 하나가 되고 부모의 묘로 가면 부모로 하나가 되는데 그건 무슨 까닭에 그런 거냐? 하고 물었듯이 우리가 이 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축생을 만약에 수 만 마리를 사람들이 죽였다 할 때 때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네들이 건진 게 될 수도 있어요. 좋은 일예요. 살생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했다 이겁니다. 물고기가 수 만 마리가 잡혔는데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있어 이 도리를 안다면 그 수만의 갯수가 그렇게 많은데도 그걸 하나로다가 뭉쳐서 인간 하나로서 성립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네들이 무주상 보시를 한 거고 또 그 고기들이 내 아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 하나로 합치는 거죠. 그 고기는 사람처럼 인과의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영이 수 만 개라도 내 이 마음에 다 넣으면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도 없는데도 그걸 다 알게 돼요. 내가 안 겼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로 그냥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익이 되겠습니까. 제가끔들 고생할 게 하나로 되니 말입니다.

천도라는 것도 꼭 법당 안에서만 천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길을 가다 오다가도 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원주에 있을 때 산에서 내려와서 목욕을 하고 막 나오는데 보살이 있다 하는 소리가 "저 마당 좀 보세요." 그래요. 목욕탕 뒤에 방앗간이 있었는데 그 집 마당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넓은 마당에 그 집 작은 며느리가 미쳐서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작은 며느리가 미쳤으니 어떡하면 좋으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리 듣는 순간 거기서 그대로 천도를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났든 잘났든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까 내탓이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업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니 내가 전자에 어떤 업을 지어서 이렇게 애를 쓴다 이런 생각도 마셔야 합니다. 업이라는 것이 잘못해서 업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가 업예요. 그냥, 업적이란 얘깁니다. 그건 이름일 뿐이죠. 우리가 살아나가는 게 그냥 업적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30년을 다닌 업적이 있다거나 농사를 30년 지은 업적이 있다 또는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업적이 있다 이런 업적이요. 그걸 죄로서 업적이라는 게 아니고 살아나가는 게 그냥 업적입니다. 우리가 70년 사는 동안에 업적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업적이란 것조차도 없어요. 왜냐? 여러분이 공해서 없거든요. 내가 없는데 뭐가 거기 업적이 있고 업이 붙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공해서 없다는 것. 그러면 그 없다는 이유는 뭔가. 찰나찰나 공해서 자꾸 도망가고 묶여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했다는 겁니다. 함이 없이 하고 있고 사는 게 없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내가 탤런트처럼 역할을 하고 이렇게 있다, 한철 이렇게 살다가 막이 내리면 다시금 또 다른 역을 맡게 된다. 그러니까 그것을 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죄라고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없는데 내가 한 업이 뭐 있고 내가 없는데 한 게 뭐 있고 할 거는 뭐 있고 또 했다고 할 거는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공해서 나한테 자동적인 컴퓨터가 있어서 모든 걸 거기다가 놓고 입력을 하면 앞서의 입력은 다 없어집니다. 즉 그릇은 항상 넣어도 넣어도 비어서 돌아간다 이런 뜻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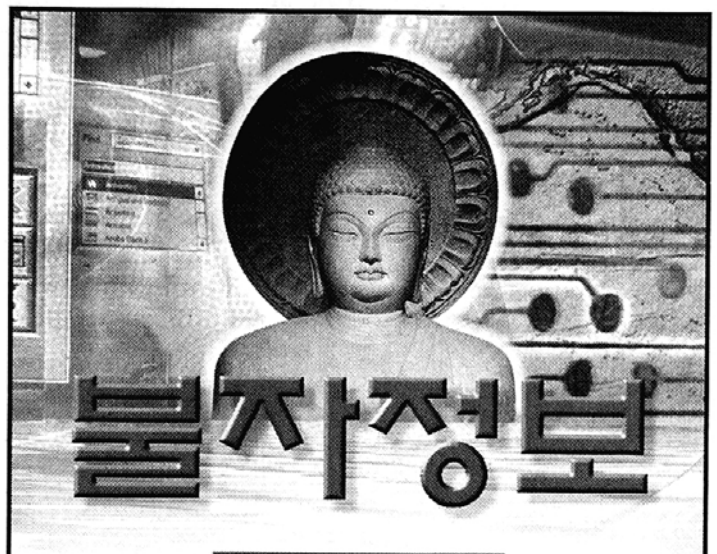
두서없이 말을 했지만 진정코 실천을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상세계로
오르느냐
하세계로
떨어지느냐
중세계의
살림살이에
달려있어

탐심·집착 놓고살면 계율 저절로 지켜져
사는게 업이지만 내가 공하면 업도 없어

※위 법문은 1999년 6월 6일 법형제회 정기 법회때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협찬 한마음선원 신도회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누구나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2cm (1회 2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 생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2)1166-3858

강좌

사주명리학 교육강좌
1 기초과정 : 3개월
2 중고급(통변) : 3개월
3 저서 : 쉽게 푼 역학 / 말하는 역학
통변술 해법 / 천직외 다수
김봉준이 직강합니다.
02)2275-5607-8
서울 중구 충무로3가 34-4(영화빌딩 403호)
김봉준 역학원

최면-견성지도 수련테프 판매!!
1.생물 = 생명(?+기록물)+물질(육체)
(1).?; 자유자율성, 不生不滅, 능동, 無形, 무게부피無
(2).기록물(업); 경향(습관)성, 有生不滅, 有形, 무게부피無
(3).물질(육체); 법칙성, 부자유, 수동타율, 生滅, 有形, 무게부피有
2.견성; 본래아 볼 수 없는 ?을?이 본다.
3.?을 보아 병과 운명을 고친다.
4.만성난치병/금연금주/
악습비만체질교정/학습력강화
박민수 참선 교육원 (062)251-2733 017)609-9068

전통불교 의식 연구원
02) 511-0108

구인

공양주 구함
숙식 가능한 분
02)877-7514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한라산
영실적멸보궁
011)639-8500
064)749-1414

구 직
50대 독신입니다
사찰에서 운전기사로 또는
야간 경비직으로 처사겸
일하고 싶습니다.
운전자격은 1종 대형면허이며
지방 사찰도 좋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사찰은 저렴한
보시로 봉사하겠습니다.
0351)826-1152
주간에 전화 받지 않으면
야간에 전화 주십시요

출판

◆『전등록』 전5권 드디어 완간 !



9년에 걸친 대장정 끝에
완간된 《전등록》.
기존의 번역과 달리 인가받은
명안종사인 대원 문재현 선사
께서 구구절 바른 법을 밝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책명을 《바로보인 전등록》
으로 고쳐서 출간합니다.
☎ 02-597-2460
도서출판 바로보인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수양·기도·공부·참선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月 숙식비 : 30만원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3
011)446-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불교용품

♣보 리 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 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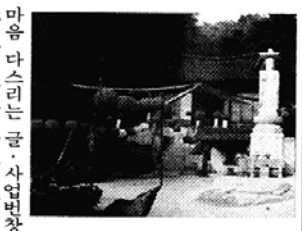
·기운보강 · 스트레스해소 · 노화방지
·면역성강화 · 질병예방 · 순환기장애에…
녹옥
내체의학적 자연치유 !
난치병 치료에 신비 !
준천 王山家® (02)777-0105

달·마·보·급·처
0346)575-2323



수맥차단
차량운행
이사,삼재
3회의 불보살님 견불후 불교미술탱화
입문 12년<관음보살도 보급중>

天書 인연불자 보급
마음 다스리는 글·사업번창 이루고 고민 다스리는 글·화두 불수 있는 글·불법 이루는 글



미덕사 0441)852-8990

간 병 인
교육받은 전문간병인 항상 대기로
유료 간병 서비스는
물론 무의탁 노인 등에게
무료로 간병 자원봉사
전 화 : 02)363-7884
팩 스 : 02)364-7884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 무료직업소개소

전통 불교 의식 모집
관음시식 도량게
복청게 초게향
◆교육기간 ◆
3개월(개인지도 가능)
전통불교의식 연구원
0351)865-4893
011)661-9119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항상 피곤하신 분
술을 자주 드시는 분
간염, 당뇨병, 고혈압, 체질개선
정력증강, 손발냉증, 변비, 요통등…
■가격: 분말 230g 39,000원
환 250g 45,000원
동양물산(주)
02)832-0742011)381-8157

불자가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대리점
"믿고 맡겨 주십시오."
대구 진전점 대표
원응 곽 영 순 합장
053)639-1100
011)509-9456

귀 달마스님
◆사주 : 대운·행운·신수
◆작명 : 출세 문자 비법
◆관상 : 빈부 귀천 학당
◆풍수 : 자손 창성 번영
◆부적 : 발원 소원 성취
남녀 선착순 10명 철학특별지도
▶상담 시간 : 평 일 10:30 ~ 17:00
(일요일 휴무) 토요일 10:30 ~ 15:00
02)999-5551
02)928-5551 달마사

제주 (땅)전문컨설팅
저희 가람공사에서는 불자님들의
안락한 노후를 위하여 투자가치가
높은 제주 전지역 임야, 준농림지,
과수원, 전원주택, 기타 물건을 몸보시
하는 마음으로 성심껏 상담및 전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물건 다량확보)
가람공사 공인중개 사무소
전화 02)488-4304
H.P : 011)9002-2404

사 람 을 찾 습 니 다.



◆ 성명: 경순이 ◆
용국사 주지스님을 친견하여
법문을 들으니, 당신의 모든문제
는 당신의 의지와 관계 없이 이
루어졌음을 알았기에 하루속히
돌아와서 스님과 상의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합시다.
(051)781-9578(용국주지스님)
051)632-3438 / 051)803-5450

사찰안내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 경남 김해 근교
◆부지 : 약1700평
◆법당 법당40평(주3포 목조, 단청필)
◆요사 약25평 ◆가액 답사후 결정
◆ 특징 대작불사가 가능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절반의 가액으로 양도하고자 하오니 정법대로 운영하실 스님께서는 연락바랍니다.
해동불사 이처사 합장
02)389-7880/ 019)390-6110

불사 종합안내
◆전국에 소재한 사찰 매매 전세 안내
◆전국에 소재한 포교원 안내
◆전국에 소재한 사찰부지 안내
◆부전스님, 공양주, 의식 집전스님 가실분, 모실분 무상안내
※전국에 소재한 사찰, 포교원, 사찰부지 급히 구합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심정으로 성심히 상담에 응하겠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사찰을 양도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연락주시면 즉시 좋은인연 연결하여 드리겠습니다.
多寶佛事 02)3545-056 019)234-5506

사찰 (급) 안내
◇위치 : 충북 ◇부지 : 1,000평
◇법당 : 60평 ◇요사 : 80평
◇가액 : 1억 5천만원(급매)
◇부전스님, 공양주보살 소개
⊙ 전국 사찰·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723-4082
광진불사

포교당 안내
◆위치 : 경북 의성군 안계면 면소재지
◆대지48평, 방3, 주방(현대식 건물)
◆포교에 최적합한 지역임.
◆가액 : 3천 8백만원
0576)862-0329
011)9570-3533

사찰(급) 안내
◆ 위 치 : 경남 산청
◆ 부 지 : 약 2113평 건물5동(법당, 산신각, 요사채2동, 샘터, 창고, 목욕탕, 화장실 1동)
◆ 가 액 : 2억 5천만원(상담후 결정)
◆ 매매희망기간 : 올해 7~8월중순까지
◆ 특 징 : 그림같은 아담한 뒷산, 오염되지 않은 청정수가 마을앞을 흐르며 수질좋은 식수는 풍부하고 넓게 다듬은 도량은 좋은 수종으로 식수하여 접차 좋은 도량이 될 가능성을 지녔음.
◆절에까지 도로포장 및 주차장 있음.
◆답사후 결정
053)651-9363/0596)973-0305

사찰 안내
◆위 치 : 경기 이천 장호원
(서울 약1시간 거리)
◆ 대지 약 435평(건물5동), 대광전 27평 (사무실포함), 법전 요사 15평(법전 거실 1, 방 3), 요사 43평(방11 식당 화장실독립)
◆ 가 액 : 3억 5천
◆ 특 징 : 취락시가지 확정, 도면 열람가 (2개 대학과 약45만평 전자공단의 요충지), 신고속도 건설중(서울근린지역), 녹지푸른 산을 낀 청정도량(고시원운영)
0336)643-9051/012)925-6118

◆위 치 : 서울시내
◆대 지 : 210평
◆매매가 : 평당 300만원
◆입지특성 :
경관 뛰어난 명당터
011)244-2083
(매도자와 직접 상담)

법당 안내
◆ 위치: 성북구 보문동2가
◆ 5층 30평 법당, 방2, 식당, 화장실, 옥상, 신축건물
◆ 주차장 완비
◆ 가액: 전세 5천만원
월세 1천만원에 80만원
02)923-1844

연수원 및 사찰부지(급)
◆위치 : 경기도 홍천군 서면
◆특징 : 홍천강 유원지 및 대명리조트 10분거리
서울에서 40분거리, 숲속의 분지
약2500평(토목공사완료)
한라공인 0343)386-6444
중개사 016)212-0988

사찰 운영하실 분
◇위치: 부산
◇법당: 65평 ◇요사: 50평
◇부지: 4,200평
◇가액: 7억
●전국 포교당 및 사찰 다량보유
●사찰 양도 하실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안내
◆위치 : 충남 공주에서 15분거리
◆대지 : 500평
◆법당10평, 요사채30평, 종각
목욕탕, 화장실, 마당500평(잔디)
◆가액 : 1억 2천
◆특징 : 천연수, 산세수려
안대가 좋음(사정상 급매)
016)314-0108

사찰 안내
◆위치: 전북 군산 시내에서 15분 거리
◆ 법당 주산포 22평, 요사채 50평, 신축건물, 거실 大 1개, 방 4개, 목욕탕 3개, 부엌 20평, 다용도실 겸 창고 1, 태양열 온수기 한통 설치, 약수물 연꽃독 설치
◆대지 : 360평(대지 80평, 밭 172평)
◆등기필
◆가격 : 2억 9천(절충가능)
※ 절옆에 3층 지방문화재 석탑 있음.
0654)451-2410 / 011)671-5161

좋은 소식
서울에서 진정 조용하고 공기맑은 山밑 호젓한 단층주택, 창작활동이나 집필에 종사하시는 스님, 佛子님, 혹은 시골이나 山中에서 上京, 터전마련을 發期하시는 스님께 염가로 빌려드리고져 함.
◆마당이 넓고 뒷山 산책로에 옹달샘이 있고 앞 전망이 最高임.
◆환 2年 사시면 반드시 發福 所願成就 하실 명당터임.
※심사 숙고하셔서 꼭 하실분만 연락요망함
※국립 서울대가 車로 10분거리
▶대지70평, 건평24평(즉시 입주가)
016-344-3807(오후 3시~6시)
誓 극락정사 住持 드림.

사찰 (급) 안내
◆위치 : 대구시 수성구 파동
◆부지 : 60평
◆법당 13평, 산신각, 용왕당, 방 6칸
◆가액 : 1억 8천만원(가격절충)
053)768-5788
성불사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안락2동
◆평수 : 35평
◆가액 : 월세
(천만원에 35만원)
◆시설비 약간
051)531-2682
016)558-8753

사찰 (급) 안내
◆위치:경남 마산 하안 시내와 5분거리
◆법당 2층 40평, 1층 공양실, 기도실 40평 - 산신당, 향토 찜질방 1채, 아파트형 요사채 20평 1채, 대지 1천평, 330평 등기필, 시설완비 A급, 일체시설 무료보시
◆가액 : 3억(답사후 결정)
011)559-9651/0551)286-0432

사찰 안내
◆ 위치 : 대구 달성
◆ 스님 이민 관계로 급히 양도
◆ 신도 다수, 비구니스님 환영, 도심지의 유일한 암자
◆가액 : 권리금 4천만원
(보증금 없음)
011)245-5467

포교당(급) 안내
◆위치 : 부천 중동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
◆구조: 법당 약55평,화장실, 스님방 大 1, 사무실 1, 상담실 1, 공양칸 옥상사용(약 20평) 가능
◆5층건물에 5층(70평), 법회가능
◆법당 및 모든시설 특A급
◆보증금 1천만원, 시설비(절충가)
017)391-2826

사찰 안내
◆위치 : 경남 하동군
◆대지300평,법당21평,요사채21평, 창고7평,주방5평,화장실
◆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신개발지
◆절건축년도 5년전
0595)883-2448

사찰 안내
◆위치 : 경북 영덕군 축산면
부곡 1리 75번지
◆준농림지 : 1,800평(대지200평)
◆건물 : 25평
◆가액 : 1억
0564)733-5366
011)655-3883

사찰 안내
◆ 군산월명공원내
◆ 법당 20평
◆ 요사채 38평
◆ 최저가 가격절충
◆ 급한사정으로 전세가함
0613)337-4020 011)579-9865

포교원 안내
◆ 나주정자교 유원지내
◆ 2층 법당 38평
◆ 1층 요사채 45평
◆ 급한사정 전세가함
◆ 최저가 가격절충
0613)337-4020 011)579-9865

포교원 안내
◆ 2층 42평
◆ 전세 4천, 월세가함
◆ 비품대 있음
062)232-2851
011)633-2851

사찰 안내
◆ 의치 : 강원 도계읍내 소재
◆ 부지 825평, 법당 20평
요사 60평
◆가액 : 2억 3천만원
※ 전국에 사찰 양도 약속하신 날 찾습니다
※ 상담 내용 절대 보안유지
※ 가장 신속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인연 02)561-7020
018)273-9390

사찰 안내
◆위치 : 서울시내
◆부지 : 약400평(국)
◆법당 20평, 요사 30평
◆오백나한불사중
좋은인연 02)561-7020
018)273-9390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소재
◆ 부지 약 3500평, 법당 40평, 요사40평
◆산세계곡 좋음.
◆가액 : 답사후 협의
좋은인연 02)561-7020
018)273-9390

절터 안내
◆위치 : 충북 진천군 만승면
월성리 산6번지 (광혜원 소재)
◆대지: 약5500평
◆가액:급매 평당2만원
※충북 음성 톨게이트에서 약3분거리
※서울에서 광혜원까지 중부고속도로로 거리가 약1시간 정도 소요
※주차 입주 가능
02)521-3389

포교당 안내
◆위치 : 부산 최고요지
◆평수 40평
◆법당, 청동삼존불, 공양실,방2개, 에어콘, 후불탱화, 시설 최고,
◆옥상40평 사용 가능
◆보증금 3000만원 (월200만원)
◆시설비 약간 있음
051)293-0137
016)558-8753
※꼭 하실 분만 연락바랍니다

절 터 안 내
마산시 회원구 회성동 122-2번지 성원정사 주지 박수암
◆ 수마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건너편 ◆부지 450평 이상
◆ 주차장 무제한완비 법당35평 ◆목조건물 금단청필(3포 5포)
◆ 요사채80평 방8개 주방2개 지하20평, 명부전10평 단청필 주지실 12평
◆ 건물 완공온 3년 시설일체 무상기증 마산시내에서 개인사찰로는 규모가 가장 큰 도량, 스님 병안으로 매입코자 하오니 인연을 다 할 스님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합니다.
◆총 공사비가 12억을 들었습니다. ◆장난전화 사절
0551)294-4889 / 011)885-2876

불자 세상보기

생활정보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급

생활 정부는 내년부터 76만6천 여명에 달하는 자활보호자에게 최저생계비수준(1인당 월 23만4천원)의 소득을 보장키로 하고 이들의 실제소득과 최저생계비와의 차액을 재정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와함께 근로능력을 상실한 거택보호자(33만여명)에 대해서도 주거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대문 개조 주차장에 시설비

서울시는 9월부터 서울에서 대문이나 담을 개조해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정에 시와 구가 최대 150만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주차면 1구획(승용차 1대 넓이)을 설치하는 경우 △담을 개조하면 100만원 △대문개조시 120만원 △이웃간 경계담을 철거한 뒤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면 150만원의 보조금을 받게된다.

녹차잎 쓰레기악취 제거

생활상식 장마철을 쾌적하게 보내는 생활상식. △카펫과 같은 섬유류는 햇볕에 말린다 △쓰레기통 악취는 녹차잎이나 커피찌꺼기를 함께 버리면 사라진다. △빨래에 핀 곰팡이는 햇빛에 내 놓아 살균한 뒤 표백제를 200배 가량 희석한 물에 담가 뒀다가 세탁한다.

서울대공원 자연학습교실

자연학습 여름방학을 맞아 과천 서울대공원 자연학습교실이 19일부터 8월20일까지 열린다. 동물과 식물, 곤충교실로 구분돼 운영되며 주말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1시30분~4시30분 두차례 열린다. 접수는 6일부터 18일까지. 어린이 1,500 어른 2,500원. (02)500-7530·7354

장기입원자 위한 병원학교

병원학교 서울대병원이 이달 중순부터 백혈병이나 암 등 2~3년 동안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를 위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병원학교'를 연다. 학습단위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로 나뉘며 유치부는 그리기 만들기 위주로 교육한다. 초등부는 학년별 학업지도와 미술 음악 컴퓨터 교육을 실시한다.

건강상품권 3종류 나온다

건강 일반인들이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 한약 등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건강상품권이 다음달 중순부터 나온다. 국민건강증진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이 상품권은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등 3종류로 발행되며, 건강상품권만 가지면 언제든 약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판매처는 전국 5천개 대형약국과 은행, 편의점 등이다.

식중독 · O-157 · 말라리아 · 일본뇌염 · 냉방병…

여름철 위생관리 '초비상'

여름철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로 식중독 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이상 늘었는가 하면, 최근 논산과 부산에 세균성 이질환자가 급증하는 등 그 증가추세가 작년의 3.7배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에는 올들어 처음으로 O-157 환자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일본뇌염과 비브리오패혈증 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됐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라졌다가 92년 다시 나타난 말라리아는 매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15년만에 제2법정 전염병인 공수병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하고 귀가했을 때 몸을 깨끗이 씻는 등의 개인위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음식물 보관을 철저히 하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O-157 및 식중독=음식물을 구입할 때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가급적이면 여러 손을 거친 조리된 음식이나 반가공식품의 구입을 피한다. 육류는 냉동이 잘돼 있는 것을 고르되 75도 이상에서 3분 이상 가열하고 조리전후에는 비누로 손을 씻고 깨끗한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냉장고 과신도 금물이다. 적어도 2주일에 한번 정도 세제·소독제를 이용해 청소한다. 국이나 찌개를 다시 데워먹을 때는 반드시 끓인 후 먹어야 한다. 식기 도마 칼 행주는 설거지할 때마다 뜨거운 물로 헹구고 수시로 삶거나 소독해 바짝 말려서 쓴다. 조리기구나 행주 등을 녹차에 헹구면 강력한 살균작용을 하며, 생선 어패류 등의 음식을 녹차에 한 번 헹군 후 냉장고에 두면 오랜 시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

▲뇌염·말라리아=우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염은 3~15세, 노인들에게 주로 발병한다.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최선. 발열, 구토, 언어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나면 즉각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대책을 세운다. 말라리아는 연령에 관계없이 발병하므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만 한다.

▲비브리오 피혈증=생선과 조개류 등의 해산물은 익혀먹어야 예방할 수 있다. 어물, 어구 등을 만져야 하는 어민들은 특히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냉방병=실내 기온을 26도 정도로 유지해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조절하고 1시간마다 한 번씩 에어컨을 끄고 환기를 시킨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틀틈이 외부의 바람을 쐬며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지난달 경기 파주에서 국내에서는 15년만에 공수병 환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광견병 예방백신 접종장면.

▲수인성 전염병=세균성 이질이나 콜레라 등은 음식물을 통해 급격히 전파되므로 반드시 익히고 끓여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방광반야경〉에 "보살은 깨끗함을 좋아하여 번뇌가 없으며, 의복이나 침대도 역시 깨끗하기에 병이 적다"는 말씀이 있다. 〈사분율〉에는 "비구는 깔개와 발 씻는 그릇, 발 닦는 수건, 물 담는 그릇에 이르기까지 모두 깨끗이 해야 한다"며 위생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태아 간세포 실험' 윤리성 논란

불교·기독교등 반대…유태교는 찬성

인간 태아의 간세포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각 종교계는 제각기 다른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불임 클리닉의 예비용 수정란과 낙태된 태아들을 이용해 진행하는 간세포 연구는 노화방지와 질병 치료의 소중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인간의 태아를 반드시 파괴해야 한다는 점이 바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수정되는 순간부터 태아를 인간으로 간주하는 가톨릭과 일부 개신교는 당연히 태아의 간세포 연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가톨릭·개신교 학자들은 찬성하는 주장도, 반대하는 주장도 모두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태아에게 아무런 도덕적 지위가 없다고 보고 있는 유태교는 오히려 의학적으로 이로운 연구라며 장려해야 할 일이라고 말한다.

한편 불교는 태아를 인간으로 여겨왔기때문에 이번 실험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입장이다. 익산신경정신과 박남진 원장은 "인간복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실험도 불교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아무리 훌륭한 취지의 실험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씨랜드 참사' 원인 부정부패

한국 부패도 96년 27위서 98년 43위

씨랜드 수련원 참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패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참사의 원인인 부실공사의 인허가를 지시한 화성군수와 이를 묵인한 비리공무원이 있었고, 청탁을 받고 건축법을 위반하며 부실시공을 한 악덕업자가 있었다. 또 이익만 남기면 된다는 씨랜드 관리부장이나 건물주와 같은 악덕업주도 있었고, 동숙자로 지정됐음에도 화재당시 술을 마시는 등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자격미달의 선생님도 부패구조에 한 몫을 했다.

하지만 이런 부패한 인간군상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업자들의 협박과 상사의 압력을 이겨냈던 '대쪽 여계장' 이장덕씨가 있었고, 화재참사시 자신의 몸을 던져 인솔해간 학생들을 구하고 숨진 화성군 마동초등학교 김영재 교사와 같은 참스승도 있었다.

국제투명성협회의 98년 국가청렴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98년 순위는 43위로, 96년 27위, 97년 34위에서 계속 순위가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촌 곳곳이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깨끗한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거꾸로 갈수록 부패도가 심각해진다니 세계화를 외치는 자체가 우습기 조차 하다.

제2, 제3의 이장덕씨·김영재 교사와 같은 자기직분에 충실하고 청렴한 사람들이 나와야만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다. 특히 '저만 잘났나' 라는 식으로 청렴 공직자를 '왕따' 시키는 사회분위기도 반드시 없애야할 우리사회의 병폐다.

시론

남북 문화교류



이 창 경
〈신구대학 출판미디어과 교수〉

온 국민을 긴장케 했던 서해상의 교전이나 금강산 관광객 억류, 북경의 총리급 회담 무산, 12일로 예정되었던 남북농구경기 무산 등 최근 남북간에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들은 남북간 체제의 차이, 이를 지탱하는 사고의 차이를 실감케 한다.

지난 5일 북한 음악가 동맹 중앙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조명암의 '알뜰한 당신' 등 500곡과 작사가 박영호의 '번지없는 주막' 등 108곡을 비롯한 가요 1천여곡을 남쪽에서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남조선 당국은 이에 대해 사죄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북한측의 주장은 현실성을 무시한 발언이다.

이런 주장은 분명 민족정서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문화대국으로 가기위해서는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저작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법적 문제이전에 양식의 문제다. 북한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세계저작권협약(UCC)이나 베른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지만, 저작권 설정의 기본정신이 개인의 창의정신을 높이 사고, 이를 고양하는데 있다면 법적인 문제를 떠나 창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적어도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는 우리가 취할 태도다.

> "북출판물 유입 증가 저작권 협의체 구성 상호 신뢰 쌓아야"

남북간의 저작권에 관련한 문제는 출판분야에서 더욱 심각하다.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제정 이후 1998년 9월 말까지 언론, 출판분야의 인적교류는 총 193건 승인에 41건이 성사되었다. 북한 저작물의 유입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어 현재 남한에 유통되었던 이념서적에서 벗어나, 국학 분야 원전이나 연구물이 일부 연구계층을 대상으로 국내 서점에서 시판되고 있다. 이들은 표지만을 바꾸거나, 아니면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쉽게 북한의 출판물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서로 다른 두 체제에서 50년을 넘게 수행해 온 연구결과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저작자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단복제 판매는 지양되어야 한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북한 간행 책들은 몇 년전만 하더라도 특수자료로 취급되어 일반인이 소지할 수 없었던 책들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수용하여 이념성이 약한 자료를 올 상반기중 일반자료로 풀 방침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북한과의 문제 외에 국내 출판사간의 경쟁도 가열될 수 있다.

1992년 북한에서 번역 출간한 '이조실록'을 국내 시판함에 있어 북한과의 출판권 설정 문제, 집단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 선정 문제, 북한 출판물의 개인 판매 가능성의 문제 등이 제기된 이래, 최근에는 북한과의 출판권 계약을 체결하고 'CD롬 고려사' 'CD롬 팔만대장경 해제' 'CD롬 발해사' 등을 간행하였다.

이들의 계약 절차는 신양에 있는 대행회사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고 한다. 문제는 무단으로 복제 출간한 서적에 있다. 가요 '알뜰한 당신'을 가지고 억지를 쓰고 있는데, 무단복제를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남북간, 또는 남한 출판업자간에 상호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 저작권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분쟁해결에 관한 공동 모색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념적 문제를 떠나 저작권 계약 체결 및 중개, 저작권 분쟁해결, 수출입 중개, 자료의 수집과 전시, 법규의 재정비, 인적 교류 및 공동 연구 등을 담당할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이보다 더욱 절실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도 어려운 마당에 저작권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성급한 생각일지 모르나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통한 남북한 문화교류는 분단의 벽을 허무는 상호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된다.

현실속의 불교를 지향하는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9년 봄 호

지상중계 혜거 스님과 떠나는 불교진리탐구 ❷
좌선(坐禪),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좌선의』를 교재로 좌선의 의미와 참선하는 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 좌선의에서 말하는 좌선하는 법

불교계진단 9 / 불교계 승·재가 인재양성불사의 현주소
흔히 말하는 불교의 인물부재. 결국 사람을 키우지 않은 업보라는 지적이다. 그 근본 원인과 승·재가의 인재양성불사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9 / '99건축문화의 해 특집
우리 옛 절의 건축체험 1
가보았어도 또다시 가보고싶은 절, 부석사.
부석사는 자연을 닮아 흐름이 살아움직이는 듯 느껴지는 도량이다.
젊은 건축가 류경수 씨와 함께 새롭게 음미해보는 부석사의 건축체험.

문화시평 / 불교교리의 현대적 해석
엘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이 불교의 중도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교리적 근거를 통해 소개한다
- 제3의 길과 불교의 中道

특집 / 희망의 상징, 이 시대의 미륵신앙
민중들의 삶의 희망으로 이 땅을 지켜온 우리의 민족신앙, 미륵.
그동안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하고 어렵고 불안한 이 시대에 정신적인 희망을 가져다주는 미륵신앙을 재조명한다.

21세기 불교정보화를 위한 과제
인터넷 불교사이트 만드는 법과 운용하는 법

인물포커스 / 한국불교의 거목을 찾아서 · 학술편
근·현대 재가불자들 중 각 분야별로 불교활동의 헌저한 업적을 남기고 타계한 선각자의 삶을 조명하여 재가불교운동의 당위성과 모범적인 불자상을 정립한다.
- 화엄학과 삼론연구의 대가 현곡 김잉석 박사
- 근대 한국불교학의 태두 포광 김영수 선생

우리시대의 匠人 / 불교문화를 빚는 사람들
우리의 고유한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젊은 장인들의 숨결을 느껴본다
- 전통 창호(창과 문) 장인, 심용식 씨

사찰과 자연생태 / 1 해우소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절집 화장실, 해우소(解憂所)
최근 환경미화를 이유로 사라져가는 해우소의 자연친화적인 구조와 형태를 소개한다

고전산책 / 백파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對論 4
백파 스님의 편지 - 김참판 정희에게 답함

특별기고 / 인각사 보각국사비 복원기

서평 - 허운 스님의 『참선요지』

불교계 주요일지(1998.12 - 1999.3)

불교관계논저 총합색인(1998.12 - 1999.3)

불교와문화 전화: 02-719-2606, 전송: 02-719-5052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불교 경전 번역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알기 쉬운
한문해석법

한문의 기초부터 허사에 이르기까지 한문해석을 위한 한문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총정리한 초보자를 위한 한문입문서. 〈반야심경〉을 문법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번역하였다.

심재동 저/신국판/383쪽/12,000원

무문관으로 배우는
선어록 읽는 법

선어록은 대부분 당송시대의 언어로 쓰여졌으며 그것도 선종 특유의 정신이 배어 있는 직설적 어법이 대부분이다. 이 책은 당송시대의 문화와 관습, 생활 등을 토대로 선어록 해석의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제공한다.

혜원 역/신국판양장/376쪽/15,000원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51 타운힐빌딩
전화 3672-7181~5 팩스 3672-7186
운 주 사

통신판매 이제 전화 한 통화로 집이나 사찰에서 편안히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땀방울에 인성교육 영글어요"

교계단체 · 복지관 각종 체험학습 프로그램 마련

'자비실천의 땀 흘리며 보람찬 여름방학을 보내자.'

여름방학을 맞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이 교계 청소년단체와 복지관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된다.

자원봉사활동이 교과성적과 함께 성적에 반영되면서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참여가 늘어나고 있지만, 막상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때로는 봉사를 위한 봉사활동이 청소년들을 실망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교계 단체와 복지관 등에서 운영되는 봉사현장을 찾는다면 그런 불안과 실망스러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 중앙사무국은 8월~10월 3회에 걸쳐 장애인과 함께하는 수영대회, 부모님과 함께 문화재보호 활동, 자연보호를 위한 산행 등 '자원봉사 한마당'을 실시한다.

대전지부에서는 대전지역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자원봉사체험학습'을 여름방학중 3회에 걸쳐 진행하며, 아산지부는 24일~26일 '이웃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캠프'를 마곡사 양지마을에서 연다. 논산지회는 27일~29일, 8월 3일~5일 2회에 걸쳐 논산일대서 장애체험, 환경보호 등 '신바람나는 우리들의 봉사마당'을 실시한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이사장 정련스님)도 지방의 지부 지회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충북지부와 충주지회가 30일~8월 2일 법주사수련회 기간동안 속리산과 법주사 일대 문화재 및 야영장정화활동을 전개하고, 경주지회는 25일~27일 열리는 불국사어린이수련회에서 보조교사로 자원봉사활동할 청소년을 선발한다.

올해는 특히 양로원 보육원 장애시설 등의 제한적 공간에서 벗어나 농촌, 어촌등 지역현장에서 함께하는 자원봉사와 자연 해안생태계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환경정화 봉사등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밖에 교계 복지관과 청소년회관에서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광동종합고, 청담종합고 등 종립학교에서는 수련회를 겸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지난 6월 청교련 중앙사무국의 '자원봉사한마당'에 참가한 청소년 불자들이 혜명양로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청소년 봉사활동 프로그램

단체	일정	내용	연락처
청교련 중앙	8,9,10월	장애인, 문화재, 자연보호	(02)735-8165
청교련 대전지부	여름방학중	자원봉사 체험학습	(042)488-0733
청교련 아산지부	24~26일	마곡사 양지마을 자원봉사	(0418)548-9316
청교련 인천지부	8/2	인천 승봉도 어촌봉사	(032)577-0266
청교련 제주지부	27~30일	청소년캠프 해안생태계 환경정화봉사	(064)725-0108
청교련 부여지회	7월말	요양원, 장애인시설 봉사	(0463)836-7373
청교련 논산지회	27~28일	장애체험, 환경보호	(0461)736-9003
청교련 해남지회	8월초	자원봉사 활동	(0634)533-1940
청교련 공주지부	매주 토·일	공공기관 보조, 자연환경 보호	(0416)858-3900
청교련 연기지회	수시	자원봉사	(0415)865-0113
파라미타 충북지부	30~8/2	법주사 수련회 문화재보호 자원봉사	(0431)258-3939
파라미타 경주지회	25~27일	어린이수련회 보조 자원봉사	(0561)774-9606
양정청소년회관	27~28일	자원봉사캠프 농촌일손돕기, 아동돌보기	(051)868-0950
목동청소년회관	여름방학중	자원봉사	(02)648-6815
광동종합고	20~22일	연합수련회 자원봉사	(0351)871-2111
청담종합고	여름방학중	양로원, 보육원 자원봉사	(0333)691-9100

명사들의 건강비결 ⑪



김 문 숙 〈부산여성의전화 회장〉

"자신이 하는 일에 열정을 갖돼 조바심 내지 않고, 여유롭게 스트레스 없이 일하는 것이 무더운 여름을 견뎌내는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부산 여성의 전화 김문숙회장(72).

성폭력·가정폭력피해상담소인 부산의 여성의 전화에서 매맞는 아내, 성폭력피해자 등 소외되고 고통받는 여성들의 고민을 일일이 들어주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일을 하고 있다. 상담활동외에도 그가 하는 일은 너무나 많다. 성폭력피해방지를 위한 세미나에 참가해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참고해야 하고, 각종 피해소송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고희를 넘긴 김회장이 이렇듯 왕성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토대는 바로 건강이다.

매일 아침 반야심경-금강경 독송 일에 열정 갖고 만보걷기 생활화

부산불교문인협회에서 수필가 시인으로 활동하던 젊은 시절부터 김회장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독송했고, 그 습은 지금까지 이어져 경전독송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또 일상생활속에서도 항상 음식을 적게먹으며 식욕을 스스로 조절하고, 나보다는 먼저 남을 생각하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자 노력한다. 부산 여성의 전화도 위기에 처한 여성들의 문제를 공업중생의 가르침속에서 풀어나가려는 불자로서의 투철한 자각에서 출발했다. 현재 상담원 15명, 상근자 5명이 김회장과 함께 활동하고 있다.

법 따로 현실 따로인 불평등한 우리사회 현실속에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여성의 문제를 접근해가는 상담일은 매우 중요하다는 김회장. 나날이 늘어나는 상담전화에 눈 코 뜰새없이 바쁘지만 그 속에서도 활동의 근간이 되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한다.

"요즘은 특별한 노력없이도 언제 어느 때나 할 수 있는 만보걷기를 한다"는 김회장은 "무더운 여름에는 잠시 틈을 내어 사찰수련회에 참가해 나태해진 자신을 돌아보고, 불교공부에 더욱 매진하는 것이 건강유지를 위한 비결"이라고 귀띔했다.

이은자 기자



◇시중에 선보이고 있는 티셔츠, 걸망, 열쇠고리등 팬시용품과 교재.

불교 팬시용품 사용하세요

캠프철 맞아 T셔츠 · 스티커등 다양

여름불교학교와 캠프, 수련회 등을 앞두고 어린이와 청소년불자들을 위한 세련되고, 다양한 종류의 불교팬시용품과 교재들이 선보이고 있다.

각종 수련회와 행사에서 가장 널리 애용되는 불교그림이 새겨진 티셔츠를 비롯, 합장주, 108염주, 다포, 기도포, 걸망, 열쇠고리, 손거울, 손수건, 스티커, 부채, 연필통, 책갈피, 벽걸이, 저금통, 인형, 노트, 연필깍기, 모자 등 어린이와 청소년불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귀엽고 예쁜 동자 캐릭터를 이용한 팬시용품들이 주종을 이룬다.

행사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전법카드, 칠교, 공기 등 전래놀이 교구와 자연놀이 교구, 여름불교학교교재, 전래놀이교재, 찬불동요테잎 등도 선보이고 있다. 목걸이 이름표, 출석스티커, 수료증, 수계증, 상장 등 여름불교학교 운영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용품 들도 판매한다.

이들 불교팬시용품은 길상원(02-722-4435), 견지불교사(02-739-3032), 두손모음(02-720-9071), 부다가야(051-865-4383), 동연마을(064-721-4005), 불교나라(02-733-0721), 관음손(02-720-1147) 등에서 만날 수 있다.

본사 부다피아 쇼핑몰(02-732-1522)에서도 연꽃지구촌, 나팔연꽃 그림의 불교티셔츠를 주문제작 판매한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051-808-4570)도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교재와 포스터를 발간했다. 〈연꽃〉지 7월호에 함께 실린 교재에는 기초 불교교리, 사찰습의, 불교동화, 찬불가, 사경, 그리기등 함께 배우고 활동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이밖에 소나무(02-732-1522)에서는 치약을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피스톤모양의 어린이용 아이디어 칫솔 '부처님이 좋아요'를 특허출원해 어린이불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자 기자

불교TV 볼거리 많은 채널로

19일부터 '태교이야기' '신행다큐' 등 10여개 신설

지난해 12월20일 이후 경영난으로 기존 프로를 활용한 재방송 체제에 들어갔던 불교TV가 6월21일 3개의 프로를 일부 개편한데 이어 19일부터 불교속의 태교 이야기, 휴먼 신행 다큐, 교계 소식 및 정보, 교리강좌 등 10개의 프로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태교를 시작하는 좋은 인연, 좋은 아이'(월, 07:30~08:00). 태교시집을 통해 잘 알려진 석성우스님(대구 파계사 주지)이 진행을 맡아 불교의 태교 사상과 태교법 등을 자세히 일러준다. 또 산모들을 위한 선체조와 태교 모범사례 등도 소개되며 태교중인 산모의 생활을 실제로 화면에 담아 생동감 있게 보여준다.

불교TV 최초로 6mm VJ시스템(1인 다역방식)을 도입하는 휴먼다큐 '우리시대의 생보살들'(토, 10:25~10:55)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꽃처럼 청초하게 보시행을 펼치고 살아가는 인물들을 발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재조명해 시청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 및 화제의 인물들을 소개해 불자들의 신선한 아침을 열어주는 생방송 '오늘은 좋은날, 화제의 현장과 사람들'(월~금, 10:25~10:55)도 마련된다. 또 불교 원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한문강좌 프로인 'TV 서당'(화, 07:30~08:00)과 천태종 교리와 사상의 맥을 짚어주는 '천태학강좌'(수~목, 07:30~08:00)도 새롭게 꾸며진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apia.com)

방송소식

BBS 생활상담실 인기 질병 · 법률등 고민상담

법률·행정·질병 등 실생활에서 한번쯤 부딪치게 될 고민과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불교방송이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3시5분부터 55분간 방송하는 'BBS 생활 상담실'(담당PD 김상준)이 바로 그것. '청취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방송하고 있는 이 프로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답변과 요일별 주제별 상담으로 진행된다.

불교방송 '깨달음 강좌' 뉴욕교포도 청취 가능

불교방송은 매일밤 11시5분에 방송해온 '현대인을 위한 깨달음의 강좌'를 청취자들의 요청에 따라 19일부터 10월16일까지 동시간대에 재편성해 방송키로 결정했다. 또 2일부터 현지시간으로 매일밤 12시 미국 뉴욕의 한인 방송인 '라디오 서울 AM 코리아'에서도 방송되고 있다.

한편 불교방송은 청취자와 함께하는 '회향 한마당 행사'를 23일 오후2시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단 신

군법당서 여름캠프

무진법장사(주지 법장)는 23일~25일 강원도 인제군 3군단 군법당 봉암사에서 신나는 어린이 여름캠프를 연다. 부처님이야기, 즐거운 물놀이, 탱크 및 땅굴 견학, 불꽃놀이 등으로 진행된다. (02)932-2333

청소년 매미학교 개설

법동종합사회복지관은 여름 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매미학교를 개설했다.

논술, 글쓰기, 동화구연, 단소교실 등의 교양 프로그램과 영어, 수학강좌도 진행한다. (042)633-1141

부산 파라미타 캠프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산지부(지부장 성오스님)는 25일~27일 밀양 동강중학교에서 '새 천년, 새 시대를 준비하는 청소년'을 주제로 부산지부 연합캠프를 실시한다. (051)817-2648

어린이 천자문 교실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부속 유치원은 22일~8월 20일까지 초등학생 1백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천자문교실을 개설한다. 매주 월~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90분간 진행된다. (0651)770-2535

청소년 순결지키기 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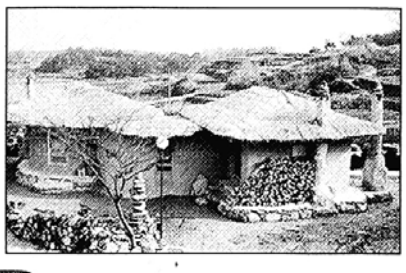
청담종합고등학교(교장 이근우)는 청소년들의 바르고 건전한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16일 청소년 순결다짐대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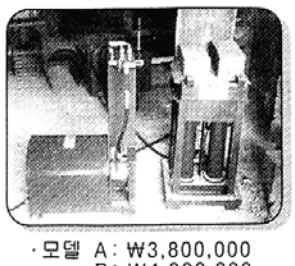
이 행사에는 재학생과 학부모, 교사등 2천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0333)691-9100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학계의 신간
해서 명리진평

혜서 신명리진평은 자평서(子平書), 적천수(適天殊), 궁통보감(窮通寶鑑), 명리정종(命理正宗), 잡론구결(雜論口訣), 추명가(推命歌)등 고서(古書) 전부를 하나로 묶어 알기쉽게 완성시켰습니다.

▸▸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이책을 출간하기 위해 필자는 오랜 연구노력끝에 5년간에 걸쳐 완성시켰습니다. 우리의 역학발전에 꼭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혜서 조 영 수 지음 신국판 양장본 값 30,000원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 전국 서점 판매중 ※ 승월스님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우리말 21C 최신판 대운만세력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여는 사람은 세월(철)을 알고 행해야 한다.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가로쓰기와 한글표기를 중심으로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새로 만들었습니다.



혜서 조 영 수 지음 4×6배판/값 15,000원 신국판/값 3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2. 21C 최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15,000원(大)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19000원(大)
3. 제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김백관 편저/정가 12,000원(大)
4. 명리학과 오운육기론 신국판/혜서 조영수 편저/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김백관 편저/정가 25,000원(大)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이선일 전호일 공저/정가 25,000원(大)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양정본/승월스님 지음/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양정본/백해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범무법사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범무법사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백풍 지음 /정가 17,000원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B/D 3층 T.921-8434 F.929-3470 관음출판사

신제품 걸망 CHUN HWA
◆ 특허청 ◆ 상표 등록출원 40-1999-0014193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 절에 갈땐 걸망을 매세요.



♣ 좋은점 6가지 ♣
- 때가 묻지 않습니다.
- 방수가 잘 됩니다.
- 八正道를 마크로 사용했습니다.
- 주머니 사용이 무척 편리합니다.
- 大, 小 구분으로 체형에 따라 사용 가능합니다.
- 안감은 心(자로 佛心을 담았습니다.

규격 : 大 가로 44cm 세로 48cm
小 가로 40cm 세로 38cm
가격 : 大 ₩33,000 小 ₩30,000
색상 : 회색

은행	온라인구좌	예금주	서울 · 경기 5개이상 주문하시면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농 협	061-17-001230	(주)천화무역	
우체국	013805-0068619		

※ 전화주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

※ 본 걸망은 小白山 金剛寺 (0572)636-6546 노스님 선방건립을 후원합니다.

노스님의 근심
- 늙은 것이 서럽습니다.
- 노후보장 되어야 수행, 포교 전념할 텐데
- 평생 수행에만 전념해온 스님들은 노후에 의탁할 곳이 없는데
- 문중도 사제도 돈도 없기 때문에 갈곳이 없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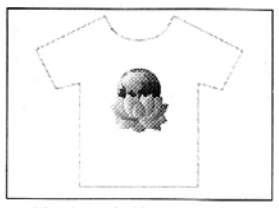
공급처 : 불자들의 모임 (주)천화무역 전화 : 02)449-8844 02)449-9100

주문전화
02-732-1522
대표전화 : 02-737-8881

붓다피아
http://mall.buddhapia.co.kr

부다피아 쇼핑몰 선정
여름 기획 상품 특판전

부다피아 티셔츠



■ 재질 순면 100% (20수)
■ 색상 흰색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 : ₩7,000

100장 이상 주문시 6,500원, 단체·사찰명 인쇄해 드립니다



연꽃 지구촌

다가올 21C 불국토를 염원하며 연꽃속에서 피어나는 지구촌을 형상화한 디자인



자비연꽃나팔

자비의 범음이 온 누리에 울려 퍼져 희망찬 미래를 나타내는 자비 연꽃 나팔

부다피아 쇼핑몰을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다피아 쇼핑몰이 제1회
우수사이버몰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인터넷 불교 백화점 부다피아 쇼핑몰이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쇼핑몰을 공급해 드리겠으며,
실제 생활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불교관련쇼핑몰을 개발함으로써
"생활속의 불법홍포"에
앞장 서겠습니다.

경상



사찰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찰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들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찰의 강원 · 스님 요사채 · 불자들의 경전읽기 · 자녀들의 학습

■ 크기 가로720×세로340×높이320(단위mm)
■ 재질 ASH(느릅나무)원진희목
■ 가격 : ₩85,000

옥베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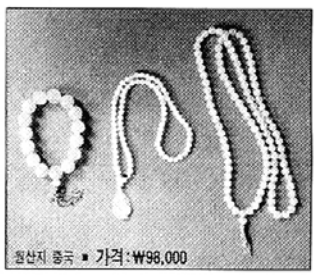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동의보감 신침(神枕) 비방 한방 베개란?
東醫寶鑑 神枕法에 의하면 고대 중국의 황제에게만 비밀 전승되어 온 신침은 여러 가지 한방 생약을 잘~무 한에 넣은 베개로서 "100일을 베면 얼굴에 광택이 나고 1년이면 체내에 모든 병이 개선되어 몸에서 향기가 나며, 백발이 검어지고 빠진이가 다시나며 이목(耳目)이 청명해진다." 라고 기록되어있습니다

이런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 과중한 업무, 생활스트레스 등으로 잠자리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짜증스럽거나 피곤한 당신에게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늘 머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당신에게 · 땀은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피면을 하고 싶은 수험생 안성두통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당신에게 목부위에 통증이나 어깨결림으로 늘 고생하는 당신에게 · 베개 높이는 수영과 직결 - 최적의 높이를 찾으시는 당신에게 · 피곤하거나 걸리는 신체부위를 시원하게 풀어줄 안마사가 필요하신분 · 코골이 방지에 여러번 실패하고 안전한 해결책을 찾기위해 고심하시분 코골이는 코고는 본인에게 더 위험합니다

■ 가격 : ₩30,000(1개),₩56,000(2개 한세트)

천연의 건강보석 수암옥 염주 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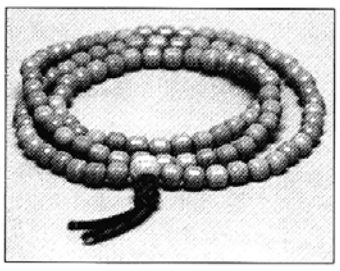
원산지 중국 ■ 가격:₩98,000

•수암옥의 특징

· 세계적 유명옥은 곤신옥(신강성),초산옥(호북,삼양),수암옥(요령성)이 대표적인데 그중 수암옥은 2300여년전 부터 내려와 그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한나라 이전부터 그 진가가 알려져 세계 최고의 옥으로 군림하고 있다. 특히 현재 북경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벽옥구패'가 수암옥으로 판명되고있다.

· 고려사 보우스님편을 참조하면 명나라 황제가 딸 노국공주를 고려 공민왕에게 시집보낼때 제일 귀중한 예물로 수암연옥으로 만든 옥대를 만들어 보내여 공민왕의 장수를 빌었다는 기록이있다.

생광석 108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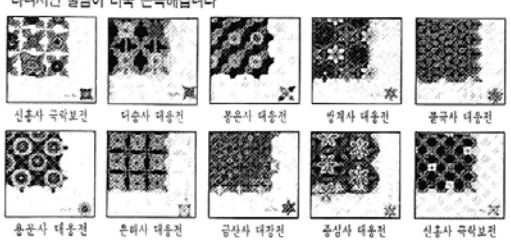
생광석에서 방사되는 세포활성 에너지에 의하여, 생광석 108염주와 말착된 부위의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에 도움을 드립니다.

1. 손에 착고 기도하시면 손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지며
2. 목이 거시면 목이 부드럽고 유연하여 집니다
3. 어깨 부위에 올려 놓으시면 어깨 결림이 현저히 줄어들며
4. 팔목이나 팔에 감으시면 팔목이나 팔의 통증에 큰 도움이 되며
5. 괴로기 훨씬 덜하고 기분이 상쾌하며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 가격:₩35,000

불교전통 창살문양 손수건

한국의 대표적 사찰의 전통창살문양을 손수건에 그대로 재현한 고급 면 손수건입니다. 하나씩 지니고 다니시면 불심이 더욱 돈독해집니다



신흥사 극락보전 / 대흥사 대웅전 / 봉은사 대웅전 / 쌍계사 대웅전 / 불국사 대웅전
용문사 대웅전 / 은해사 대웅전 / 금산사 대장전 / 중심사 대웅전 / 신흥사 극락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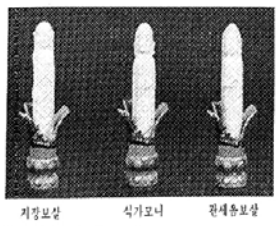
■ 재질 순면 100%
■ 인쇄 나염인쇄 (칼라)
■ 가격 ₩5,000

다량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현상 공덕향

국내최초로 개발한 "현상공덕향"

기도와 함께 피워 올린 향에서 부처님이 나투십니다.



지장보살 / 석가모니 / 관세음보살

현상공덕향은 의형이 원추형으로 금석의 연꽃문양 좌대를 가지고 있으며, 향이 연소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고, 점화 후 약 20여분이 지나면 외형상으로 나무색 향이 연꽃형상처럼 벌어지며, 향이 타는 중에 법상이 서서히 나타납니다. 타고난 다음에 향 연기는 소멸되고 법상은 깨끗한 재가 되어 향로 속으로 들어 갑니다. 현상공덕향은 외형과 겉모습을 중시하지 말고 소신공양의 대원을 이루어 부처님의 진리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향입니다. 현상공덕향은 초하루, 보름, 재일 및 법회의 방생기도에 사용되는 고급 향입니다.

• 향은 천연향 제조업체인 취운향당의 천연향재로 제조된 고급향을 사용하였습니다.

■ 제조원 全城通商
■ 판매원 몸 · 부다피아

■ 가격 ₩8,000(3개 ₩21,000)

법성게 걸망



법성게는 회엄경의 방대한 내용을 7언 30구(210자)로 압축 요약하면서도 그 심오한 진리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으며 의상스님이 저술 하였다.

이러한 법성게를 걸망에 디자인 하여 만든 제품이다. 스님 및 일반신도들도 사용할 수 있으며 걸망 옆에 지퍼를 이용 사용 자가 편리하게 물건을 넣고 뺄 수 있게 하였다.

■ 크기 : 500×460(mm)
■ 색상 : 회색, 밤색, 진베이지색

■ 가격 : ₩15,000

참선 명상 방석



국내최초 인체공학적 설계 참선 · 명상 · 단전호흡 수련방석

수행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엉덩이 부분을 높게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아도 척추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복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제품의 특징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비르게 유지하게 한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피진다

크기가 작아 휴대 · 보관이 용이하며 기존의 좌복 · 방석 위에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준다. 사용처는 사찰, 선행단체, 선방, 심신 수련 단체 등에서 필요한 제품

■ 크기 39×43(cm) ■ 가격 : ₩27,000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브론즈 코팅형 / 개금형 / 금동품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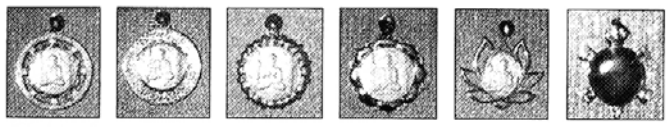
한국 전통 미술의 백미를 현대 미술로 재현하여 귀한 분들께 마음의 선물로 전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 재질 100% 청동
■ 종류 브론즈코팅형, 골동품형, 개금형
■ 크기 40.5cm

■ 가격 : ₩350,000(코팅형,골동품형)
₩580,000(개금형)

상진주 호신 메달

상진주(像進珠) 란?
조개속에 미리 세겨진 핵을 삽입하여 수년간 양식 과정을 거쳐 그 상(像)대로 형성 되어진 진주입니다. 상(像)은 인위적인 가공없이 자연 색상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지니며 성공율 30%로 희소가치가 큰 보석입니다.



상품명 별로 호신펜던트 / 판매가 ₩241,200 / 재 질 금18k 다이아몬 상진주
상품명 인디라 호신펜던트 / 판매가 ₩268,200 / 재 질 금18k 루비 6톤 상진주
상품명 다이나 호신펜던트 / 판매가 ₩199,800 / 재 질 금18k 루비 4톤 상진주
상품명 12연기 호신펜던트 / 판매가 ₩199,800 / 재 질 금18k 루비 6톤 상진주
상품명 연꽃 호신펜던트 / 판매가 ₩199,800 / 재 질 금18k 루비 6톤 상진주
상품명 거북 호신펜던트 / 판매가 ₩134,000 / 재 질 금14k 루비 5톤 상진주

문구암스님 법음 · 법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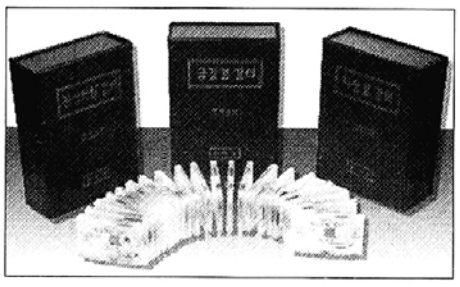
인긴문화제 문구암 스님께서 직접 녹음하신 테이프 1질

· 불공의식, 삼신이운, 영산작법.. 관욕의식 등 분야별로 녹음되어습니다

1.불공의식 2.삼신이운 3.신장청 · 소중권공 4.상단청 5.상단권공 · 거목 6.대령 · 관욕의식 7.대령 · 관욕의식II 8.대령 · 관욕의식III 9.영반 · 복청소리 · 대천수소리 10.영산작법I 11.영산작법II 12.영산작법III 13.영산작법IV · 지장청시 I 14.지장청사 II · 지장권공 I 15.지장권공 II 16.전시식 17.배송 18.운신게 19.법사이운 · 영전점안 20.종성 · 천수작법 · 요잡

■ 가격 : ₩6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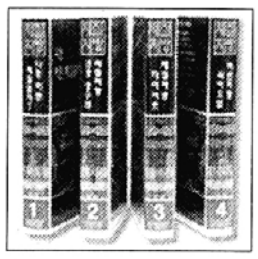
무비스님 특강 녹음 테잎



무비스님의 경전 강의를 접해 보셨습니까? 바쁜일상 생활이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 수 있다면 환잡한 마음을 조응히 하고 꼭 들어보십시오. 무비스님이 직접 전해주는 감로수 같은 일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금강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지장경 강의
- 테잎 20개 ₩45,000
■ 진심직설 강의
- 테잎 20개 ₩45,000

체질 처방 비디오 테잎



■ 가격 : ₩70,000(가방포함)

자신에 맞는 체질 처방으로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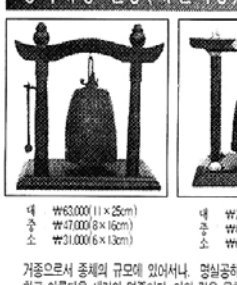
제1부 나는 어떤 체질인가?
· 체질이란 무엇인가?
· 왜 체질을 알아야 하는가?
· 일반인도 체질의학을 활용할 수 있는가?
· 사상의학이란?
· 체질 감별법
· 자신의 외모심성 병증으로 체질 진단
· 체질병 특징

제2부 체질처방 건강 장수법
· 체질에 맞는 섭생이란?
· 체질에 맞는 보약과 운동은?
· 체중조절에 도움이되는 보약
· 체중감량에 좋은 운동
· 체질에 맞는 육류,곡류,채소
· 과일,해물,차등
· 건강장수 비결

제3부 체질처방 다이어트
제4부 자연처방 식이요법

저자 · 경희대 한방병원 원장 송일병 교수 · 경희대 생리요법과 신현대 교수
· 경희 사상의학회 회장 고병희 교수 · 상지대 체질의학과 강덕래 교수

관음분청도자기



이시대의 살아계신 대선사 강석주 큰 스님 친필 관음 분청 도자기

석주 큰스님 친필 관음 분청사기(부처님의 원력으로 쓰신)를 곡한점씩 가내에 소장하시어 모든 기도성취를 이루시고 가내액회소멸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의 큰 복덕을 누리시기바랍니다. 한점씩 소장하시여 후손에게 물려주어도 작품의 값어치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분청 도자기는 일반 백도자기와는 달리 화로에서 구울 때 성공률이 25%내외 밖에되지 않으며 고온에서 장시간 굽는등 제조 과정에 작가의 혼을 담은 장성이 깃들어야 합니다. 특히 석주 큰스님(9세)의 친필 관음찬이 관세음 보살님 그림과 같이 새겨져 있으므로 소장 하신 분의 기내 액화를 소멸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의 큰 복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작품 보증서 첨부)

■ 규격 30×30×40단위(cm)
■ 박스 31 50×31.5×46.8(cm)
■ 무게 5.15kg(도자기)×2kg(포장나무)=7.15kg

■ 가격 : ~~₩1,000,000~~(정상가) / ₩495,000(특판가)

고산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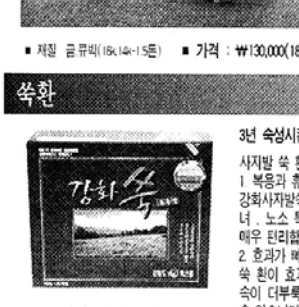


고산 이규초 선생은 임진란때 일본으로 강제납치 되었던 조선도공 팔십의 혼을 사백여년만에 한국에 되돌려온 도예가이다. 팔산의 십일대손인 고취정산선생이 그 조선전래 비장의 도예술인 그 불꽃을 조국에 되돌리고자 한국의 도예특기자를 전국의 수많은 지망생 중에서 선발하여 일본으로 데려가 그 문하에서 5년간 기법을 연마시켰던바 그 수제자가 이규초 선생이다.

이리하여 이규초 선생은 그 도예진수를 발휘하여 국내외 전시회에서 수상하며 두각을 내고 있으며 따라서 고신 이규초선생은 일본삼신가의 예술혼의 불꽃을 한해한을 건너 고국에 옮겨놓은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본 제품은 이러한 역사를 지닌 고산요(高山窯)에서 만들어 진 다기이다

■ 가격:₩1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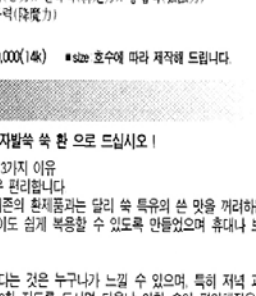
찻상



■ 크기 52×38×8(cm)
■ 재질 소나무 (100%)
■ 용도 찻상 정반
■ 제작기법 전통 찌맞춤 기법으로 제작된 수공예품

■ 가격 : ₩54,000

다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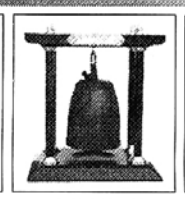


■ 크기 50×39×15(cm)
■ 재질 소나무 (100%)
■ 용도 다기 보관함
■ 제작기법 전통 찌맞춤 기법으로 제작된 수공예품

■ 가격 : ₩126,000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

대 ₩63,000(11×25cm)
중 ₩47,000(8×16cm)
소 ₩31,000(6×13cm)



대 ₩219,000(15.5×25cm)
중 ₩89,000(10.5×16cm)
소 ₩69,000(9×13cm)



대 ₩37,000(11.5×18.5cm)
중 ₩25,000(8.5×14.5cm)
소 ₩17,000(6×10cm)

신라의 미 하면 가장 먼저 성덕대왕신종 속명은 에밀레종을 연상하게된다. 봉덕사 선덕대왕신종 은 구경(口徑) 2.227mm, 전고(全高) 3.663mm, 두께 203mm, 음통고 흡음통 648mm의 거종으로서 종체의 규모에 있어서나,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인 최상 최우수 걸작품이며 종인의 청동문화의 정수를 나타내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세기의 영종이다 이와 같은 문화의 유산을 재현하여 100% 청동과 100% 수공작업으로 만들었다

반야 불교반지

불지의 자긍심을 세겼습니다. 16개의 큐빗은 보살의 16대력을 상징하며 태두리의 팔각은 팔정도의 수행을 의미 합니다

관정도
정견(正見), 정사유(正思惟), 정어(正語), 정업(正業)
정명(正命), 정정진(正正進), 정념(正念), 정정(正定)

십육대력(十六大力)
지력(志力), 의력(意力), 행력(行力), 참력(慙力)
강력(羯力), 지력(持力), 혜력(慧力), 덕력(德力)
번력(精力), 색력(色力), 신력(身力), 재력(財力)
심력(心力), 신족력(神足力), 홍법력(弘法力)
항마력(降魔力)

■ 재질 금큐빅(18k,14k-1.5돈) ■ 가격 : ₩130,000(18k), ₩120,000(14k) ■size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쑥환

3년 숙성시킨 강화사자발쑥 쑥 환 으로 드십시오 !

사자발 쑥 환이 좋은 3가지 이유
1. 복용과 휴대가 매우 편리합니다.
강화사자발쑥 환은 기존의 환제품과는 달리 쑥 특유의 쓴 맛을 꺼려하는 남녀 , 노소 특히 어린이도 쉽게 복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휴대나 보관도 매우 편리합니다
2. 효과가 빠릅니다.
쑥 환이 효과가 빠르다는 것은 누구나가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저녁 과식후 속이 더부룩 할 때 20환 정도를 드시면 다음날 아침 속이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쑥 100%입니다
사자발쑥 환은 순수 강화사자발쑥 100%로 고품질의 강희도 특신품입니다.(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쑥 환 제품중에는 쑥을 달이지도 않고 분쇄후 풀하고 섞어서 환으로 만든 제품도 있는데 주의 바랍니다.)

■ 가격 : ₩55,000
(1달분 1통 (1500정)
■ 가격 : ₩80,000
(2달분 2통 (3000정)

향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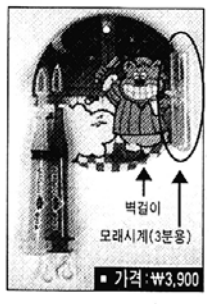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찌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갈 장아찌	12,000원	· 올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아이디어 건강 칫솔 (어린이 선물용)

신상품



벽걸이
모래시계(3분용)

■ 가격:₩3,900

치약을 내장 시킬수 있는 칫솔로써 칫솔과 치약이 분리되는 데서 오는 불편함(치약을 떨어 뜨리거나, 과다사용)을 말끔히 해소시킨 아이디어 상품

제품의 특징
1.미국 듀폰 티이넥스사의 부드러운 양질의 모를 사용하여 치아와 잇몸을 보호
2.치약 1회 주입으로 12~15회 사용
3.치약 떨어 뜨림, 과다사용 방지
4.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양치 습관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줌

사용방법
· 피스톤을 분리 후 칫솔 몸통을 쥐고 치약을 찌 넣습니다.
· 필요에 따라 적정양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선물용으로 다량 주문시 할인하여 드립니다.

실용신안 제18263호 / 의장 제16339호 / 상표 제28424호

법회안내

정토회서 증도가 법문



서암스님(전 조계종 종정)14일부터 정토회 매월 둘째주 특별법회. 오전 11시 〈증도가〉법회, 오후 8시 〈달마혈맥론〉법회. (02)587-8993

조계사 백중맞이법회



화산스님(대구 보광원 조실)14일 오전 10시 조계사 백중맞이 특별법회. (02)720-1390

'원시불교' 다보강좌



호진스님(동국대 교수)14일 오후 2시 불교방송 3층 법당 '원시불교란 무엇인가?' 주제 다보문화 강좌. (02)703-0108

토요어린이법회

세영스님(신록사 주지)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법회. 매월 첫째, 세째주 토요일 오후 2시 어린이법회. 매월 둘째 네째주 토요일 오후 5시 청소년법회. (337)85-2505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신행 캘린더

7월15일 (목)

■ **불교문화열린강좌**=광주불교교육원의 불교문화열린강좌 '불교미술의 세계' 강좌가 열린다. (062)228-9098

■ **재가연대 월례포럼**=재가연대는 오후 6시30분 재가연대 강의실에서 무소유, 근검, 청빈, 절제의 불교정신과 소욕지족운동의 전개방안에 대해 7월 월례포럼을 연다. (02)725-6231

7월16일 (금)

■ **기림사 · 황룡사터 · 경주박물관 순례**=답사여행의길잡이 터사랑은 18일까지 무박 3일간 기림사, 감은사지, 황룡사터, 남산 칠불암, 경주박물관 등 천년고도 경주를 집중 순례한다. (02)725-1284

■ **삼화사 불영사 답사기행**=옛돌은 동해 삼화사와 정동진역, 삼척 해신당, 울진 불영사 등지로 답사기행을 떠난다. (02)2266-1233

7월17일 (토)

■ **선정회 월례 참선 철야정진**=선학원 선정회는 저녁 8시 안국동 선학원 선방에서 18일 새벽 4시까지 좌선정진법회를 갖는다. 선학원 원장 성해스님이 참선법문과 좌선지도를 한다. (02)732-3327

■ **해인사 제4차 여름수련회**=해인사 제4차 여름수련회가 21일까지 4박5일간 일반인을 대상으로 열린다. (0599)931-1020

■ **청보리회 가족 기도법회**=청보리회는 18일까지 경기도 안성 도피안사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참배기도법회를 갖는다. (0334)676-8700

■ **은해사수련회**=은해사는 아름다운 자연과 참나를 찾아서 18일까지 일반인을 위한 여름수련회를 연다. (0563)335-3318

■ **익산 미륵사지-개암사 · 내소사**=부산불교교육원은 오후 9시 익산 미륵사지, 개암사, 내소사 등지로 우리문화기행을 떠난다. (051)466-4080

7월18일 (일)

■ **금강메이리 8월 순례법회**=서울불교산악회 금강메아리는 양양 낙산사 홍련암과 금강산 건봉사로 8월 순례법회를 떠난다. 오전 6시 서울 동대문 이스턴호텔앞에서 출발한다. (02)772-9517 윤부윤

7월19일 (월)

■ **선불교특강 및 선수련회**=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에서 실시하는 제2차 선불교 특강 및 선수련회가 22일까지 열린다. (0651)770-2016

■ **봉선사 여름숲속학교**=유치부와 초등학생을 위한 봉선사 여름숲속학교가 21일까지 광릉 봉선사 일원과 베어스타운에서 열린다. (0346)527-1951

7월21일 (수)

■ **미황사 철야기도 및 무위사 참배**=용진신행회는 오전 9시 달마산 미황사 철야기도 및 월출산 무위사 참배를 떠난다. 진도 바닷길도 둘러본다. (02)2279-1191



◇지난 4월 열린 제1차 조계사 열린강좌 현장.

용타스님 · 김지하씨 열린강좌

조계사서 24일 · 내달 7일 두차례

조계사(부주지 지홍)는 지난 봄에 이어 제2차 열린강연회를 실시한다.

오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대웅전에서 용타스님(미국 삼보사 주지)이 '내안의 거울닦기'를 주제로, 8월 7일 오후 3시에는 김지하 시인이 '단군사상과 불교사상'을 주제로 조계사문화교육관에서 강연한다. (02)720-1390

종단소식

조계종

조계사 대장경 정대불사

서울 조계사(부주지 지홍)는 16일부터 3일간 법보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한 팔만대장경 정대불사를 봉행한다. 이번 팔만대장경 정대불사에서 불자들은 경판을 머리에 이고 법계도를 따라 돌면서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할 것을 발원하게 된다. (02)732-2115

용주사 父子 효체험수련

수원 용주사(주지 정락)는 28일부터 30일까지 청소년들에게 효행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하는 청소년 효행수련회를 개최한다. 동참금은 부모와 자녀 2인1조 5만원이다. (0331)234~0040

태고종

탑사 관내학생에 장학금



진안 마이산 탑사 갑룡장학회는 3일 진안교육청 강당에서 우수 학생들의 향학 의지를 고취시키고 인재양성을 위해 진안군내 34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총 7백만원을 전달〈사진〉했다. 이날 탑사는 결식 아동돕기로 써달라고 50만원을 교육장에게 전달했다.

천태종

전국 교원불자 하계수련

전국 유치원 초 · 중 · 고 · 대학교 교원불자 하계수련법회가 27일부터 30일까지 3박4일간 총본산 구인사에서 열린다. 주제는 '새천년을 맞는 교원불자의 역할과 사명'이고 참가비는 2만원. (0444)420-7309

진각종

15일 해탈절 기념불사

15일 오전 10시 전국 각 심인당에서 각자의 정성으로 우란분을 지어 부모님과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함으로써 자기수행을 점검하는 취지의 해탈절 기념불사를 갖는다.

서울교구청 신교도 대동제

서울에 소재한 각 심인당 스승들과 신교도들이 함께 어울리는 제4회 서울교구청 심인당 신교도 한마음 대동제가 17일 경기도 다산 정약용 생가 옆 단풍나무집 체육공원(0346-576-3097)에서 개최된다.

대한법화종

'법화총람' 자료 수집

창종 53주년을 맞아 종단의 발자취와 법맥을 일목요연하게 담을 〈법화총람〉 제작을 위해 종단의 역사와 관련된 사진, 자료, 기타 기념물 등을 모집하고 있다. (02)762-2678

법륜종

21세기 대비 종도교육

총무원(원장 효성)은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총무원 3층 법당에서 제11회 종도 연수교육을 갖는다. 각 사 · 암 주지 및 교화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연수에서는 △종지 종풍 선양확립을 위한 종도의 자세 △21세기를 대비한 사찰 운영 방법 등의 강의와 분임 토의가 있다. (02)733-4445

원융종

호국영령 위령대재

호국영령 위령대재 및 선망부모왕생극락기원법회가 6일 종정 일공스님, 총무원장 법륜스님 등 종단 임원진과 신도 등 1천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평택호 관광단지에서 봉행됐다.

법사종

'IMF시대 가정관' 주제발표

성순경 총무원장은 15일 오후 2시 부산일보 대회의실에서 (사)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 주최 서울가정법원조정위 주관으로 열리는 'IMF 불확실성 시대 각 종단 종교인이 본 가정관과 윤리관' 세미나에 참석, 불교 대표로 발표한다.

알림 본란은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입니다. 각 종단 총무원 및 지방 종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게 시 판

알림

▲**무료한방진료**=공창복지관은 매월 둘째, 네째주 토요일 오후 2시~5시 복지관에서 동의대 한의대의 도움으로 침, 뜸, 부황, 타약 등의 무료한방진료를 실시한다. (051)363-2063

강좌

▲**초중생 한문무료강좌**=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30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위한 한문무료강좌를 연다. (02)571-2988

▲**〈대념처경〉〈청정도론〉 강좌**=강남포교원은 〈대념처경〉〈청정도론〉을 통한 위빠사나 강좌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와 7시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02)539-2631

▲**불교사상 강좌**=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는 19일~24일 대구구도회관에서 정병조 동국대 교수와 권기종 동국대 교수 초청, 불교사상 강좌를 연다. 등참금 일반인은 2만원, 대학생은 1만원. (053)256-8589

▲**생활도예반**=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도예반교실을 연다. 일반인은 매주 월, 수요일 오후 1시에 어린이는 월,수요일 오후 3시에 실시한다. (051)265-9471

▲**수화교실 초급반**=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매주 수,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수화교실초급반 과정을 지도한다. (0443)652-0900

▲**경전연구반**=능선선원은 1년과정의 경전연구반 강좌를 개설한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금강경〉〈능엄경〉〈아함경〉 등을 지도한다. (02)577-5800

▲**부녀교실**=신도림복지관은 미용사자격증, 한식조리사자격증, 양식조리사 자격증, 꽃꽂이, 홈패션, 노래교실, 퀼트 등 부녀교실 강좌를 개설했다. (02)631-9742

▲**노래교실**=대흥사 부산포교원은 부설 가빈문화원 주최로 16일 스님과 함께 기타로 배우는 노래교실을 연다. (051)636-5114

▲**만화캐릭터교실**=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26일부터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0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만화캐릭터교실을 연다. (02)852-0525

▲**서구노인복지대학**=서구노인복지대학은 19일부터 제6기 서구노인복지대학을 연다. 건강무용, 서예, 시조, 사물, 사군자, 단학체조, 장구, 레크리에이션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042)488-6297

모집

▲**수련활동 진행요원 및 수영강사**=합지골청소년수련원은 수련활동 진행요원 및 수영강사를 24일까지 모집한다. 전문대졸 이상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사회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051)405-5223

▲**꽃꽂이회원**=강남포교원 꽃꽂이부에서는 꽃꽂양 활동에 동참할 신입회원을 모집한다. (02)539-2631

▲**수련회 자원봉사자**=길상사는 여름 수련회 기간중 보살행으로 수련생을 후원할 자원봉사자를 찾는다. (02)3672-5945

▲**미용자격증반**=신도림복지관은 매주 월, 수, 금, 토요일 오전 10시 미용자격증반을 연다. (02)631-9792

▲**여성장애인목욕지원봉사**=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여성장애인 목욕지원봉사를 해줄 사람을 기다린다. 매주 화, 금요일 오후 1시30분~6시30분에 활동가능하면 된다. (02)989-4215

▲**반찬나누기 후원자**=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거동불편 장애인을 위한 반찬나누기 사업에 동참할 후원자를 모집한다. (051)265-9471

▲**요구르트배달서비스후원자**=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1년에 4만원으로 무의탁 노인을 위한 요구르트배달서비스에 동참할 후원자를 모집한다. (02)2282-1100

▲**아나바다 후원자**=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아껴쓰고, 나눠쓰고, 다시쓰고, 바꿔쓰는 아나바다운동에 동참할 후원자를 모집한다. (02)852-05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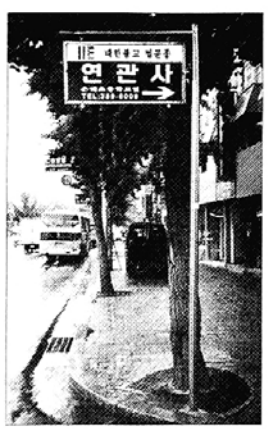
▲**자원봉사 및 후원자**=낙동복지관은 밑반찬서비스, 학습지도, 차량자원봉사, 이미용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에 동참할 자원봉사자와 일반후원, 결연후원, 물품후원등의 후원자를 모집한다. (051)271-0560

답사

▲**거문도 · 백도**=우리문화유적답사회 고인돌은 16일 밤 11시 전남 여수의 거문도와 백도 등지로 답사를 떠난다. 18일까지 2박3일 일정. (02)742-2626

불·교·사·찰·안·내

간판 시공



■ 규격
- 종로구 80cm × 40cm
- 그외 지역 110cm × 55cm
- 개인소유지 : 제한없음

■ 재질 스텐레스

■ 허가 대행 및 A/S

취급품목: 사찰 안내간판, 사찰 연력판, 건주용 간판, 게시판, 연등건기배선

※ 1차 설치되어 있는 기존간판은 정비, 자진철거 해드리겠습니다.
※ 지방출장 가능

신성기획 TEL: 02)3141-3789 02)332-3786 H.P: 016)336-3786

철야용맹정진 수련회

기본 수행법 교육(토요일 저녁 7시~9시)

◈호흡에 맞춰 절하는 법 : 절대 숨차지 않고 헐떡대지 않으며 기계처럼 자동으로 숫자 헤아려지고 마음이 일체 동요되지 않는 완벽하게 절하는 비법
◈염불 금강경 독경하는 법 : 수행시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 몸에 진기가 빠져나가 피곤하고 졸립고 지겹고 침은 마르며 목이 아프고 번뇌망상은 들끓어 삼매에서 멀어진다. 자성의 운율대로 해야 단전호흡이 되고 침은 저절로 넘어가며 중단전에 한맺힌게 풀려 큰 소리로 염불해도 목 아프거나 쉬지 않고 힘차게 박력있게 신명나고 자신있게 업장을 조복받는 상근기 되는 수행업.
◆ 장궤합장자세, 좌선자세, 행선, 와선 수행시 자동 단전호흡되는 법.

철야 정진 (토요일 10시- 일요일 오전 10시)

한글금강경 봉독2회, 석가모니불 염불 정근, 도인체조건강법, 108배2회, 와선호흡법, 수행상담 점검, 축원 기도 7회
◆ 넉넉한 복장, 세면도구, 예약수련 30명, 수련비 무료
출가예정자 수행체험, 특별소원성취기도 수행자 업장소멸용맹정진 수행자를 모십니다.
◆철저한 수행교육후 수시 수행점검, 1일 2시간씩 4회 수행.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1일 2식, 식후 30분 행선, 운력1시간 (일주일 3만원, 보름 7만원, 한달 15만원, 백일 50만원)
◆철야정진 동참자중 수행을 올곧게 잘하시는 고학력의 거사님들의 참여가 70%넘고 부부가족단위 수행자가 많습니다.
◆차돌 암벽에서 다량의 약수가 나옴 (일년 두어도 이끼가 끼지 않는 특급수)

아름다운 소리산 물빛고운 소금강 법왕정사 수행원
금강지혜보궁, 두타禪院, 불교도서관, 법왕장학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인이피 마을) 소리산 참선캠프
수행전문상담전화 (0338)771-7745 (오후 1시~8시)
금강산처럼 수려한 소리산 16만평의 영지에 위치한 청정한 수행전문도량임.

범서 다라니 사경회원 모집(1차)

◈사경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불정존승 대다라니
◈사경기간
7월20일 ~ 10월17일(90일간)
◈기도회향
10월17일 (음, 9월9일)
◈모집기간(1차모집)
7월 20일까지
◈1차 동창금
50,000원(분납가능)

국민은행 570-01-0054-725 정토선원

사경방법
지도법사 도성스님이 직접 쓰신 체본을 가정으로 우편 발송 합니다.

앞으로 사경기도 할 다라니
수구즉득 다라니
불정능엄 대다라니
관세음보살 42수진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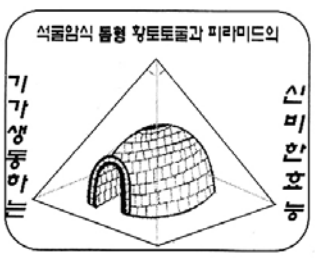
전국 범서 다라니 사경회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15-5번지
☎(062)528~0108, 011-607-7504
범서 다라니 사경 근본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정토선원

범서 다라니 사경 회원모집

황토 집(토굴)

나무 장작과 구들방, 그리고 황토 외 인체에 유해한 물질은 사용하지 않으며 자연과 일체가 되는 살아 숨쉬는 황토 집을 짓겠습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몸집"인 것입니다.



황토 집(토굴)
- 자연식품+한약재 배합
- 황토 미장 특허
- 돌형 토굴체험 황토 벽돌 공장 견학
- 황토 사랑 모임회 월 1회 개최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P: 017)585-6045/ 017)566-9969

여름불교학교 의견 나눠
부산 어린이지도자 연수

부산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여)는 3일 함지골 수련원에서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금련사, 통도사부산포교원, 관음사를 비롯한 지도교사 9십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법회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육바라밀을 실천하기 위한 선재동자 구법기, 역할극 공연, 찬불가, 우리가락, 우리춤사위, 심성프로그램등이 진행됐다.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회 회장 덕진스님은 "부처님법을 전하는 일선에서 어린 새싹을 키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봉축 연등축제 결산·시상
부산 광역시 불교연합회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성오)는 3일 52차 이사회를 열고 254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시민연등축제 결산보고를 갖고 감사패와 봉축상을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동명불원, 범어사, 한마음선원, 삼광사 등 10개사찰과 부산불교교육대학외 3개의 신행단체, 대한불청 부산지구 청년부, 감로사, 동명불원, 대불련 등이 봉축상을 수상했다.

반야심경 강해 법회
통도사 부산 포교원

6일 젊은 불자들의 관심속에 반야심경강해 법회가 열렸다. 통도사부산포교원의 심경청년회가 주최한 이날 법회는 통도사에 주석중인 호명스님을 법사로 청년회원과 일반인 2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제주관음사 문화도량으로 중창



◇제주 관음사는 2일 문화사찰 조성의 청사진을 설계할 준비위원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도민 1천여명 성역화 추진위 구성
역사관·자연관·문화원·공연장 건립

제주 관음사(주지 중원)가 지역 불교를 상징하는 대규모 문화사찰로 새롭게 중창된다.

'관음사 문화관광지 조성및 성역화 사업 준비위원회'(위원장 문인종)는 2일 제주 KAL호텔 2층 연회장에서 불자와 도민등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기인 대회를 갖고 관음사 중창불사에 범도민과 불자들이 힘을 모으자고 결의했다.

관음사는 내달중에 중창불사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세미나 등을 2차례 가진뒤 1천명 내외의 불교및 지역인사들이 참가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새천년의 문화유산'을 모토로 한 불교 및 역사, 문화 관광지로서의 관음사 중창 청사진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조계종 제23교구본사인 관음사는 본사다운 사격(寺格)을 지니게 되고, 대가람으로서의 위용을 자랑했던 '고려시대 관음사'의 명맥을 잇게 됐다. 또 지역 포교를 위해 대형 미륵불상과 천불상을 조성하고, 불교대학과 문화원, 강당, 요사채 등 포교시설과 불교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납골당도 갖출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는 제주도 설화속의 여신인 설문대할망 재현도 들어있다. 제주도 지형을 형상화한 2천여평의 대형 연못을 조성하여 가운데에 연화좌대를 설치하고 15~20m 크기의 설문대할망상을 조성하여 설화를 시각적으로 형상화 시킨다는 것. 설문대할망의 몸체에 5백여명의 동남동녀를 조각하여 오욕칠정을 표현하고 동서남북에 4개의 다리를 연결, 생로병사의 사고(四苦)를 해탈해야 한다는 이미지를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주변에는 탐라역사관을 설치해 제주향토 역사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향토문화가 살아숨쉬는 문화현장으로 가꾸기 위해 전통혼례예식장 건립과 제주자연전시관 조성, 향토문화 공연장과 전시관이 잇따라 추진된다.

관음사주지 중원스님은 "새 시대를 위한 천년유산을 남기려는 염원의 발로에서 제주상징 불사를 계획하게 됐다"며 "관음사를 제주 문화와 역사창조, 그리고 지역경제,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도량으로 외형과 내용을 갖춰 나가겠다"고 말하고 제주불교 대가람 중창사업에 도민과 불자들이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김원우 기자(kim@buddhapia.com)

"용성스님 탄생·출가지 인연 기리자"

전북 장수-경남 합천군 결연

용성스님의 탄생지 전북 장수군과 출가지 경남 합천군은 6월 29일 장수군민회관에서 양군의 군수를 비롯 군의회 의장 및 각급기관장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매결연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조인식은 장수군 번암면 죽림리에서 탄생해 독립운동을 이루었고 3·1독립선언 불교계 대표로 참여 독립운동을 주도한 백용성 진종조사가 합천 해인사에서 출가하여 민족의 큰 인물이 된 것을 양군이 함께 기념해 앞으로 사회, 경제, 문화·예술, 체육, 행정등 각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통하여 화합의 한마당을 갖는 한편 민간차원의 교류도 활성화 시켜나가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장수군과 합천군은 교류협력을 위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의 발굴 실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동서화합의 획기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기독단체 반대한 영광 불교도래지 성역화

지역단체 30여곳 "찬성"

영광군이 추진중인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사업과 관련 기독교 단체의 반발<본지 228호 22면 참조>에 대해 지역 30여개 사회단체들이 군의 사업추진에 찬성의 뜻을 밝혔다.

영광군내 30여개 군 단위 사회단체로 구성된 영광군사회단체협의회는 6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독교에서 사업을 잘못 이해하여 반대하고 있으나 대다수 지역민들이 사업 추진에 동의 하고 있는 만큼 영광의 미래를 위해 사업을 협조하여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관광지 개발이 절실한 실정에서 군이 추진하고 있는 백제불교 관광명소화 사업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면서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한 영광군 기독교연합회의 반대에 막혀 영광군 발전을 위한 사업이 중지될 수 없다"며 계속적인 사업의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사회단체협의회는 지역구 김인곤의원과 영광군·영광군의회에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을 요구하고 기독교연합회와도 반대보다는 타협으로 영광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말기암·중환자 전문 진료소
광주 한마음 호스피스 개원

말기암과 중증환자들을 위한 한마음 호스피스(대표 이장국)가 광주에서 문을 열었다.

3일 빛고을장례예식장에 개원한 한마음 호스피스는 25개 병실에 의사 간호사 코디네이터등 7명의 직원을 갖추고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종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마음 호스피스 이장국 대표는 "불자들이 모인만큼 부처님의 자비사상으로 중증환자들과 가족들에게 다소간의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불교의 사회적 이상실천을 위해 영리를 떠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마음 호스피스는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를 모집한다. 문의 062) 225-2444.

주용직 광주지사장

6·25때 절 지킨 법흥결사대 천도재

법흥사 48년만에…흥녕선원 복원키로

6.25 전쟁때 적멸보궁 사자산 법흥사(주지 도완)를 지키기 위해 스님들과 지역민 27명으로 구성되어 활약했던 법흥결사대. 지역과 법흥사 수호를 위해 싸우다 인민군에 의해 18명이 집단으로 처형돼 암매장된 법흥결사대 영가들을 위한 천도재가 48년만에 법흥사에서 처음으로 봉행돼 눈길을 끌었다. 사자산 법흥사는 8일 창건조 자장율사와 사자산문 흥녕선원 개산조 절중국사의 위덕을 기리고 법흥결사대를 비롯 사자산 인근에 암매장당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산천도재를 입재, 8월 25일 우란분절날 회향한다. 이번 천도재는 지난 6월 법흥결사대가 처형돼 암장된 송장골을 처음으로 찾아낸 뒤 갖는 천도재여서 그 의미가 각별했다.

법흥결사대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아왔다가 법흥사 역사를 정리해온 주지 도완스님의 노력으로 그 실체와 활약상이 밝혀졌고 결사대원인 이명준씨 등 3명이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법흥사는 최근 사자산문 개산조 절중국사(826~900)의 부도탑을 새로 보수하고 이날 재도 함께 봉행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현재 법흥사는 사자산 각 혈에 암장 또는 매장된 시신들을 이장하고 2001년 10월까지 민족번영과 선풍중흥의 본원사찰로 복원하는 대규모 불사를 하고 있다. 법흥사는 새로운 세기 인류문명을 이끌어갈 대안인 선(禪)의 확산을 위해 흥녕선원을 복원, 선풍진작의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영월=김원우 기자

우리절 불사 부산 소림사



◇소림사는 불교포교를 위해 지하2층 지상2층 총건평 9백평의 대웅전및 시민선방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새싹·청년단체 신행 '보금자리'

대웅전·시민선방 개축
독서실 어린이집등 운영

'기다림'과 '정성'으로 진행중인 불사가 있다.

95년부터 시작된 소림사(주지 정일)의 대웅전, 시민선방 개축불사는 이제 5년째를 맞고 있다. 소림사는 어린이, 학생회, 청년회 포교의 터전이었다. 많은 스님들이 외면했던 어린이와 학생, 청년에게 장소를 흔쾌히 제공하고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은 불사관계로 다른 곳으로 옮겨 법회를 보고 있지만 연꽃회, 관음선행회, 일념회, 대학생불교연합회,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등이 모두 소림사에서 법회를 보았다. 이제 지하 2층 지상2층, 총건평 900여평의 불사가 끝나면 다시 보금자리를 찾아 돌아올 단체도 많다. 그래서 이 불사는 많은 이들이 마음으로 기다리는 불사가 되고 있다. 또한 50년의 전통을 가진 시민선방을 이용하던 이들도 하루빨리 시민선방에서 공부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96년 웅벽이 무너지는 사고만 없었어도 이 불사는 이미 많은 이들의 바람대로 끝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웅벽이 무너지고 인근 주택에서 1년 가까이 반대를 벌이고 그것이 마무리 되었을 때쯤 또다시 시공사가 부도를 냈다.

정일스님은 "그간의 어려움은 말로 다할 수 없다"며 "그래도 불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부처님 가피"라고 강조했다.

사고이후 정일스님의 가장 큰 관심은 안전. 10층 높이의 빌딩보다 더욱 튼튼하고 안전한 불사를 한다고 주변에서 말할 정도로 알뜰한 불사를 하고 있다. 차고와 공양간과 법회장소를 겸한 지하층과 1층에는 스님들의 거처와 시민선방, 3층에는 대웅전이 들어서게 되면 보다 많은 이들에게 불사의 공덕을 회향하기 위한 문화행사, 각종 법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 해오다 불사로 중단된 어린이집, 독서실등 편의시설을 재운영, 주민과 함께 하는 사찰의 본분을 다하게 된다.

정일스님은 "정성을 다해 열심히 하면 부처님은 꼭 대가를 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기와 한 장이라도 불사에 동참해 준 모든 분들이 바로 부처님입니다"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코스

밝은길 아바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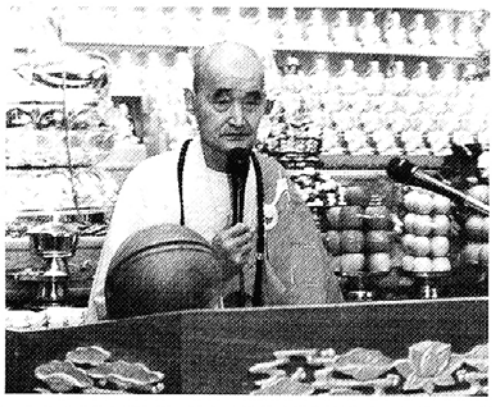
◐아바타 코스는 7-9일 걸리며, 비용은 160만원입니다.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교통편 : 서울역, 시청앞, 조계사앞 3호선 경복궁역에서 135, 135-1, 2, 3번 버스로 약 20분 거리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 (02)396-2736 H.P 016-228-2358

개 衆生度盡 方證菩提

중국 구화산 육신보전 한국포교원

원 地獄未空 誓不成佛



중국 구화산 육신보전 한국포교원 지장선원은 불기 2543년 5월 16일 오전 11시부터 박세민 스님의 집전으로 **지장보살 점안 및 개원법회**를 갖고 지장신앙 포교의 전당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날 증명법사로는 중국 구화산 육신보전 방장이신 인덕 큰스님과 구화산 육신보전 주지 성부스님 그리고 전 동국대 총장이신 지관 큰스님과 세민스님, 사부대중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법회를 갖게 되었다.
이날 중국 구화산 방장 인덕 큰스님께서는 무불시대는 지장신앙에 귀의하여 진 참회기도로 자신의 업을 소멸하고 이타정신으로 일체 중생을 이롭게하는 삶을 실천 수행해야 한다고 법어를 내리셨다.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선원

중국구화산 육신보전 한국 포교원 안양불교대학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번지 ☎ 0343)444-5935~6 Fax: 444-5655

회주 박세민 주지 석현호

중국 구화산 지장도량 성지순례 모집

금본 **중국구화산 육신보전 한국포교원 지장선원**에서
신라 고승으로 중국 구화산에서 75년 수행하신 후 구화산 최초의 등신불로 화현하신 김교각 탄신 1205주년을 맞이하는 이날 1999년 9월9일 9시9분에
99M 지장동상건립 착공식 및 기념대법회에 참석하실 불자님을
아래와 같이 선착순 OOO명을 모집하오니 접수바랍니다.

육신보전 지장기도 한·중 합동 조상 천도제 봉행
구화성지(화성사·백세궁 고배경대 천태봉 참배)

△ 중국 구화산 법회 일시: 1999년 9월 9일 오전 9시 9분(음력 7월 30일)
△ 출발일시: 1999년 9월7일 오전 9시 출발 9월 10일 귀국(3박4일)
△ 출발장소: 김포공항 국제선 1청사2층
△ 법회참석 왕복비용: 680,000원
△ 접수마감: 1999년 7월 30일
△ 주 최: 중국구화산육신보전한국포교원 지장선원
△ 후 원: 중국 구화산 불교법회
중국구화산 지장성지 순례전문 **원나루여행사**(원연화심.이자명주)
△ 접 수 처: 원나루 여행사 TEL: (02)722-3901~5, (02)738-5781
FAX: (02)722-3904

대한불교조계종 지장선원 안양불교대학
중국구화산 육신보전 한국 포교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번지
☎ 0343)444-5935~6 FAX : 444-5655

빈틈보인 복지시설 관리

일부 교계복지관 공금유용사건 '물의'
'교구본사별 법인운영' 등 대책마련 시급

서울 자양복지관에 이어 부산 공창복지관에서 공금유용사건이 잇따르는 등 종단 복지시설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특히 조계종 복지재단의 경우 현 관리체계가 현실성이 없어 철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교구본사별 복지법인 운영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최근 관장의 공금유용으로 조계종 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 골치를 앓고 있는 자양복지관의 경우 복지재단은 비리를 저지른 공영애 관장을 물러나게 하는데 그쳤을 뿐 문제가 발생한지 5개월여가 지나도록 아직까지 복지관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부산 공창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회계책임자가 운영비 8천여만원을 유용한 사실이 최근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밖에 몇몇 복지관에서도 비리의혹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복지재단은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복지재단의 관리소홀을 탓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재 복지재단은 복지관 및 어린이집 등 50여개의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으나, 감사는 기껏해야 1년에 한번이고 그것도 30여개 복지관에 반나절 감사에 지나지 않는 형편. 5명에 불과한 복지재단의 인력부족도 실질적인 감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복지재단이 시설들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어 복지재단은 이래저래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열린 제8교구 복지종사자연수대회에서는 이같은 불만이 터져나온 바 있다.

일선관계자들은 이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구본사별 복지재단 운영, 중앙집중식, 종단등록제 등의 운영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교구본사별 복지법인 운영은 복지재단 관계자나 시설들 관계자들 모두가 현재 상태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꼽고 있는 제도. 말사와 교구본사가 예산을 조달하는 형태의 이 제도는 적절한 지도감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정서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고 따라서 활동영역이 그만큼 넓어질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종단차원의 관리에 따른 행정부담이 따른다.

중앙집중식은 종단이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식. 그러나 각 시설들에 1년에 최소 30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교계가 복지진흥에 관심을 갖고 후원금과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진각종 사회복지법인이나 기독교 선명회재단, 가톨릭 복지재단, 한국복지재단의 경우 이같은 운영방식으로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종단등록제도는 복지관이 종단의 시설로 등록되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종단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종단예산지원이 없어 복지관의 입장에서는 얻는 것도 없이 간섭만 받게 돼 수용하기 어려운 제도다.

지방의 한 복지관 관계자는 "복지재단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방의 경우 복지재단과 업무연계는 물론 도움되는 것이 전혀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본사별 복지법인 운영을 고려하는 것이 불교계 복지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은평노인복지관 2일 개관

취업알선센터 · 노인대학등 상담 폭주

지난 2일 개관한 은평노인복지관(관장 성운스님)이 당해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 노인들에게서도 상담이 폭주하는 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관 후 일주일동안 들어온 상담 건수만 해도 벌써 4백여건. 복지관 노인대학에는 1백50여명이 접수했으며, 물리치료 및 주간보호에도 1백여명과 40여명이 각각 접수했다. 그러나보니 오후 5시까지인 상담시간이 저녁 10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경기도 지역의 노인들이 이곳의 시설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떼를 쓰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12일부터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노인주간보호소(중풍, 치매) 치료실 등 20여개의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은평복지관은 반응이 좋은만큼 최상의 서비스로 노인들이 '고향' 같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복지관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은평노인복지관은 노인전문 재활용품도 무료로 대여해주며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02)385-1351 〈관련기사 본지 제228호 14면 참조〉

한명우 기자



◇2일 법요식과 축하공연으로 진행된 서울시립은평노인복지관 개관식에는 은평구사암연 스님들과 이배영 은평구청장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관장 성운스님이 개관인사를 하고있다.

'좋은이웃 111' 캠페인
강북장애인복지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혜창)은 장애인들의 재활서비스 및 생계지원을 통해 이들의 삶의 보람을 찾아주자는 취지의 '좋은 이웃 111' 캠페인을 벌인다. 〈관련 인터뷰 4면〉

장애인들과 일대일 결연후원을 통해 이들을 돕는 방식의 이번 캠페인은 9월말까지 전개되며, 지역 관공서 및 기업체, 사찰에 이르기까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후원금은 생계지원과 의료비 지원에 쓰이게 된다. (02)989-4214

한명우 기자

뉴스 & 뉴스

"단군상 훼손 엄중수사"

종교편향대책위(공동위원장 현진, 원혜스님)와 대한불교청년회(회장대행 배영진, 이상번)는 7일 여주초·중등학교에서 발생한 단군상훼손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을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탄, 사건관련자의 색출과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월주 전 조계종총무원장과 강원룡 크리스찬아카데미 이사장, 작곡가 김영동씨 등 종교계 문화계 인사 2백여명으로 구성된 민족정신회복시민운동연합(임시대표 김지하)도 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이 사건을 계기로 민족정신의 위기를 각성하고 왜곡된 상고사를 바로잡는 데 합심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6면〉

정성운 기자

정화측 통도사 말사 주지 임명

조계종 제15교구본사 통도사는 6일 정변전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관할 말사인 울산 문수암과 해남사, 창녕 관룡사의 주지를 명도각스님 등으로 교체키로 했다. 산중총회는 월하스님을 비롯 17명의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에대해 조계종 총무원 호법부는 "지난해 종단사태로 징계를 받은 스님들을 주지로 임명하는 것은 종헌종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진상조사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대불청 회장 18일 선거

대한불교청년회는 4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이상대 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 사표를 수리하고, 7월18일 대전 중앙불교회관에서 중앙회장 보궐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대불청은 배영진, 이상번 전 중앙회장을 공동직무대행체제로 추대해 사무국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수습키로 했다. 또 유석근 충남지부 회장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한 8인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도필선 기자

아파트공사로 요사채 균열

구미 원각사, 住公에 피해보상 요구

아파트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요사채에 균열 및 누수현상이 발생해 스님과 신도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조계종 제8교구 말사 구미 원각사 주지 대혜스님과 신도20여명은 5일과 6일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지사(지사장 김방수)를 방문해 "주공아파트건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피해를 보상하라"며 항의했다.

원각사측은 이날 "전통사찰에서 20m도 벗어나지 않은곳에 15층 고층아파트 건설허가가 난 경위를 밝히고 사찰환경권 침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요지의 탄원서를 주공측에 제출했다.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가 2백여억원의 예산으로 97년 12월 착공해 2000년 5월 준공예정인 공공임대주택 4개동 3백62세대로 원각사 바로 옆에 들어서고 있다.

현재 원각사 요사채는 방바닥과 벽에 균열이 가고 비가 새고 있으며 방바닥이 융기해 사람이 거주할수 없는 상태다. 주공측은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요사채 균열은 건물이 오래되고 낡아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밝혀졌다"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이 아파트는 처음에 5개동으로 건설되려다 1개동이 사찰 정면에 들어서도록 설계가 되어 물의를 빚자 착공직전에 설계에서 삭제되는등 사찰측과 긴밀한 협의가 없이 공사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설계변경직후 공사에 대해 무지한 스님과 신도들을 상대로 '공사에 대해 일체의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요지의 합의서를 받아내는등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왔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석남사앞 위락시설 반대 서명

40여 환경 · 시민단체 '대책위' 결성

일주문앞 위락시설과 공장 건립등의 공사로 수행환경에 막대한 침해를 받고있는 울주 석남사(주지 영운)와 울산 청룡암(주지 종현)이 수행권 보호를 위해 적극 대처에 나섰다. 위락시설 건축 반대를 위한 철야정진(8일 현재 13일째)을 하고 있는 석남사는 7일 울산 환경연합, 태화강 보존회 등 환경단체를 비롯 회계사, 변호사 등 직장 직능모임 40여 단체 100여명과 함께 '가지산 환경보존대책위원회(회장 조홍식)를 결성했다. 가지산환경대책위는 석남사 수행환경 훼손 문제를 범시민적인 차원의 환경과괴 문제로 인식해 울주군에 가지산 자연공원 계획법안 전면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229호 23면 기사 참조〉

또한 울주군의 허가과정, 울주군청의 대토합의 일방적 파기 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후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석남사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건축주가 내놓은 공사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맞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울산지방법원에 접수해 놓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불자들의 뜻을 결집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7일 현재 2만5천여명의 저지동참 서명을 받았다.

한마음선원등 전국 비구·비구니사암과 강원, 선원, 재가단체와 시민들까지 가세한 동참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울산 청룡암은 비로 연기되었던 공장건립 반대집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열기로 하는 한편, 건축주가 공사차량 통행용 도로확보를 위해 토지 매입을 시도하자 기도도량 보호를 위한 '땅 한평 사기' 불사를 벌이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불교통일 한마당 연다

불추위, 31일 조계사서 … 전국 순례단도 구성

불교추진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지선·이하 불추위)는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기원하는 불교통일한마당을 31일 오후 7시 조계사 앞마당에서 개최한다.

2일 제3차 확대집행회의를 연 불추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99 민족화합 통일정토 전국순례단을 구성키로 하고 8월 9일부터 15일까지 부산을 출발하여 광주 청주 춘천등 전국 도청소재지를 거쳐 서울에 도착하는 일정을 확정했다.

또 8·15 통일기원 남북동시법회를 15일 오전 11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남북공동발원문이 낭독된다.

김원우 기자

사찰 어린이법회에서 활동중인 지도교사 가운데 41.7%가 지도경력 1년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지도교사의 변동이 심한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도교사의 54.5%를 차지하는 20대 초중반의 불자들이 청년기의 일시적 신행활동으로 어린이법회 지도교사를 맡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스님)이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등에서 실시한 지도교사 연수회 참가자 5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지도교사 육성과 지원에 대한 의견조사'를 통해 분석된 결과다.

어린이법회 지도자 경력 1년이하 42%
조계종포교원 실태조사

이번조사에 응답한 지도교사 가운데 83.6%가 여성이고, 불교경력 10년이하(65.1%), 지도교사 시작시 불교경력 4년이하(47.3%)인 지도교사의 비율이 매우 높아 체계적인 교육과 신행활동을 토대로 어린이법회를 지도하는 교사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법회 준비시간에 대해서도 42.4%가 1~2시간, 32.1%가 1시간이하라고 답해 새로운 프로그램개발 등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도교사의 대부분이 무급(74.1%)이며 유급의 경우도 5만원~10만원이하의 교통비만을 받는 자원활동가인 것으로 조사돼, 사찰의 어린이법회에 대한 배려가 매우 미약함을 보여주었다.

응답자들은 어린이법회 지도교사 육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정규 전문교육실시(48.0%), 지도교사에 대한 재정지원(22.3%), 전문교사자격증제도 도입(9.2%) 등을 꼽았으며, 어린이법회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법회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3.0%), 어린이불교학습자료 개발보급(25.1%), 지도교사 육성 및 과견(24%)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지도교사의 79.5%가 종단차원의 교육이 실시되면 참가하겠다고 답해 종단차원의 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자 기자

「오가피를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늙음을 견디게 하고 수(壽)를 더하게 하고 늙지 않게 한다(久服卽輕身耐老 延年不老) - 동의보감」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MBC 9시 뉴스, 조선일보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되어 화제가 된 오가피 제품을 **생산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판매합니다. 99년 1월 9일자 일간스포츠의 보도("**오가피 알고봤더니 金가피**")에 다르면 이종범 선동렬 이봉주등의 유명 운동 선수들을 비롯한 대표선수 68명이 오가피를 상복하여 효과를 보고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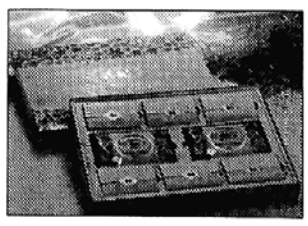
서북토종오가피 농장에서는 유기농법으로 오가피 5천여그루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산자의 양심을 걸고 정직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합니다.

▮ 전화문의 및 농장방문을 환영합니다.
▮ 복용사례가 담긴 오가피에 관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 제품: 오가피 추출액, 오가피 열매 발효액, 오가피 묘목
▮ 주소: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운정3리 9-5
서북오가피직판장
▮ 전화: 0333-682-5033/4
▮ 인터넷 홈페이지:http://myhome.netsgo.com/baeghj/

백산종합해사
BACK SAN TOTAL MARINE CO.,
대표이사 白 文 鉉
취급품목 : 1)선박기관(내연) 및 냉동기 수리 및 부품
2)각종 유압 WINCH제작 및 수리
3)각종 선박 부품 제작 및 납품
4)무역 및 잡화
본 사 :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1가 5번지
TEL : 051)413-9600(대)
FAX : 051)413-9602
일본사무소 : 神戶市 中央區 若菜通 5丁目 1-9-168號
TEL : 81-78-230-1323
FAX : 81-78-230-1234
공 장 : 釜山市 影島區 南港洞 2街 24番地
TEL :051)413-1193
FAX : 051)413-2339

일호면직상사
옥양옥, 광목, 삼베, 모시,
각종면직도매, 영가옷, 수의도매
대 표 백철우
■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4가 국제시장 5공구 B동 下층 1호, 2호
TEL : 051)246-4263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항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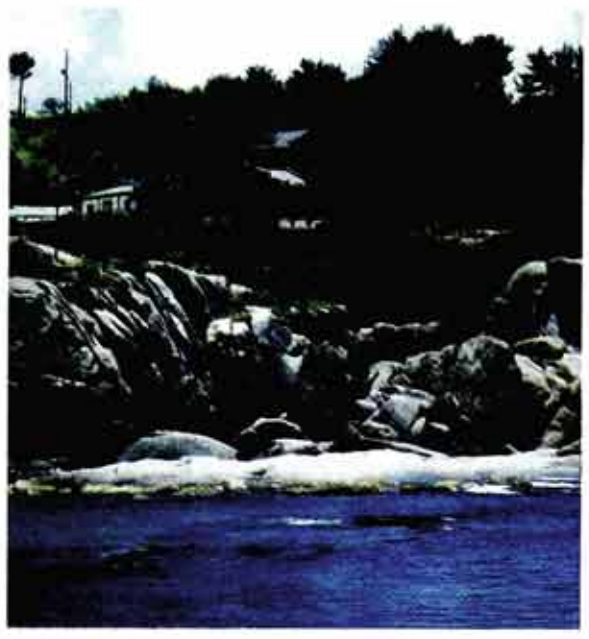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동해안 기도성지 / 천수관세음 기도도량 강원 양양 休休庵

중생의 업보, 세속의 번뇌망상을 씻어버리고



■ 장수바위에서 바라본 휴휴암

강원도의 경포대를 지나 양양가는 길목, 눈앞에 펼쳐진 시원한 바다와 병풍처럼 펼쳐진 주변풍경이 마치 새로운 세계가 곧 내 눈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알 수 없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그 풍경에 젖어 들며 20분 정도 자동차를 달리다 한적한 도로변 둘에 새겨진 휴휴암(休休庵) 이란 이정표를 보는 순간, 그 놀라운 절경과 정말 잘 어우러진 불도량을 발견하게 된다

산사(山寺) 바로 밑을 떠바치듯 장식하고있는 동해의 맑은 물과 바위들,산세 수려한 곳에 청정도량으로 이어지는 길목의 절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말이 끊어진 그자리 곧 안심처(安心處)의 대자유를 보게 한다. 휴휴암은 바닷가에 인접한 사찰 중에서도 국내유일의 천수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있는 특이한 기도도량으로 양양군 광진리 1번지에 있으니 불법 번창 시작점의 역할을 인연 지고있으며 수행 승의 정진으로 일구어진 사찰인 만큼 마음의 고향에서 느껴볼 수 있는 아늑함이 존재한다. 여기에 주지 홍법스님의 넉넉함이 있어 휴식하거나 공부하러 오는 대중들에게 스님은 서슴없이 빈방을 내어준다. 본시 부처님도량은 찾아 오는 이 그 누구도 불제자로서 휴식하고,기도하고,공부할 자격이 있는 공간이라는 말씀이다. 경포대에서 휴휴암으로 가는데 불과20분 그 만남의 인연이 소요시간에 비교될까

말이 끊어진 그자리가 곧 安心處요 大自由



■천수관세음보살

『 10년 원력으로 일궈낸 천수관세음보살 기도도량 』

휴휴암은 한 스님의 10년 원력으로 세워진 사연 많은 사찰이다. 사연이 많은만큼 휴휴암 창건불사 중에 기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천수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있는 묘적전은 이름만큼이나 묘한 일들 속에 불사가 진행되어 대중들 속에 이야기로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속속들이 그 사연이 다 알려지지는 않았다.

오늘날 유명 사찰의 창건 설화가 사찰이 지어지기까지의 유래와 불가사의한 일들을 기록으로, 혹은 구전으로 전하고 있듯이 휴휴암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대중들 속에서 이야기된 기이한 일들이 몇 가지 있다.

번뇌망상 쉰자리 한번더 쉬어야 그곳이 佛道

휴휴암은 한 스님의 원력과 수행 속에서 나온 이름이다. 휴휴암의 대웅전 역할을 하는 묘적전은 모든 업보, 번뇌 망상을 쉬는 사람은 알 수 없는 묘한 성취가 이루어 진다 해서 묘적전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러한 쉼 속에서 한번 더 쉬어야만 진정한 불도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휴휴암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천수관세음보살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묘한 이치, 묘한 법문, 묘한 신통력을 느끼게 된다. 즉 진정한 원을 세워 정진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는 것이다



■묘적전

휴휴암의 묘적전은 우연치 않게 양양군 광진리 1번지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으나 광진리에서 처음인 1번지에 절이 있다는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보다는 불법이 이곳으로부터 계속해서 번창하라는 어떤 계시가 있는 느낌이다.

"작업에 지쳐잠든 꿈속에서 노스님, 젊은스님, 동자승 등 세상 스님들이 다모여 빨래하고, 멱감고…"

스님이 처음 이곳에 인연이 닿기는 매우 힘들었다. 3대 보궁 주지스님을 역임한 스님이 사찰터를 쉽게 결정할 수 없음은 당연했다. 수많은 곳을 보고 찾으려는 만행의 결과가 양양군 광진에까지 인연이 닿게 했던 것이다.

단지 동해의 넓은 바다와 주위 바위들의 기괴한 절경이 어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이곳이야말로 기도성지로서는 최상의 터가 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 휴휴암의 불사가 시작된 것이다.

드디어 불사는 시작되었지만 막상 불사에 필요한 재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많은 사찰의 주지스님을 역임하였지만 수중에 가진 불사금은 몇푼 안 되었고 막연히 기다릴 수도없는 형편 이었다. 그러나 스님이 10여 년 전 세우신 원력의 힘으로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차츰 스님이 기도하며 불사한다는 사실을 안 신도들의 불사 동참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각계각층의 많은 대중들이 어떻게 알고 불사에 동참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스님은 당시의 일을 털어 놓는다.

묘적전의 점안식을 3일 앞두고 단청 작업은 끝났지만 서둘러 마무리 공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법회를 보아야 했기 때문에 법당 마루 평탄작업이 시급했고 이 일이 큰 화근으로 다가왔다. 마루를 평평하게 깔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수많은 먼지가 방금 끝낸 단청 및 기둥 심지어는 천수관세음보살상에까지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법당 안이 정말로 먼지 천지가 되버린 것이다.

스님은 진공청소기 및 걸레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먼지 제거에 나섰으나 먼지는 그대로였고, 나오는 것은 한숨뿐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었다. 밤늦도록 먼지 제거작업에 지친 스님은 그대로 법당 안에서 잠이 들고 말았는데 꿈속에서 노스님, 젊은 스님, 동자승 등 세상 스님들이 다모여 빨래하고, 멱감고,야단법석이 나 있어 스님은 이게 웬 일인가 하고 쳐다보다 잠이 깼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법당안에 있어야 할 먼지가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지고 깨끗한 법당이 되어있질 않은가. 스님도 믿을 수 없어 기둥을 문질러 보고, 단청도 만져 보았지만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순간 스님은 '이것이야말로 천수관세음보살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나 감동하고, 고맙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환희심이 났다고 한다.



■전경바다

창건시주의 집에는 공덕의 정후가..

이러한 상서로운 일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묘적전 복장의식이 있는 날이었다.
복장의식을 모두 마쳤을 때 난데없이 급한 전화가 왔다. 신도가 경영하는 호텔에 산돼지가 새끼를 거느리고 대형유리를 깨고 들어와 피를 흘리며 곳곳을 들아다니다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강릉 시내에 느닷없이 산돼지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상스럽게 생각되었는지 무슨 불길한 일이 아닌가 하고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여의주바위

이 이야기들은 스님은 '정말 복이 굴러들어왔군요' 하면서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설명해 준다. "꿈속에서 돼지를 보아도 복 받는다고 좋아 하는데 살아있는 현실 속에서 그냥 돼지도 아닌 산돼지를 보았으니 좋은 일이고, 더구나 새끼까지 데리고 들어 왔으니 앞으로 돼나 번창하겠네요. 그리고 피를 흘리고 돌아다닌 것은 왔다 갔다는 증표로 남긴 것이니 불길한 일이 아니니 괜찮아요. 돼나 하면 유리만 깨지고 말았다면 누가 믿겠어요." 실제로 이 일은 강릉지방에서도 방송으로 대서특필된 내용이었다.

알고보니 전화를 건 사람은 묘적전 복장물을 모두 시주한 여신도였다.
묘한 일은 다른 곳에 산돼지들이 들어가지 않고 유일하게 휴휴암 여신도가 있는 곳에만 들어왔다 사라졌다는 것이다. 여신도의 신심에 감동한 휴휴암 천수관세음 보살님이 화현하여 현신하신 것이라고 당시에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다.
이밖에도 탱화를 그리던 거사가 탱화작업이 끝나던 날 꿈속에서 백의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한 일 등 불사중에 묘한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던 것이다.
이처럼 휴휴암은 원을 세우고 일심 정진하는 대중들에게 좋은 기도처로써 흠뻑한 사찰임을 여러가지 체험과 기이한 일들이 증명해 주고 있다.

가족과 함께 휴양하는 휴휴암

휴휴암의 명소는 장수바위와 휴휴정(황토방으로 만든 선실) 등이 있다. 창건된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스님의 수행정진으로 일구어진 사찰인 만큼 사골방에서 느껴지는 아늑함이 있다.



■휴휴당(황토집)

휴휴암 바로 밑은 동해의 맑은 물과 바위들로 장식되어 있고, 특히 사찰에서 바위 틈을 바라보면 큰 거북 모양을 한 바위(일명 장수바위)가 떡 버티고 서 있어 방문한 이들의 마음을 청정케 한다.



■장수바위(거북바위)

또한 주위의 암석들은 큰 거북을 호위하듯이 새끼 거북 모양을 한 바위들이 둘러있는데 마치 거북 가족이 무엇을 찾으러 가는 듯한 느낌에 사로 잡힌다.

그러면 왜 큰 거북바위가 장수바위로 불리울까? 사연은 다음과 같다. 비오는 날 바다의 소금기 있는 물로 씻기우고, 맑은 날에는 태양빛이 큰 거북바위 등에 열을 가한다.

큰 거북등은 마치 발바닥 지압에 알맞게 울퉁불퉁 뛰어나와 있고 태양열에 의한 발열효과로 인하여 거북등은 데워진다.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자연적인 발 지압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할점은 장수바위 위에 올라갈 때에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지만 이러한 효과를 보게 된다. 또한 장수바위는 약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방생지로서도 최적의 요건을 제공하기도 한다

경포대에서 휴휴암에 올 때 걸리는 시간은 불과 20여분의 거리다. 이제는 휴휴암이 기도처로, 휴식 공간으로, 참선장으로 대중들에게 진정으로 다가서는 사찰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주지스님은 말씀하신다.

"신심을 가지고 원을 세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실천한다면 못 이룰 일 이 없습니다"



■휴휴암 주지 홍법스님

홍법스님은 어린 시절부터 강원생활을 하면서 앞으로 커서 큰 절의 주지스님이 되겠다고 남다른 원을 세웠다.
이때부터 스님은 도량청정의 수행에 정진한다.
"눈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청정하게 하는 생활"이 홍법 스님의 화두요, 수행이었다. 다른 사찰을 방문하는 날에도 스님에게는 도량청정의 공부였다. 주위에 널려있는 쓰레기 등을 모아 정리하면서 이러한 훌륭한 도량에 보내주신 부처님이 너무도 고맙고 환희심이 났다고 한다.

계속되는 만행 속에서 드디어 어릴적 원이었던 주지품신이 들어오게되었다. 당시 주지스님을 맡기에는 어린 법랍이었다. 그러나 도량청정의 수행 속에 서일구어 온 스님의 부지런함은 사찰을 이끄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사찰이 날로 번창해 감에 따라 스님은 여러곳의 주지를 역임하게 되었고 특히 상원사, 정암사, 법흥사에서 보궁을 참배하면서 직접 공양을 올리고 기도 정진한 생활은 잊을 수가 없고 이러한 도량에 보내주신 부처님께 감사한다고 한다.
스님은 다른 곳의 주지 임명이 되면, 소리없이 입명 3일 전에 그곳 사찰에 찾아가 기도를 하곤 했다. 스님 나름대로의 부처님께 인가받는 한 방편이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 홍법스님의 화두요 수행이다.

"부처님께서 이 절의 일꾼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3일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내게 해 주십시오" 이처럼 홍법스님은 항상 저녁에 만행을 해서 전(前) 사찰의 원망 아닌 원망을 들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스님의 신심과 무소유 생활은 어머님의 영향이 컸다고 한다. 어린 강원시절 집에 갈 기회가 있어 어머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님께서는 사방에 큰 절을 올리면서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모습에서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었다고 한다.
홍법 스님이 수행 중 잊혀지지 않는 곳은 상원사 생활이었다. 베낭을 메고 부처님께 마지공양을 올리는 생활을 할 적에는 마치 행자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한다.

♣ 휴휴암 기도처 안내 ♣

주 소 :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광진리 1번지
전화번호 : 0396-671-0525, 671-0093
011-375-9147



양양 휴휴암 주지 홍법 합장